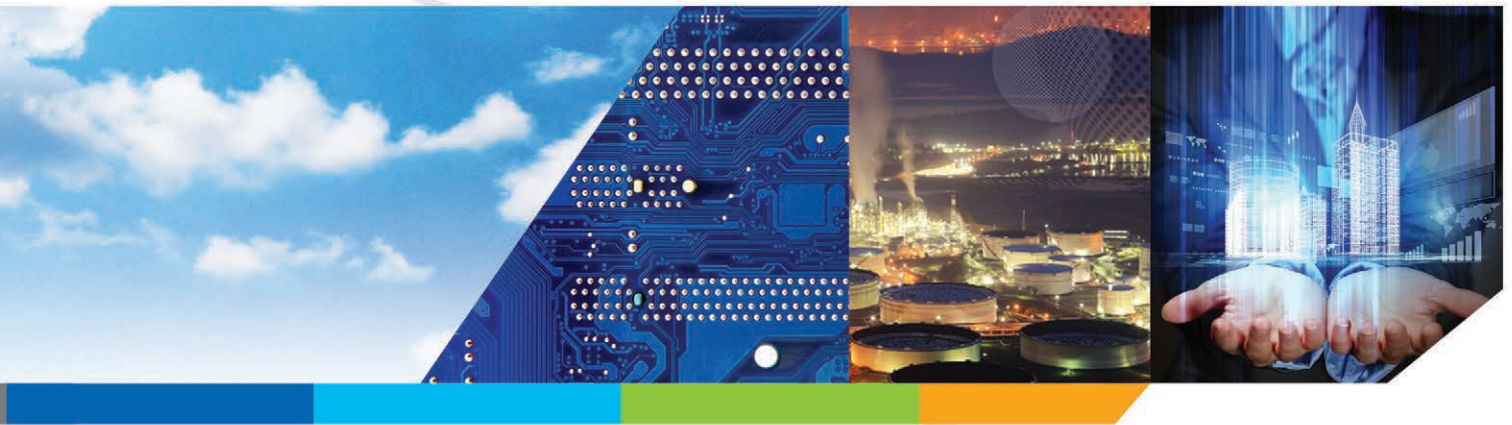


한국지역학회 Glocal Open Innovation

세계가 하는 미래 산업단지 대전이 하는 혁신 산업단지 정책토론회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
장 소 (구)충남 도청사 2층 중회의실
주 최 한국지역학회, 대전발전연구원
주 관 대전발전연구원

개 회 사

한국지역학회 회원 여러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역학회 회장 김의준입니다. 먼저, 금년 6월에 있어
두 번째인 Glocal Open Innovation Series 학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준비해주신 대전발전연구원 유재일 원장님과 한밭대학교
UCRC 이상호 학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지역학회는 지난 1983년 창립되었습니다.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개발 과정을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이를 이론화하는데 학문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학에서는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입지를 어떻게 결정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주제어인
“대전의 미래·혁신 산업단지”는 지역학 연구 분야 중 가장 중추적인 과제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전통적인 지역경제 시각은 공급의 생산요소와 수요의
투자 변화 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가치 사슬, 산업 생태학, 수직적-수
평적 생산과정의 분할과 통합, 제품 시장과 생산 기술의 연계 등 산업단지의
공간적인 동태성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지역경제
네트워크 위상과 연구개발 중심의 창조적인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전문가를 모시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역 산업 전략을 수립
하는데 필요한 촉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 모임이 대전 산업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확산하고 새로운 연구 분야와 정책을 기획하는 데 도움 되
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기꺼이 좌장을 맡아주신 충남대학교 한표환 교수님,
발표 준비를 해주신 충남대학교 안기돈 교수님, 국토연구원 장철순 박사님,
대전발전연구원 정경석 박사님 그리고 여덟 분의 토론자,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역학회 회장 김 의 준

환영사

오늘 「세계가 하는 미래 산업단지, 대전이 하는 혁신 산업단지」라는 주제로 (사)한국지역학회와 (재)대전발전연구원이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의준 한국지역학회장님 이하 이사님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한표환 교수님, 그리고 주제발표 및 토론을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산업입지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기업하기 좋은 입지 환경 마련을 통해 기업, 인재, 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또는 도시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IT, BT, NT 등 첨단산업의 출현과 ET(Environment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등의 신성장 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과학기술 혁명이 가속화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흐름 속에서 대전시의 산업 생태계 구조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기업활동 유치 및 지역경쟁력 확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왔던 지역내 산업단지의 입지를 어떻게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높은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사료됩니다.

금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 주요 발제자 및 발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충남대학교의 안기돈 교수님께서 세계적 관점에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단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신 국토연구원의 장철순 박사님께서 국내적 관점에서 최근 산업입지 정책의 동향과약과 우리 대전시의 산업단지 개발전략에 대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의 정경석 박사가 지역적 관점에서 그 동안 연구해 왔던 대전시의 산업입지 여건 및 산업단지 공급 혁신 방안이란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적 관점에서 국가적 관점으로, 그리고 다시 지역적 관점에서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산업단지의 개발전략을 입체적으로 진단해주시고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 패널분들이 심도있게 토론해 주심에 매우 짜임새 있고 알찬 정책토론회가 되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정책토론회가 대전시의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환경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재 일



진행순서

14:00~14:15	개회사	김의준 한국지역학회 회장
	환영사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
14:20~15:30	발표 1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단지 패러다임의 변화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 2	최근의 산업입지 정책 동향과 대전의 대응 과제 장철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박사
	발표 3	대전시의 산업입지 여건 및 산업단지 공급 혁신 방안 정경석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박사
15:30~15:40	휴식 및 정리	
15:40~16:50	지정토론	[좌장] 한표환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토론] 김재홍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학훈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최정석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박사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박사 이원빈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박사 성장환 LH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박사 이용구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장
16:50~16:58	열린토론	
17:00	폐회	

사회 김홍석 한국지역학회 총무이사

목 차

〈발표 1〉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단지 패러다임의 변화 …… 1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 기 돈	
〈발표 2〉 최근의 산업입지 정책 동향과 대전의 대응 과제 …… 27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박사 장 철 순	
〈발표 3〉 대전시의 산업입지 여건 및 산업단지 공급 혁신 방안 …… 59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박사 정 경 석	
▣ 토론요지 …… 105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단지 패러다임의 변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 기 돈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산업과
미래 산업단지 혁신 패러다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단지 패러다임의 변화

2014. 10. 13

안기돈

충남대학교

**Tulip
농장**



열대우림



출처: 네이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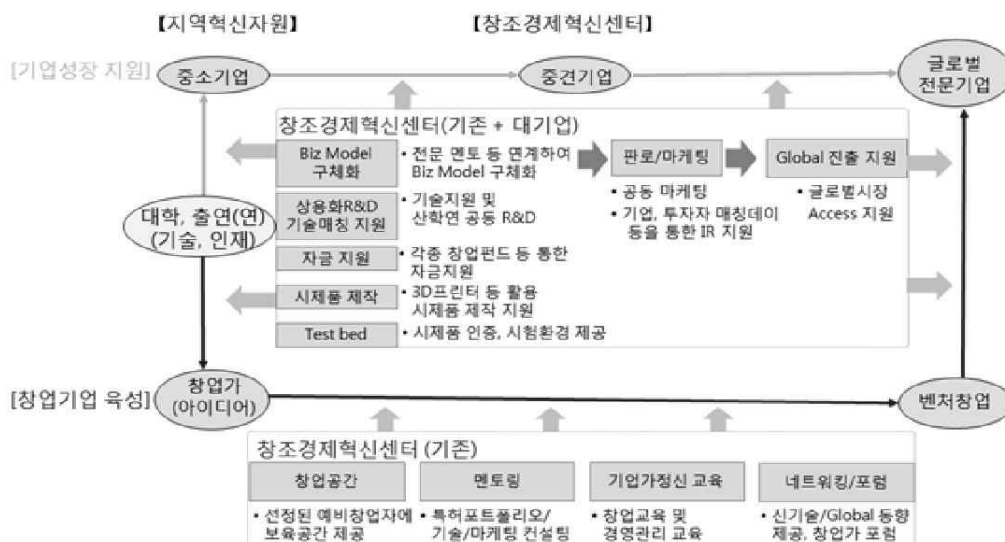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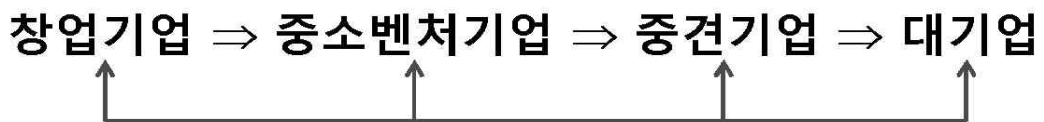


아시아엔



매일경제

지역 창조경제 조성 방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4.3.10.

목 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일반현황

III. 혁신클러스터 모형

IV. 혁신클러스터 해외사례

V. 결론

I. 서론

1. 우리나라 산업단지정책의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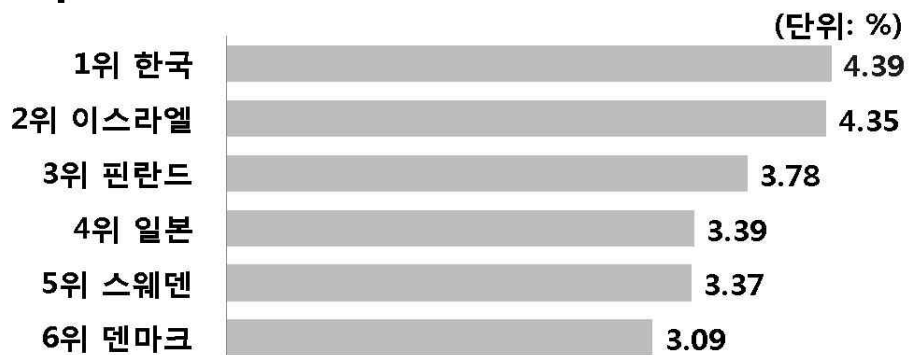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발전 단계	산업발전기반 형성기	중화학 공업기반 확충기	산업구조 조정기	산업발전 도약기	산업발전 성장/확대기
산업 정책 기조	· 정부주도의 경공업 위주의 수출정책 · 사회간접자본의 기반확대	· 정부주도의 중화학 육성정책	· 중화학분야의 산업합리화 · 기술집약적산업 수출산업화	· (전기)개방화와 민간주도 경제운용 · (후기)IMF관리체제와 산업구조조정	· 지식기반산업, 미래산업의 육성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부문 간 동반발전
산업 구조	섬유, 항만, 전기제품, 신발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	반도체, 전자공업, 자동차	서비스화 중심의 S/W산업 육성, 반도체, 정밀화학,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정보통신산업, 게임산업, 생명산업, 융·복합산업
입지 정책	· 계획입지개발제도 · 수출위주 경공업 입지	· 대규모 중화학공업 기지 조성 · 수도권개발억제	· 산업단지내실화 · 국토균형개발추진 · 농공단지개발	· 입지유형 다양화 · 입지규제 완화 · 산업단지 명칭변경 · 개발절차간소화	· 전문화된 집적지구 · 지식기반경제구축 지원 및 클러스터화 추진 · 기존단지의 경쟁력 제고
관련 법규	· 국토건설종합계획 ·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 기계(조선, 전자)공업진흥법	· 지방공업개발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 공업배치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중소기업진흥법 ·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 공업발전법	· 산업입지법 · 공업배치법 · 국토이용관리법개정 ·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별법	· 산업입지법 개정 · 문화산업진흥법 · 국토의계획및이용법 ('02)
비고	· 울산공업센터 조성 · 구로수출공단 조성	·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 수출자유지역 개발	·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 농공단지 개발	· 개별입지 증대 · 테크노파크 · 아파트형공장 확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문화산업단지 · 외국인투자지역 · 첨단복합의료단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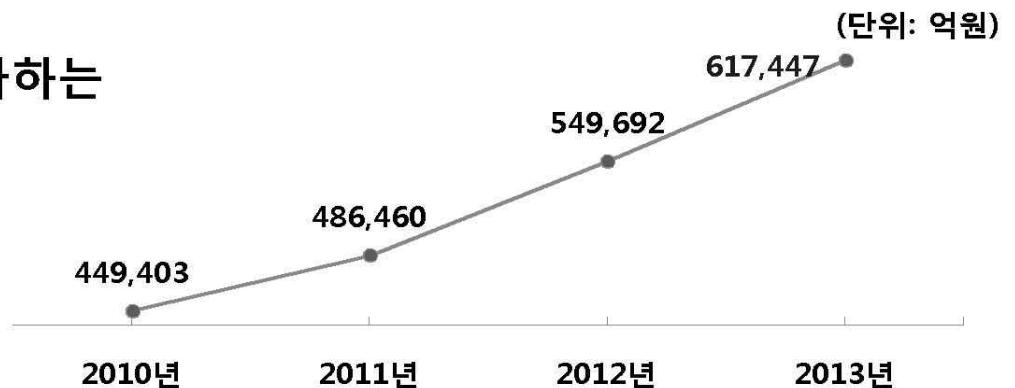
2. 대한민국 R&D 현황 및 역설

(1) 많은 R&D 투자

● GDP 대비 R&D 지출 순위(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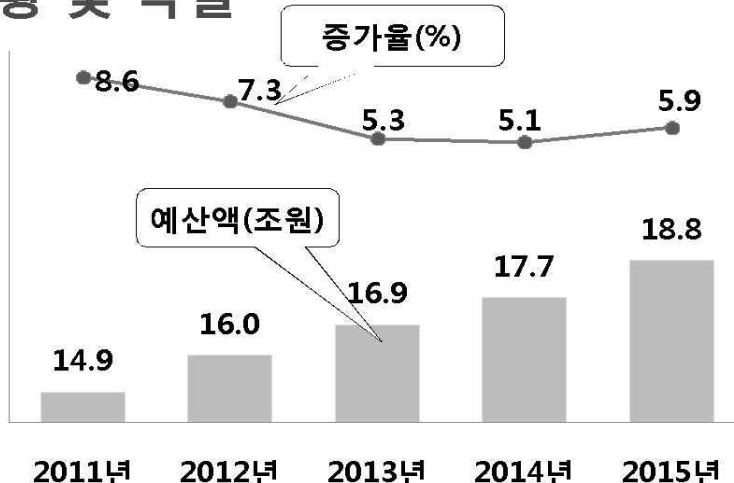
● 해마다 증가하는 R&D 지출



자료: 매일경제, 2014.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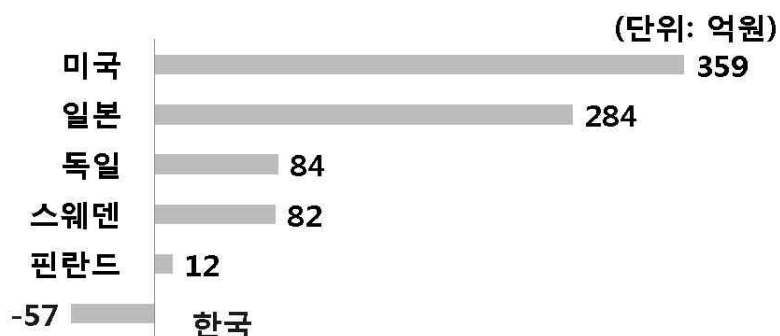
2. 대한민국 R&D 현황 및 역설

- 증가하는 국가 R&D 예산



(2) 낮은 R&D 효과

- 주요국가 기술무역수지



자료: 매일경제, 2014.10.6.

3. 지역혁신정책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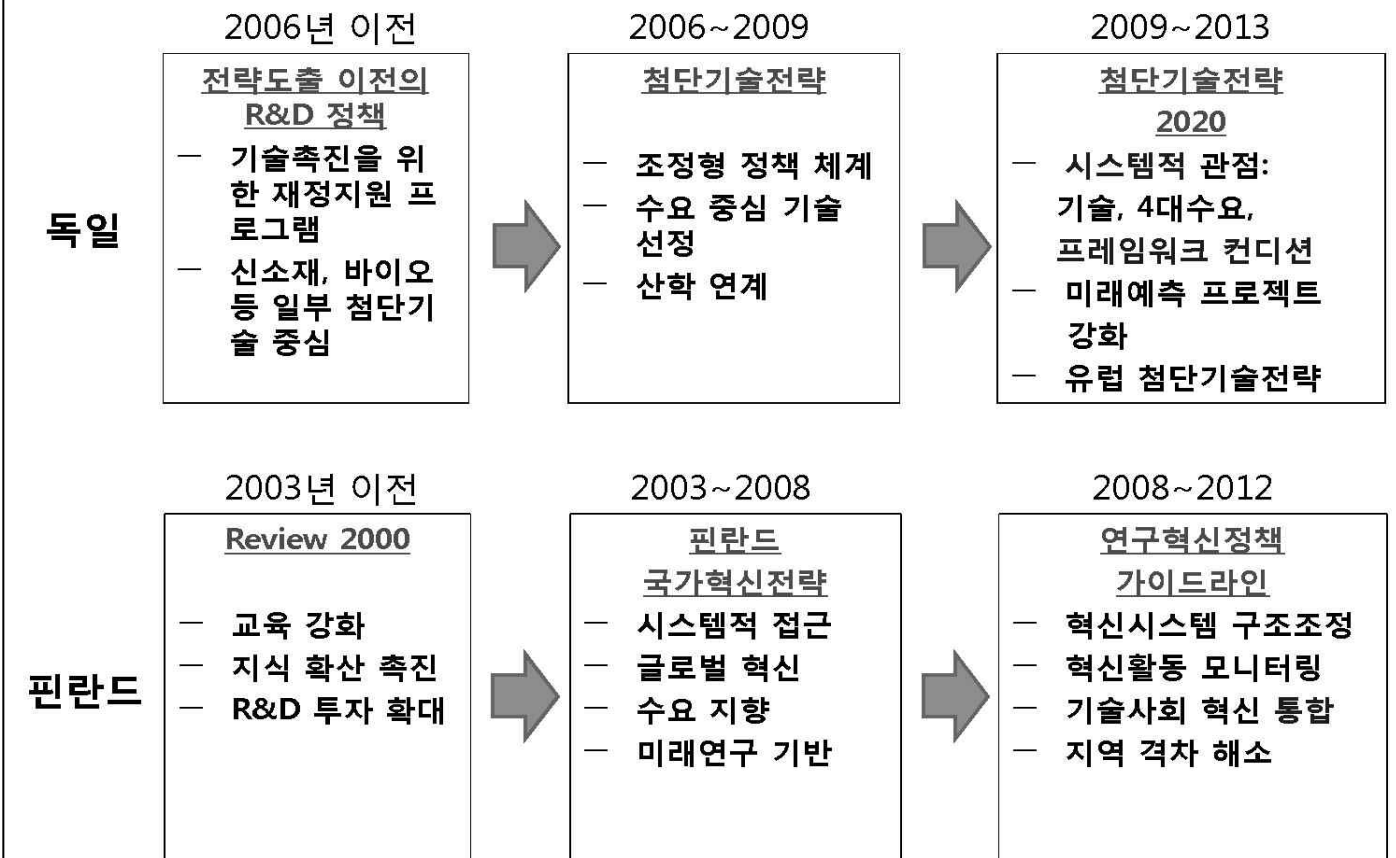
- 지역정책은 균형발전을 위한 자원배분에서 지역 특화자원 및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경쟁력 향상정책으로 변화

구분	전통적 지역개발정책	국민경제의 현대화 정책	혁신 지향적 지역개발정책	통합적 지역혁신정책
기간	1960년대까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중점 목표	전통적 생산요소를 통한 지역발전	지역간·부문간 균형발전	지역발전에 기술요소의 강조	기술중심의 지역발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직접적인 연계
수행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 대상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주요 수단	기업이주 촉진	규제수단; 기업이주 촉진; 재정지원수단	기술하부구조조성 (예, 과학도시); 간접지원수단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통합적 운용
특징	기술요소 경시	기술에 대한 막연한 강조	기술의 개발, 활용 측면의 분리	기술혁신의 전체 과정이 대상;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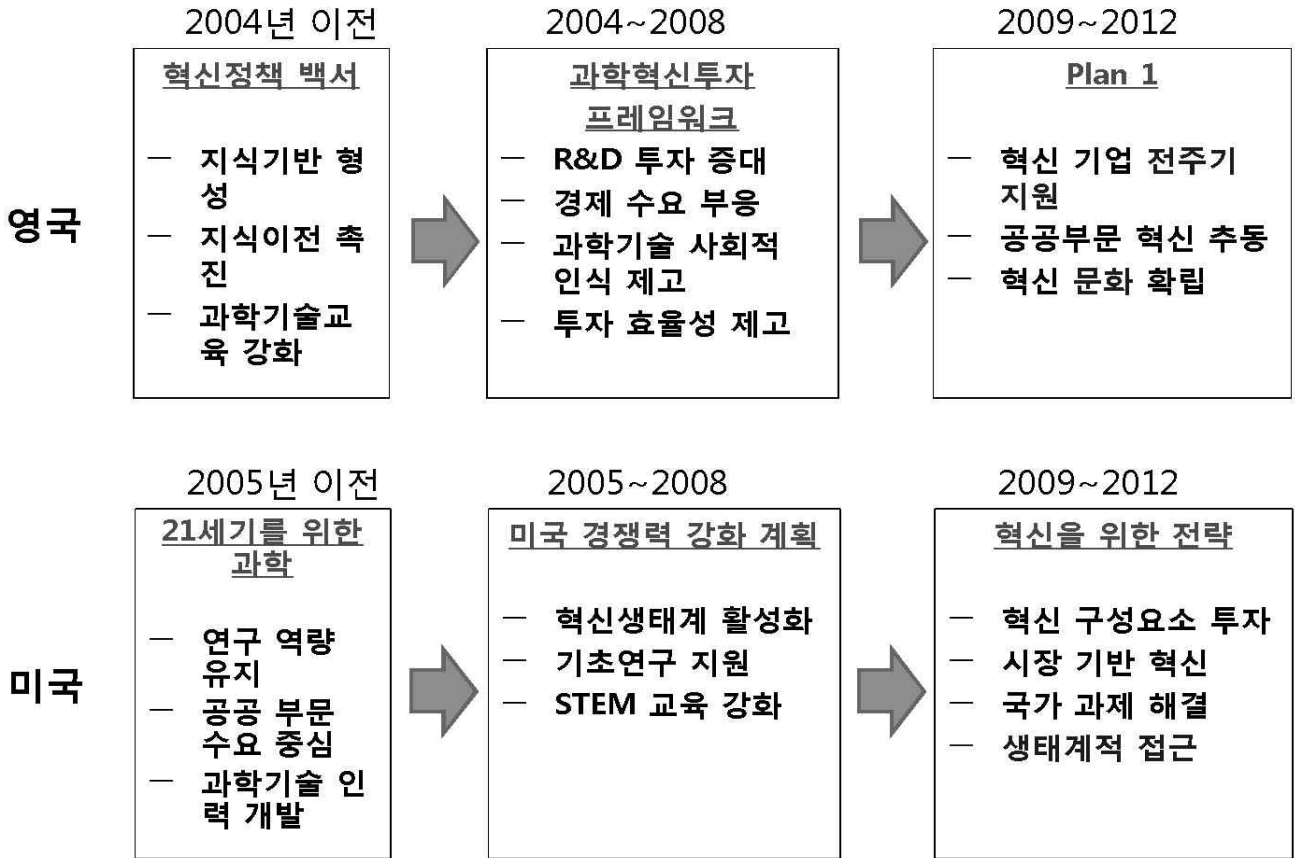
4. 주요 선진국의 혁신클러스터 패러다임 변화

시기	2000년대 초반	→	2000년대 중반	→	2010년 이후
독일	기업 혁신 역량 강화 고용 불안 해소	→	조정형 혁신 체계 핵심 기술 개발 미래수요 지향	→	통합적 혁신, 혁신 로드맵, 글로벌 과제 해결
핀란드	고용 불안 해소 지역 격차 해소	→	시스템적 관점 미래수요 지향	→	조정형 혁신 체계, 통합적 혁신
영국	지식 이전 활성화 혁신정책 평가	→	투자 시스템 강화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정책 체계 일원화	→	통합적 혁신, 혁신문화 수립
미국	연구 역량 유지 공공 수요 대응 인력 양성	→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정책 신뢰도 제고 STEM 교육 강화	→	통합적 혁신, 수요 지향

독일과 핀란드의 혁신정책 변화



영국과 미국의 혁신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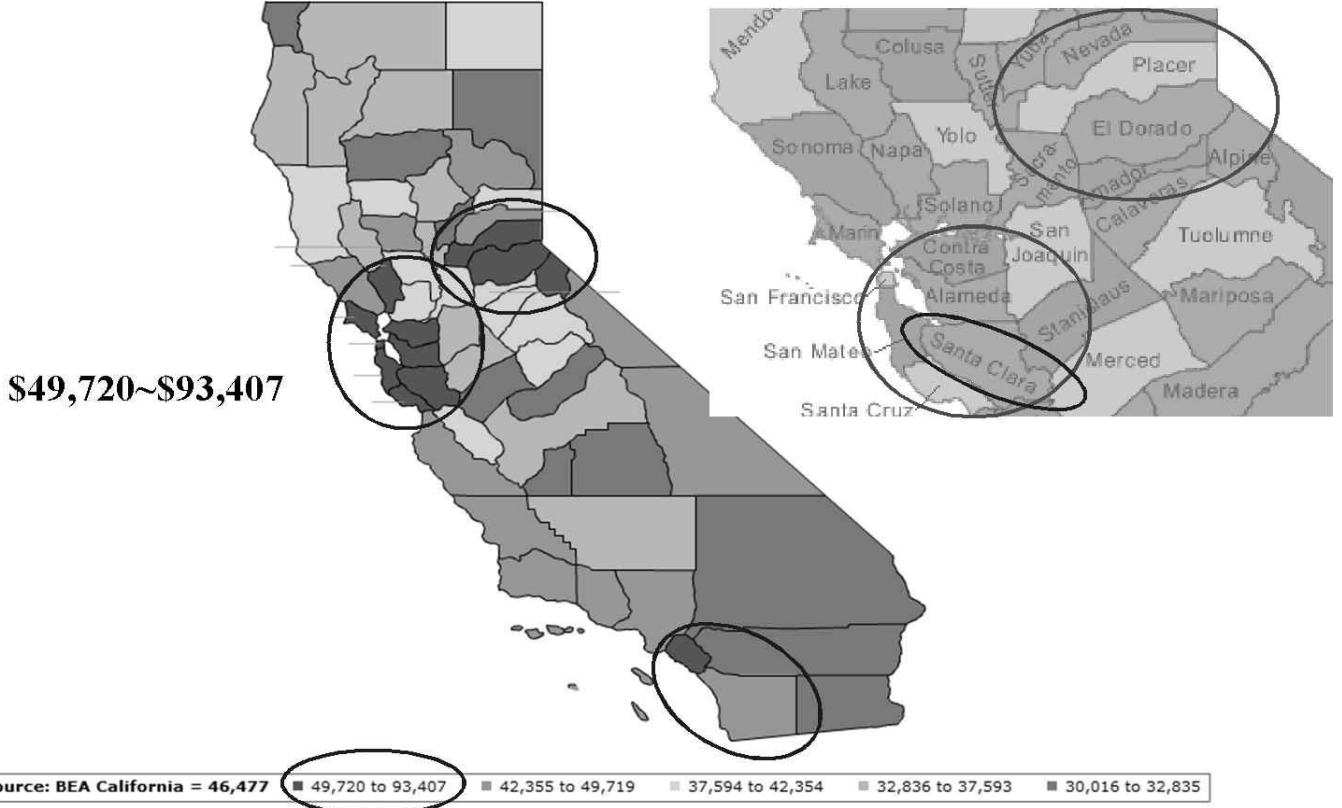
5. 혁신클러스터의 결과: 실리콘밸리 지역

대도시	소득	2012년
United States	\$45,604	
Midland, TX	100,178	
San Jose-Sunnyvale-Santa Clara, CA	90,528	
Bridgeport-Stamford-Norwalk, CT	80,158	
Casper, WY	76,467	
San Francisco-Oakland-Hayward, CA	69,542	
Durham-Chapel Hill, NC	69,468	
Washington-Arlington-Alexandria, DC-VA-MD-WV	66,433	
Trenton, NJ	65,631	
Seattle-Tacoma-Bellevue, WA	64,188	
Anchorage, AK	64,174	
Boston-Cambridge-Newton, MA-NH	63,745	
Corvallis, OR	62,560	
Houston-The Woodlands-Sugar Land, TX	62,438	
Portland-Vancouver-Hillsboro, OR-WA	62,028	
Des Moines-West Des Moines, IA	61,777	
Sioux Falls, SD	60,954	
Boulder, CO	60,533	
New York-Newark-Jersey City, NY-NJ-PA	59,172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gov>

캘리포니아 County별 1인당 GDP,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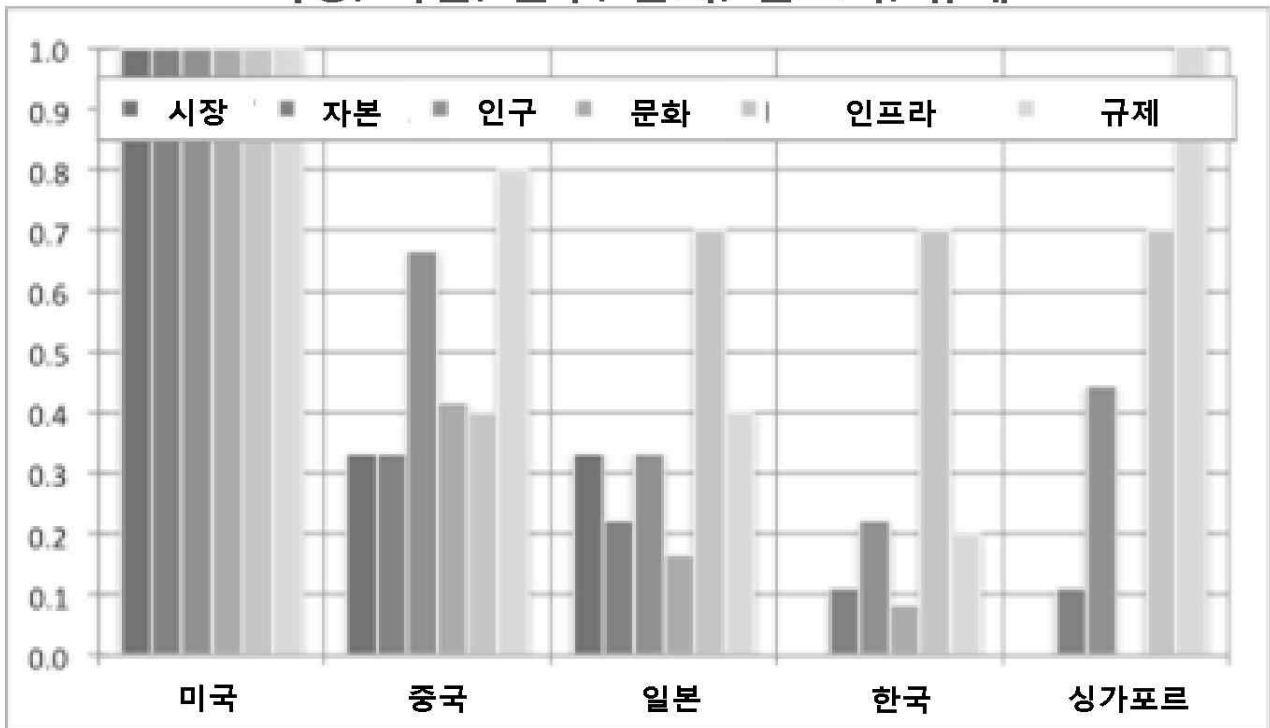
California, Per capita personal income, 2012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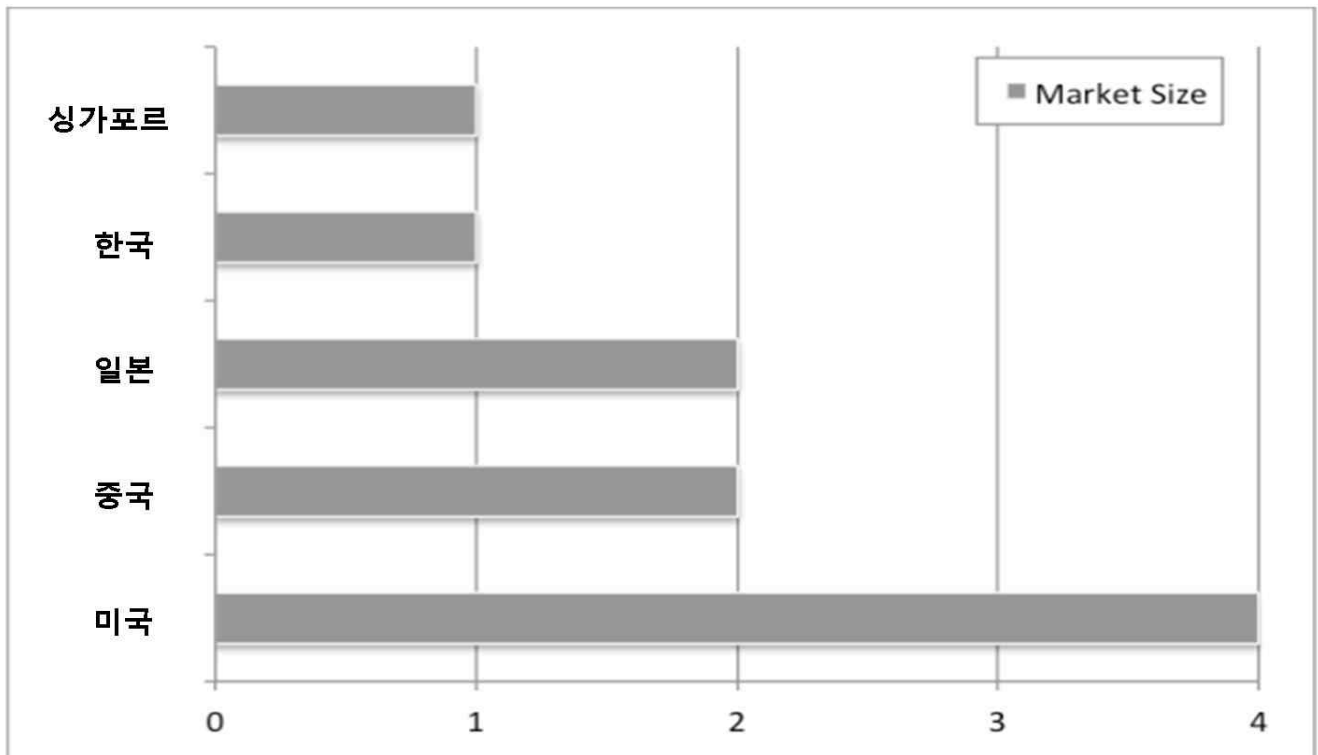
6.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클러스터를 건설하기 위한 6개 핵심요인

시장, 자본, 인구, 문화, 인프라,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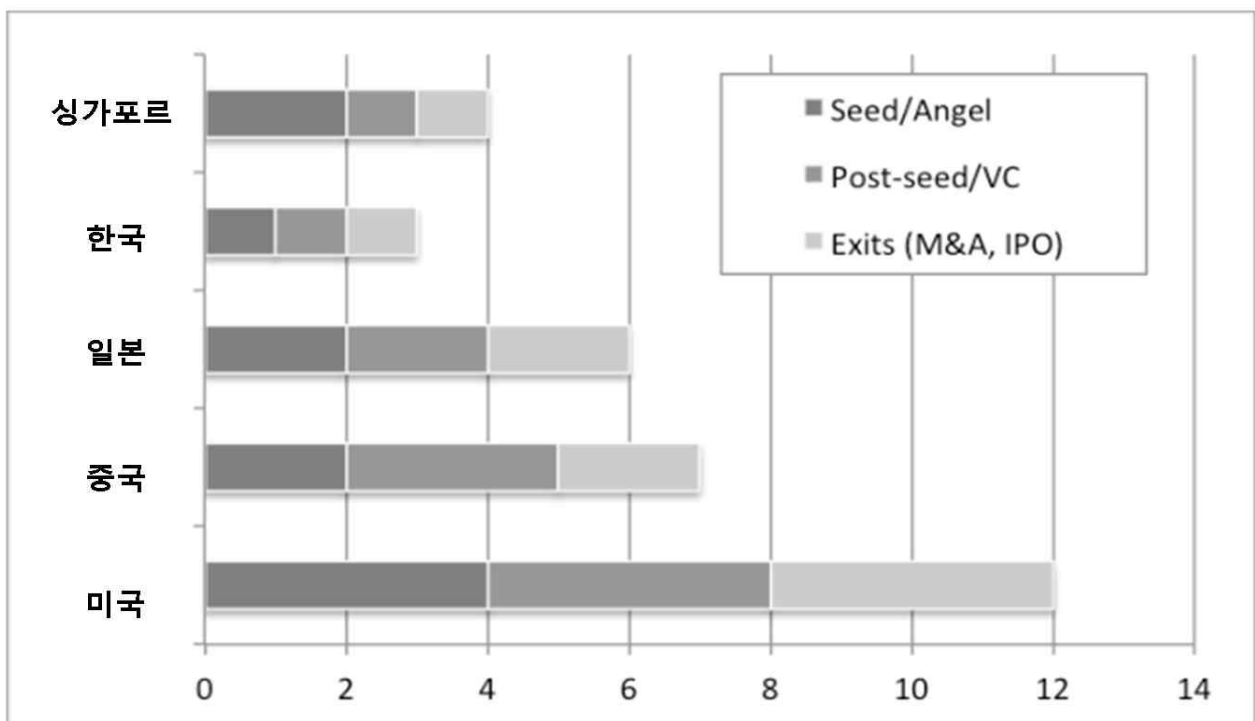
자료: TechCrunch. 2012.9.1,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6개 핵심요인: (1)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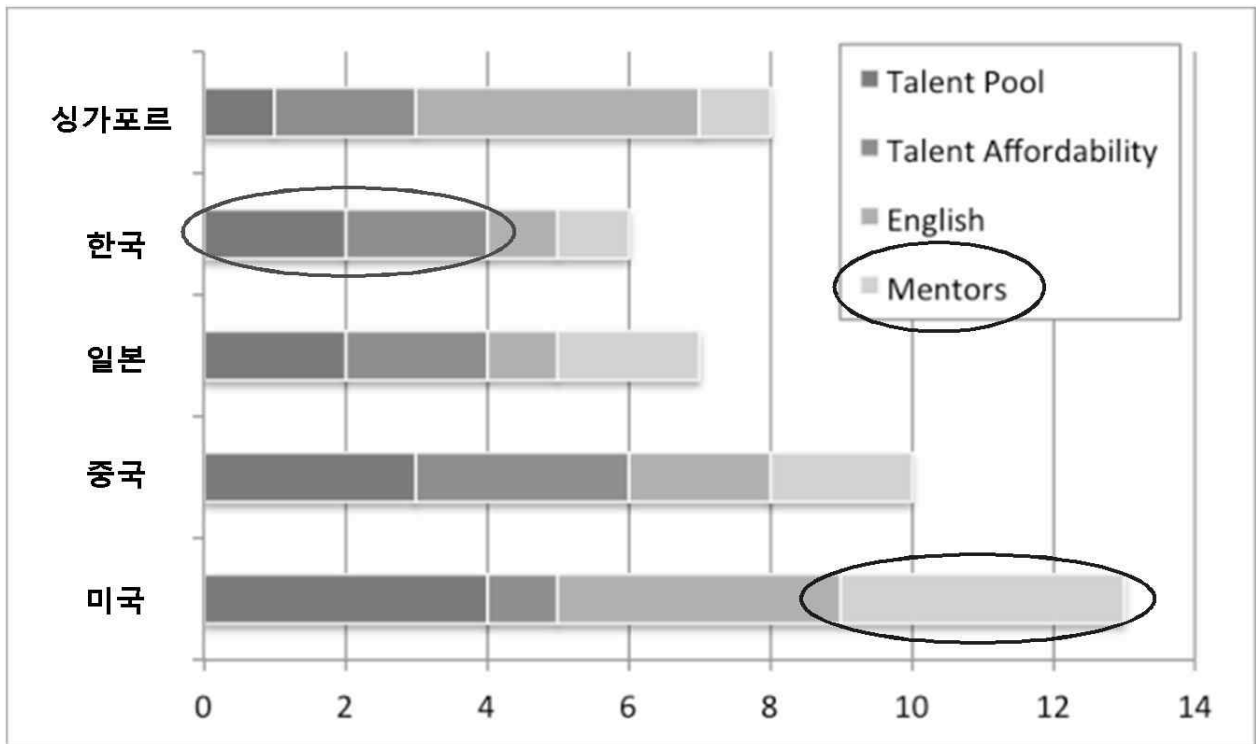
자료: TechCrunch. 2012.9.1,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6개 핵심요인: (2)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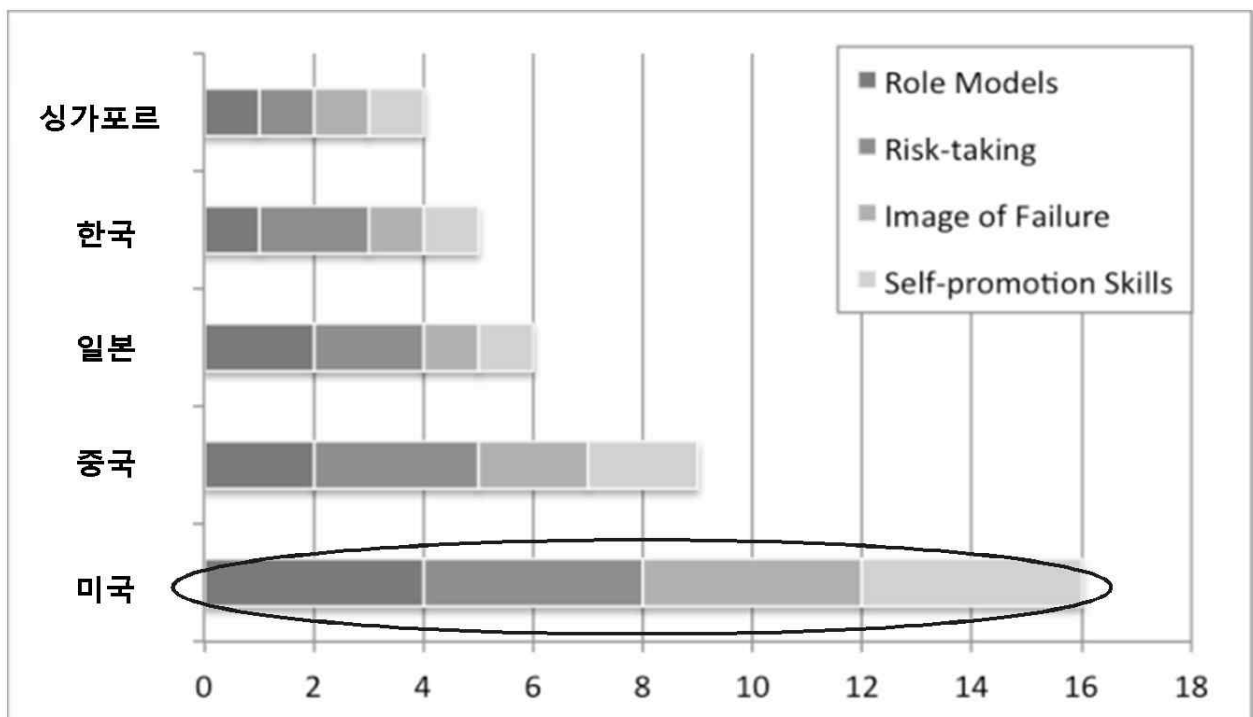
자료: TechCrunch. 2012.9.1,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6개 핵심요인: (3)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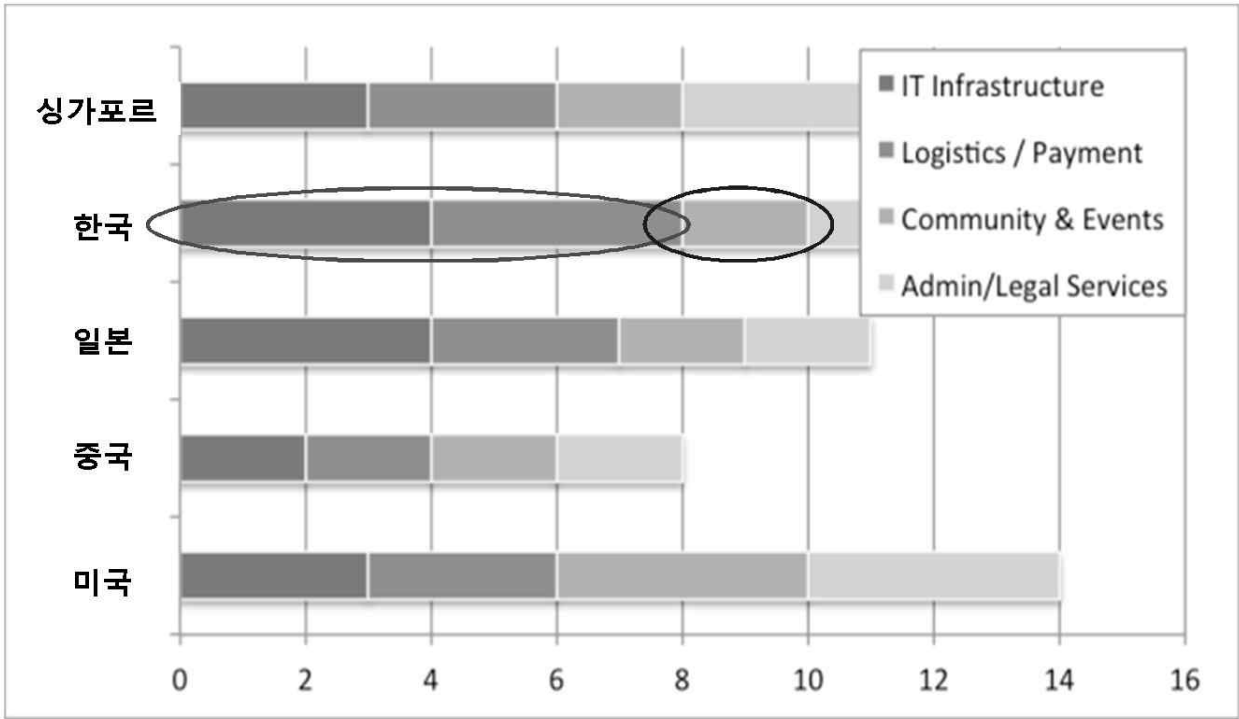
자료: TechCrunch. 2012.9.1,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6개 핵심요인: (4)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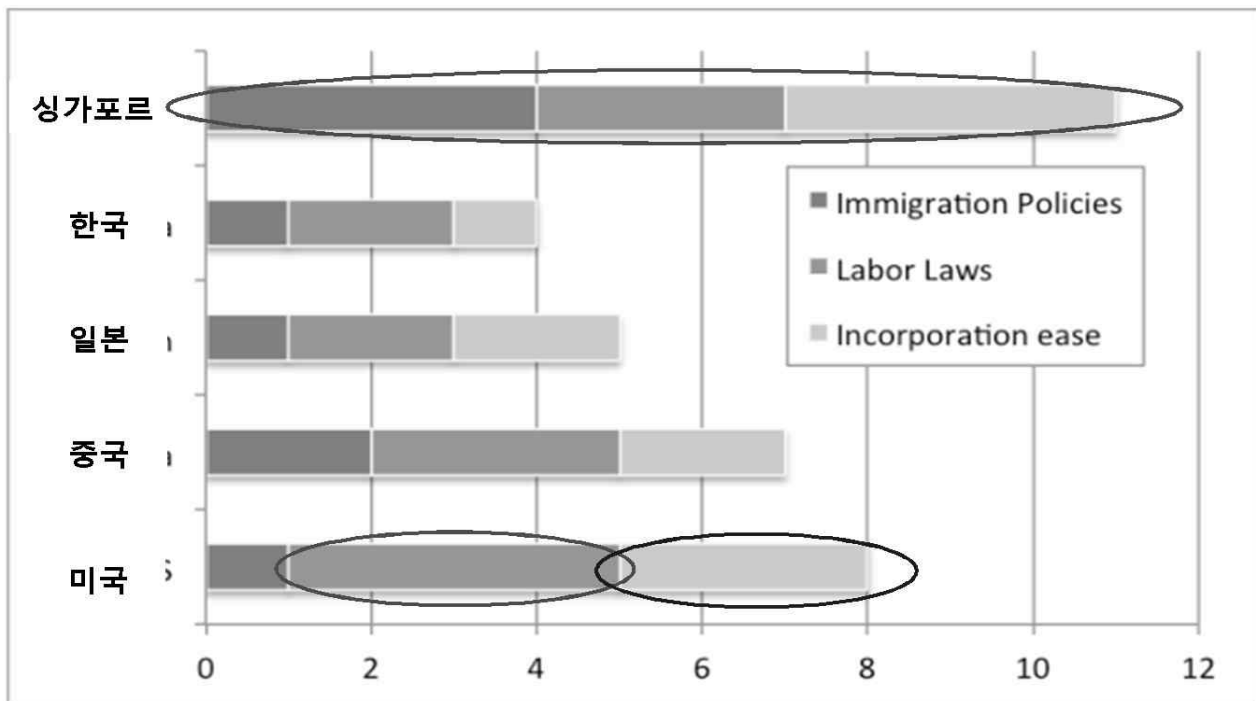
자료: TechCrunch. 2012.9.1,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6개 핵심요인: (5)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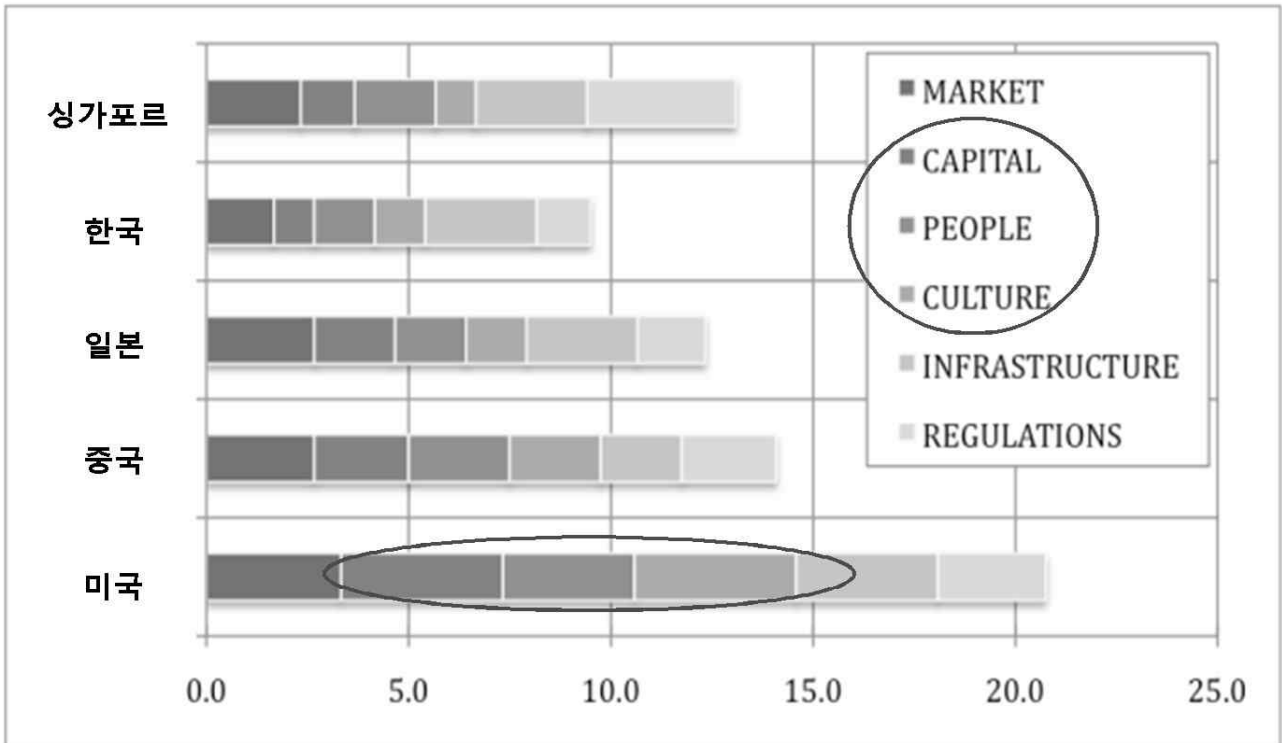
자료: TechCrunch. 2012.9.1,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6개 핵심요인: (6)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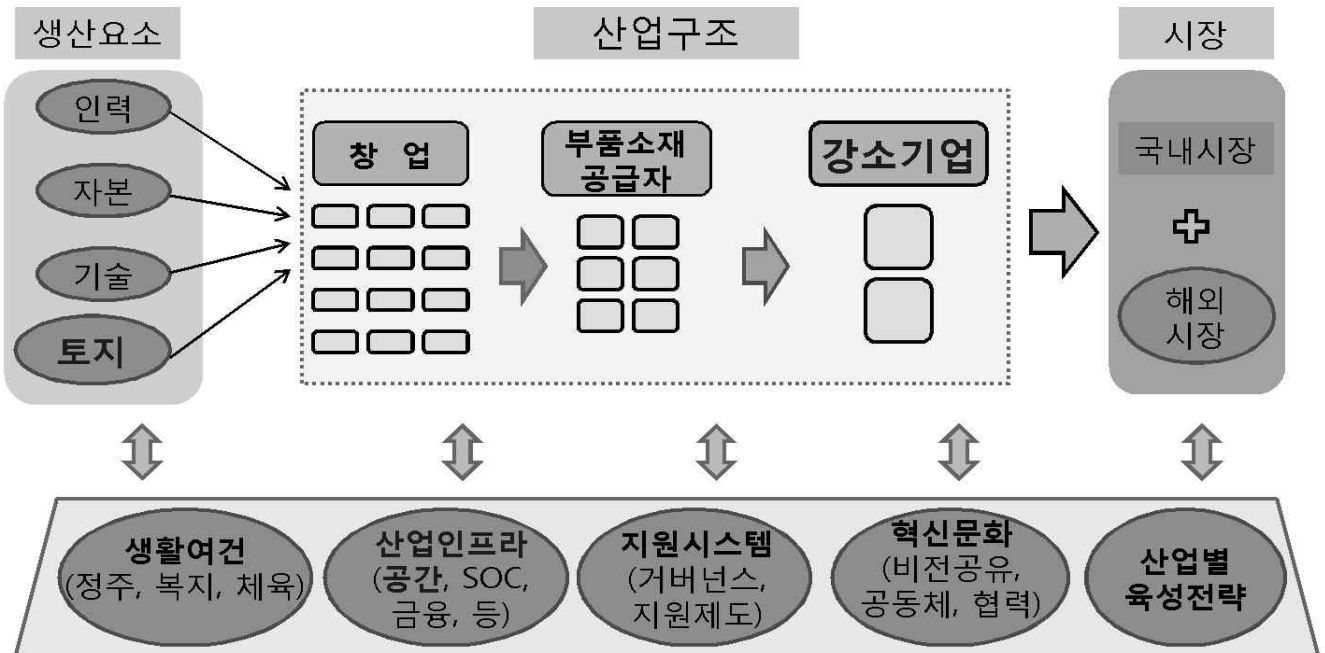
자료: TechCrunch. 2012.9.1,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6개 핵심요인: 전반적인 순위



자료: TechCrunch. 2012.9.1,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7. 산업생태계 관점의 산업육성 종합지원 시스템



II.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일반현황

25

1. 우리나라 전국 산업단지 현황(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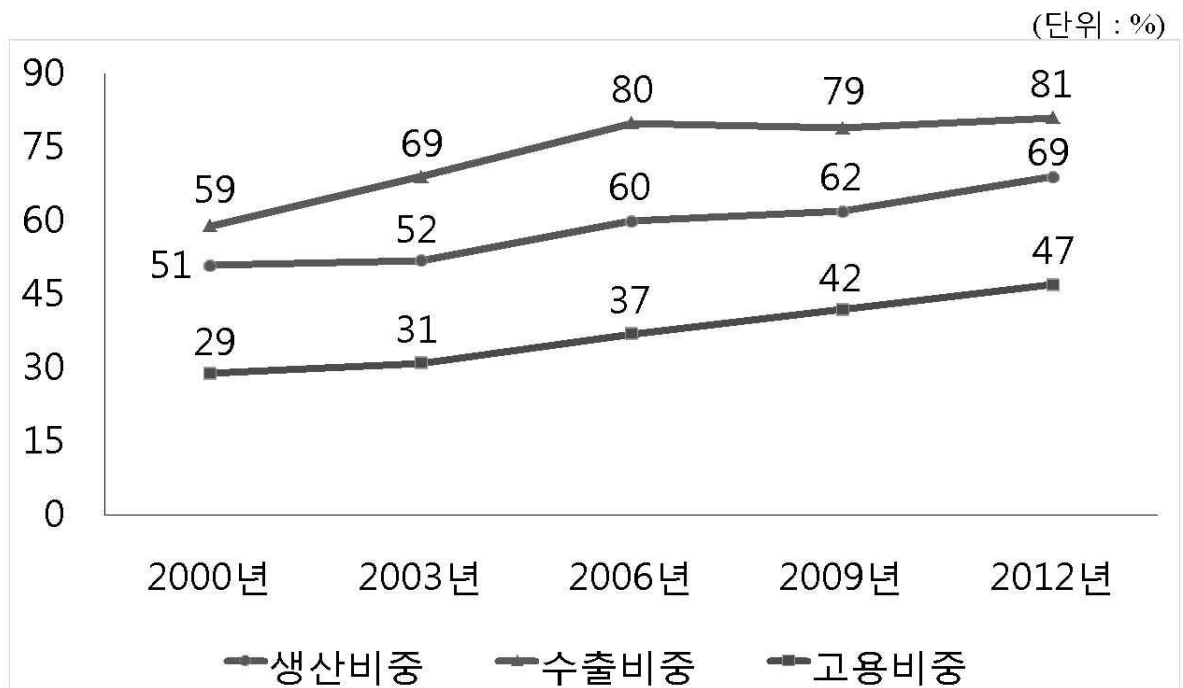
(단위 : 개, 천㎡, 개사, 십억원, 백만 달러, 천명)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산업용지 면적	입주 업체수	생산	수출	고용
국가	41	804,506	276,638	49,545	674,109	268,876	1,155
일반	528	507,148	298,425	24,331	308,865	148,932	706
도시첨단	11	2,272	1,106	224	190	3	2
농공	453	72,828	55,246	6,447	49,163	11,843	148
계	1,033	1,386,754	631,415	80,547	1,032,327	429,655	2,011

주: 생산 및 수출액은 2013년 누계액, 업체수와 고용은 연말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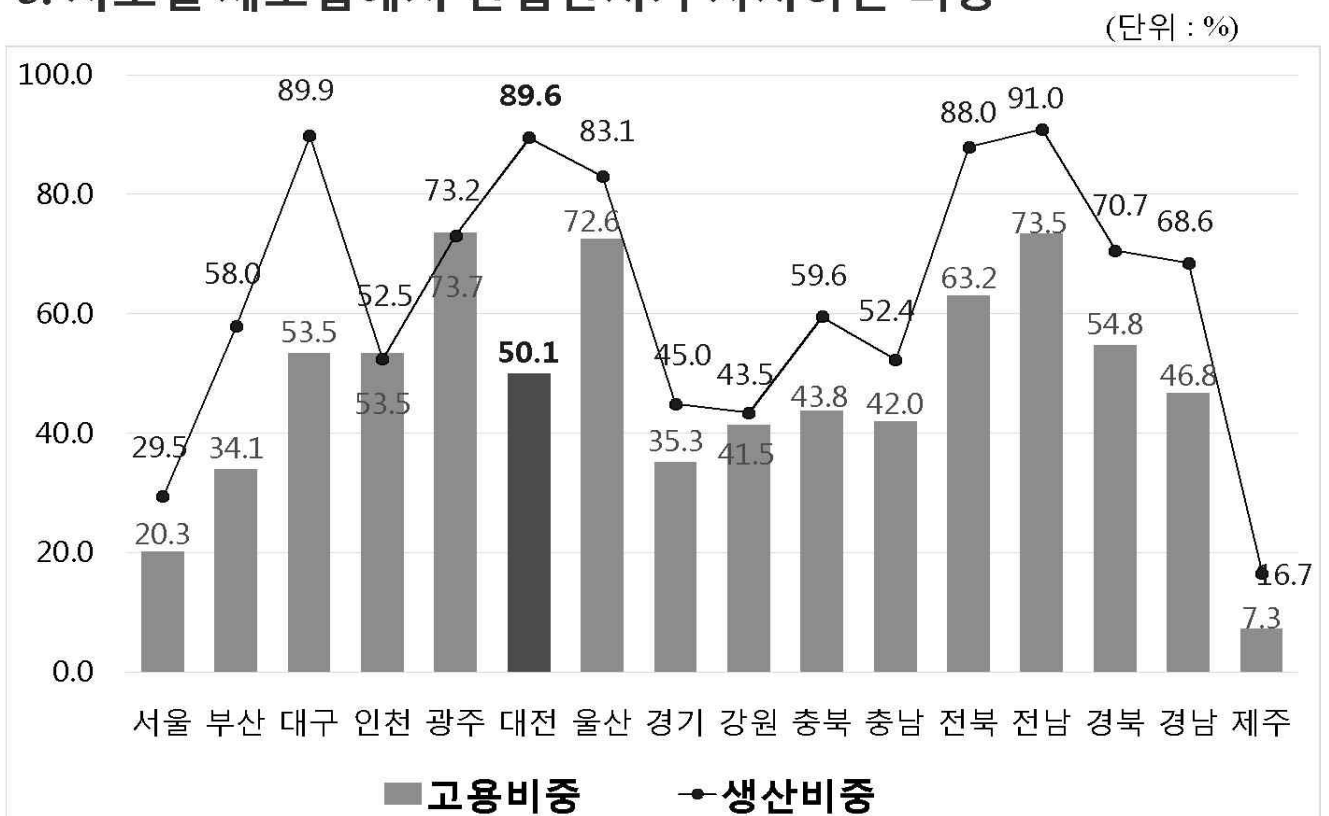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4.

2.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4.

3. 시도별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4.

4. 시도별 제조업 비중, 1인당 GRDP, 주요 산업단지

(단위 : %, 만원)

시도	제조업 비중	1인당 GRDP	주요 국가산업단지
서울	4.4	2,893 (5)	서울디지털
부산	18.9	1,845(14)	명지녹산
대구	22.6	1,566(16)	대구국가(조성중)
인천	30.0	2,171 (8)	남동
광주	27.9	1,769(15)	광주첨단, 빛그린(미조성)
대전	18.2	1,862(13)	대덕연구개발특구
울산	73.2	6,330 (1)	울산미포, 온산
경기	36.1	2,102(11)	반월시화
강원	11.5	2,087(12)	북평국가
충북	42.2	2,547 (7)	오송
충남	57.1	4,179 (2)	아산
전북	29.3	2,127(10)	군산
전남	44.0	3,653 (3)	여수, 대불, 광양
경북	50.4	3,148 (4)	구미, 포항
경남	45.0	2,720 (6)	창원
제주	4.0	2,144 (9)	제주첨단

주 1 : 제조업 비중은 GRDP 기준임(2013년 기준)

주 2 : () 시도별 순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4.

5. 시도별 산업용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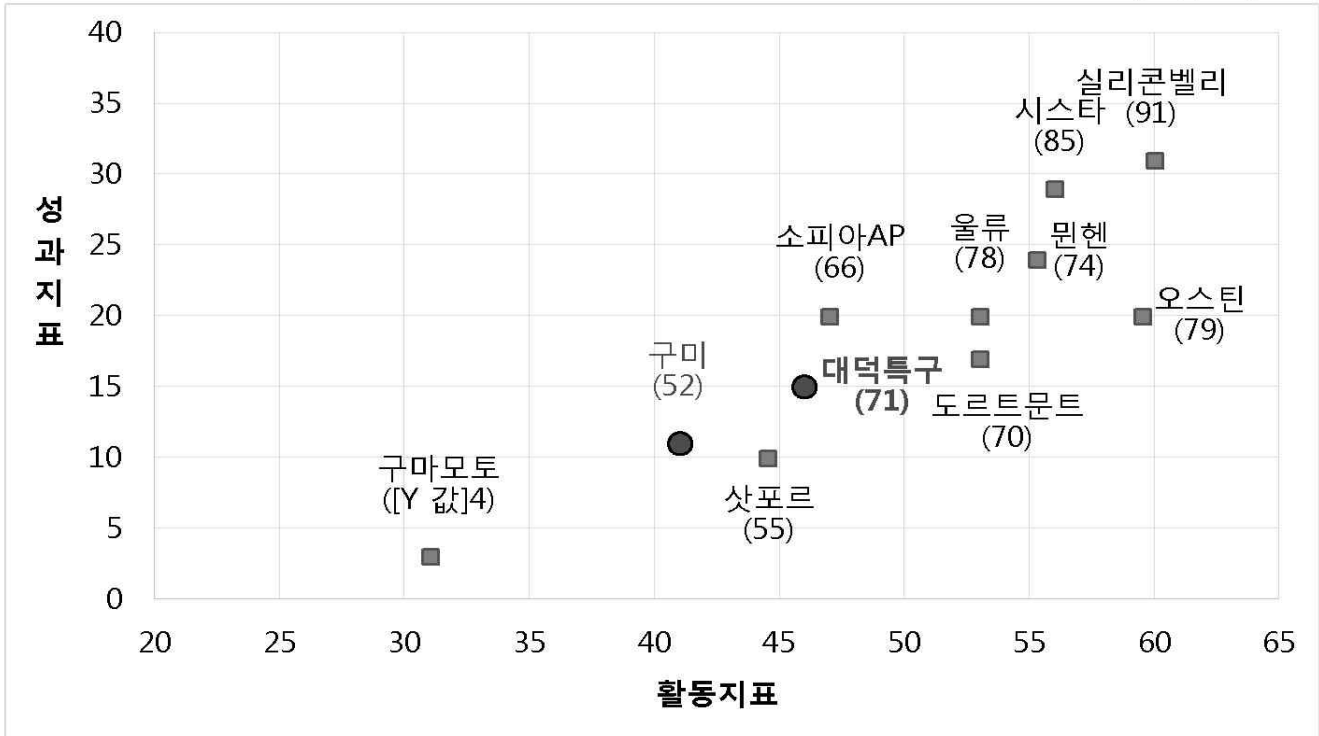
(단위 : %, 만원)

구분	면적 및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1982	1990	2000	2003	'82-'90	'90-'00	'00-'03	'82-'03
전국	241.4 (100.0)	347.7 (100.0)	485.3 (100.0)	529.2 (100.0)	4.7	3.4	2.9	3.8
수도권	79.1 (32.7)	105.0 (30.2)	115.8 (23.9)	131.7 (24.9)	3.6	1.0	4.4	2.5
영남권	109.2 (45.3)	144.2 (41.5)	188.0 (38.7)	205.8 (38.8)	3.5	2.7	3.1	3.1
호남권	24.6 (10.2)	49.9 (14.3)	81.3 (16.8)	82.5 (15.5)	9.2	5.0	0.5	5.9
충청권	21.3 (8.8)	34.5 (9.9)	86.0 (17.7)	93.0 (17.5)	6.2	9.6	2.6	7.3
강원 제주	7.2 (3.0)	14.1 (4.1)	14.1 (2.9)	16.1 (3.0)	8.8	0.0	4.6	3.9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4.

6. 국내외 클러스터 경쟁력 비교

(단위 : %)



주 1: 활동지표는 핵심대학의 존재, 산학연 연계, 핵심기업 유무 등이며, 성과지표는 spin-off 효과, 해외 지 향성, 대기업과의 연계 등을 의미함

2 : ()안의 숫자는 성과지표와 활동지표를 더한 값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4.

III. 혁신클러스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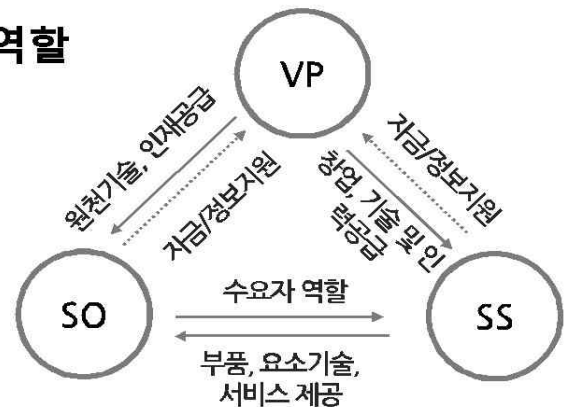
1. 기본구조

(1) 혁신클러스터의 기본 개념

- 혁신클러스터는 구성요소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창출, 활용, 확산시킴으로써 혁신과 쇠퇴를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의미
-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을 위한 구성요소들의 개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상호작용 역시 매우 중요
- 효과적인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강력한 협력체계를 견인하는 전문조직 존재, 양질의 특화된 생산요소 등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이 핵심

(2) 혁신클러스터 기능별 구성요소 및 역할

- **VP** (Vision Provider : 비전 제시자): 산업발전 방향 제시 및 상업화를 위한 원천기술 제공
- **SO** (System Organizer : 시스템 통합자): 요소기술, 부품, 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기술상업화를 통해 비전을 구체화
- **SS** (Specialized Suppliers : 전문요소 공급자): 상품화에 필요한 전문요소기술, 부품, 서비스 등을 공급



2. 혁신클러스터 유형 및 사례

(1) 혁신클러스터 유형

- 혁신클러스터의 유형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가장 발달된 유형은 실리콘밸리형임.
- 실리콘밸리형은 VP, SO, SS의 구성요소들이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음.
- 실리콘밸리형은 혁신클러스터 생태계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음. 즉,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이 공통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가 가장 잘 발달되었으며, 활발한 산학연 협력체계는 시스템통합자인 하이테크 대기업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벤처기업 및 전문서비스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유형	VP (비전제시자)	SO (시스템통합자)	SS (전문공급자)
대학·연구소 주도형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	벤처기업 기자재 업체
대기업 주도형	조립 대기업	조립 대기업	중소부품업체
지역특화형	업종별 협회 지방정부	공동브랜드 업체 완성품 업체	전문 중소기업
혁신주도형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	하이테크 대기업	벤처기업 전문서비스 업체

[2] 혁신클러스터의 지배구조와 혁신의 범위 사례

지배구조

기업혁신의 범위	← 지배구조 →			
	자생적 (Grassroots)	네트워크 (Network)	중앙집권적 (Dirigiste)	
	Localist (현지 중심)	Tuscany (Italy) →	Tampere (Finland) Denmark	← Slovenia Tohoku
	Interactive (상호작용)	Catalonia (Italy) ↓	Baden-Wurttemberg (Germany) ↙	← 경기TP
Globalized (세계적)	California (실리콘밸리) →	North-Rhine Westphalia (Germany) Wales(England) →	Singap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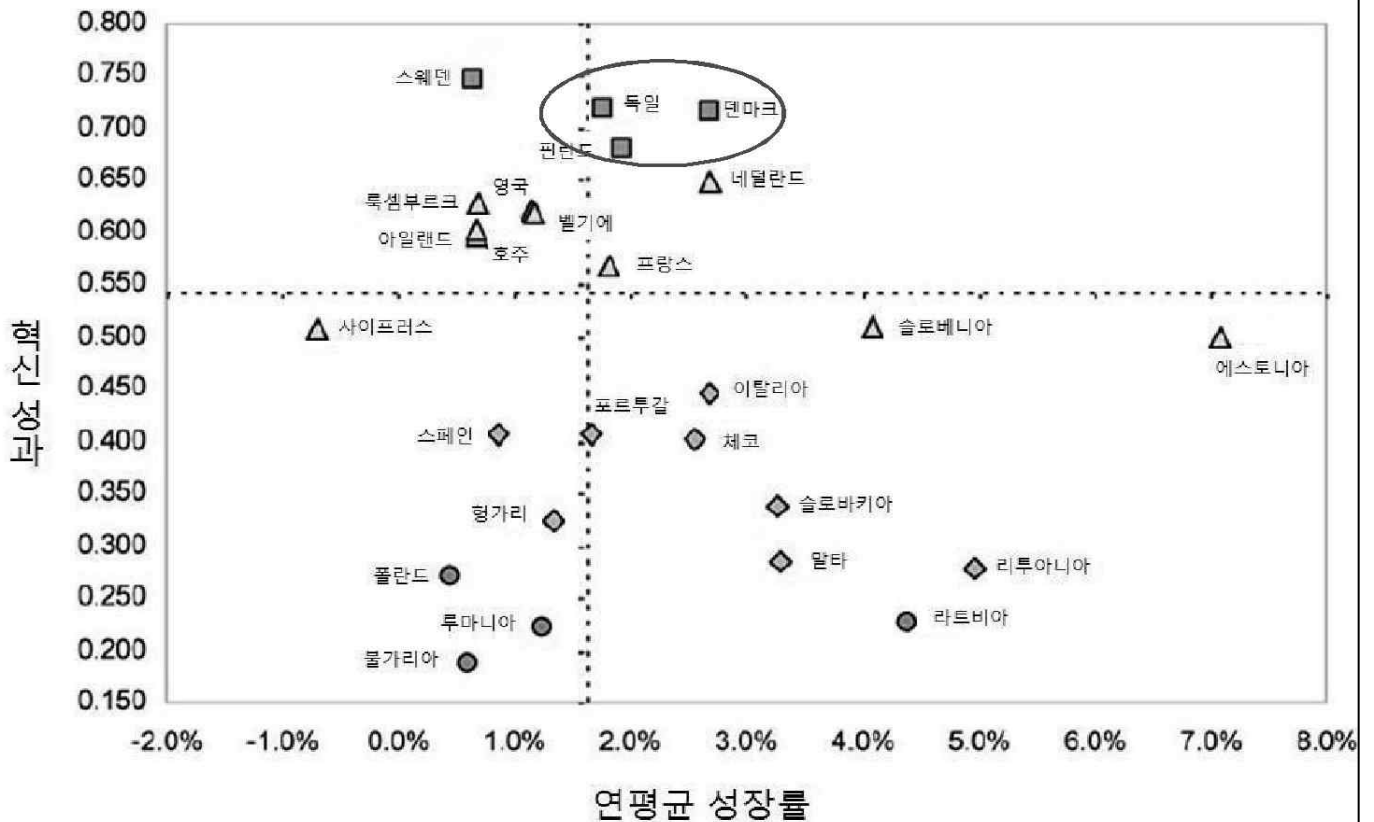
Cooke et al(2010), Regional Innovation System-the role of governance in a globalized world

3. 혁신클러스터 구성요소의 핵심기능 및 역할

구성요소		핵심기능	핵심 역할 내용
비전 제시자 (VP)	대학	인프라	- 연구개발시설, 기술사업화센터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 활성화 등
		R&D	- 기초·응용기술 개발, - 산학연 연계협력 R&D 수행
		인력양성	-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공급, - 중급 기술인력 양성·공급
	연구소, 대기업	인프라	- 연구개발시설, 기술사업화센터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벤처창업 확대 등
		R&D	- 응용기술 개발 역량 강화, - 산학연 연계협력 R&D 수행
		인력양성	- 대학과 연계한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통합자 (SO)	대기업	R&D	- 혁신클러스터 비전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과 산학연 R&D 및 기술사업화
		사업	-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 창업 멘토링 등 사업 수행 - 대기업으로부터 Spinoff를 통한 창업활성화
		인력양성	-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전문요소 공급자 (SS)	벤처기업	R&D	- 대기업에게 제공할 전문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협력 R&D 수행, 기술사업화 등
		사업	-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 창업 멘토링 등 사업 수행 -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 Spinoff를 통한 창업활성화
	서비스	전문생산서비스	- 법률, 회계, 등 전문생산 서비스 제공
	기업지원 기관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크	- 마케팅,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수행 - 구성요소들간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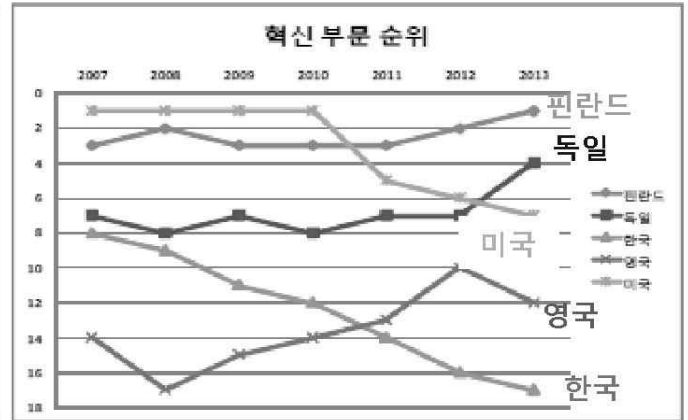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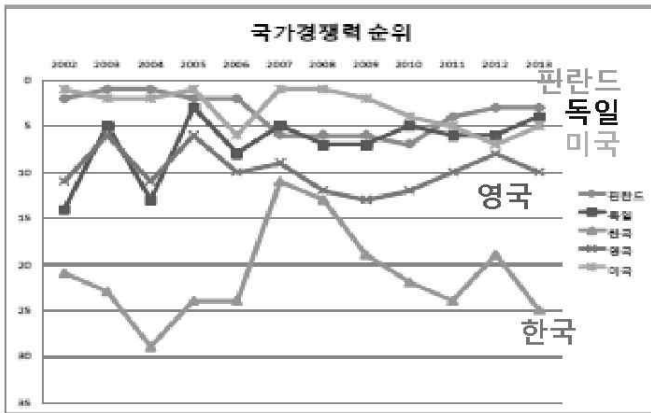
IV. 혁신클러스터 해외사례

1. EU 각국의 혁신과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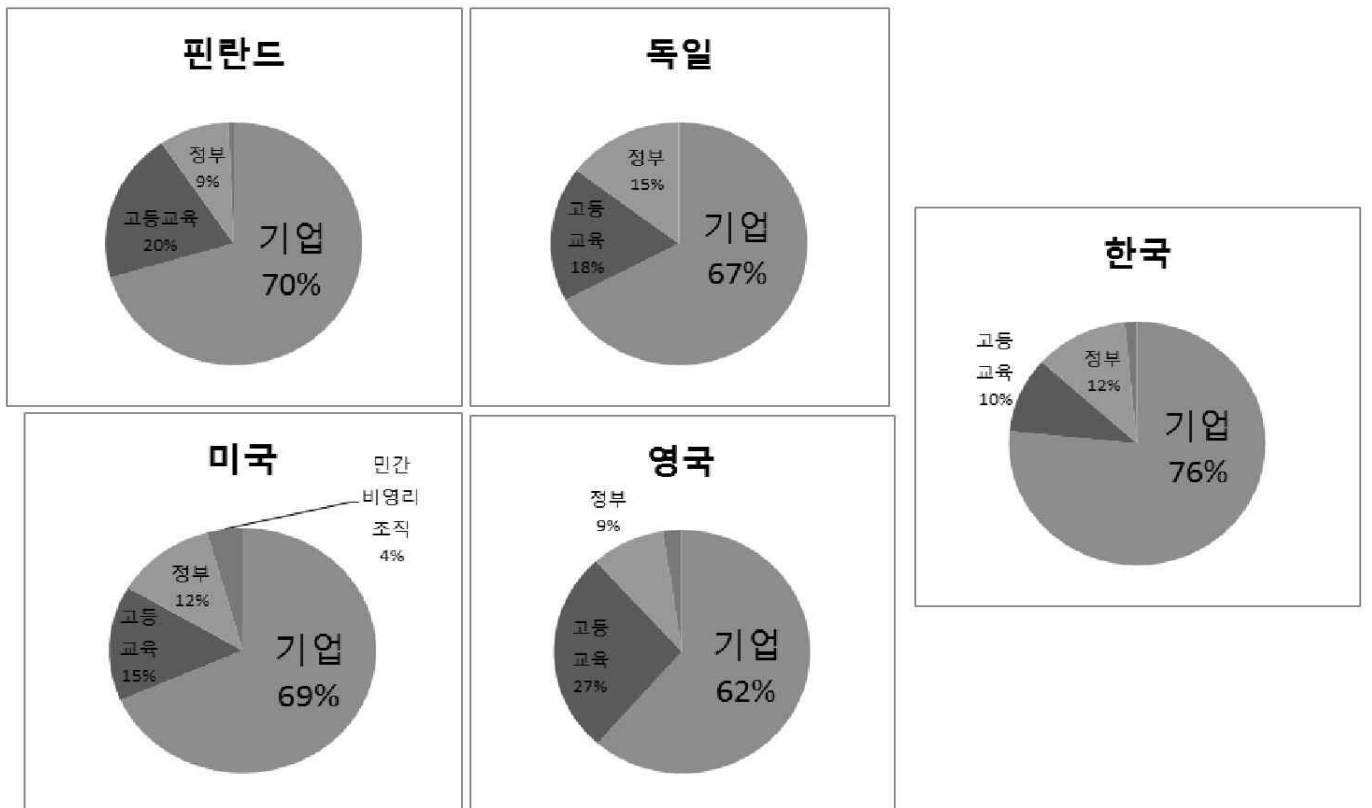
자료: 홍성주 외(2013),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추세 분석

2. 국가경쟁력과 혁신 순위



자료: 홍성주 외(2013),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추세 분석

3. 총 연구개발비 주체별 활용 비중(2011년 기준)



4. 혁신클러스터 사례

(1) 혁신클러스터 사례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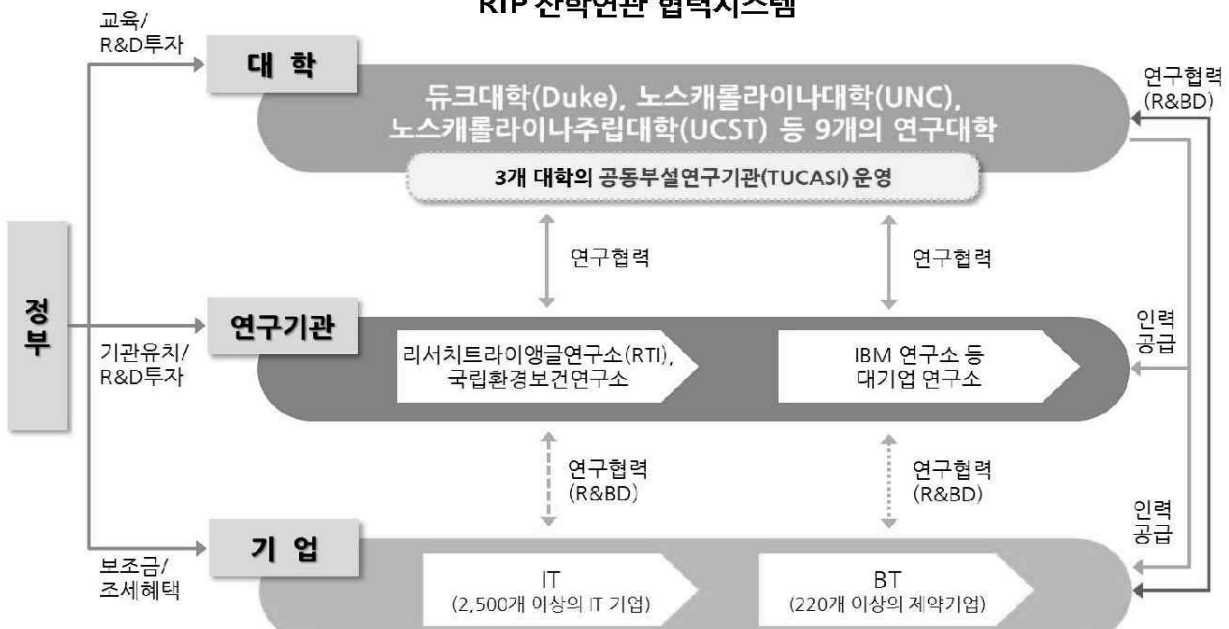
- 행복도시 혁신클러스터가 벤치마킹 하려는 RTP, 샌디에고, 드레스덴 혁신클러스터는 현재 실리콘 벨리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음.
- 3개의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은,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협력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 및 우수한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
- 또한, 3개의 혁신클러스터가 VP, SO, SS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샌디에고의 UCSD CONNECT처럼 네트워킹을 촉진시키는 기업지원서비스 기관의 역할이 중요

사례	VP (비전제시자)	SO (시스템통합자)	SS (전문공급자)
RTP	대학: UNC, NCST, Duke 연구소: RTI, NIEHS, IBM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 50여 개의 글로벌 기업	글로벌기업: GlaxoSmithKline, Baye, Biogen 등 50여 개의 글로벌 기업	벤처기업: 서비스업체: CRO, 임상실험회사등 세계 4위규모
샌디에고	대학: UCSD, USD, SDSU 연구소: Scripps, Salk 등의 세계적인 연구 기관 하이테크 대기업: 세계적인 바이오 대기업	글로벌기업: Pfizer, Lilly, Johnson and Johnson, Novartis 등 글로벌 기업	벤처기업: 700여 개의 벤처기업 서비스업체: UCSD CONNECT, 20여 개의 벤처캐피탈
드레스덴	대학: 드레스덴 공대 연구소: 막스프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라이프니츠연구소 등 하이테크 대기업: 세계적인 ICT 및 NT분야의 대기업	글로벌기업: 지멘스, 인피니온, 모토롤라,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	벤처기업: ICT 벤처기업(1200개) 및 NT 벤처기업(80개) 기업지원기관: 바이오이노베이션센터

(2) Research Triangle Park(RTP)

- 노스캐롤라이나대학(체프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래리), 듀크대학(더램)을 묶는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활발한 산학연관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한 대학중심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임
- 실리콘벨리 유형으로서 구성요소 별 효과적인 역할 수행
: VP(대학, 연구소, 글로벌 대기업), SO(50여 개의 글로벌 대기업), SS(CRO와 임상실험회사)
- 비영리법인 네트워킹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상호작용: NCBC, NCBCIO 등
-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공유, 뛰어난 정주환경 및 우수한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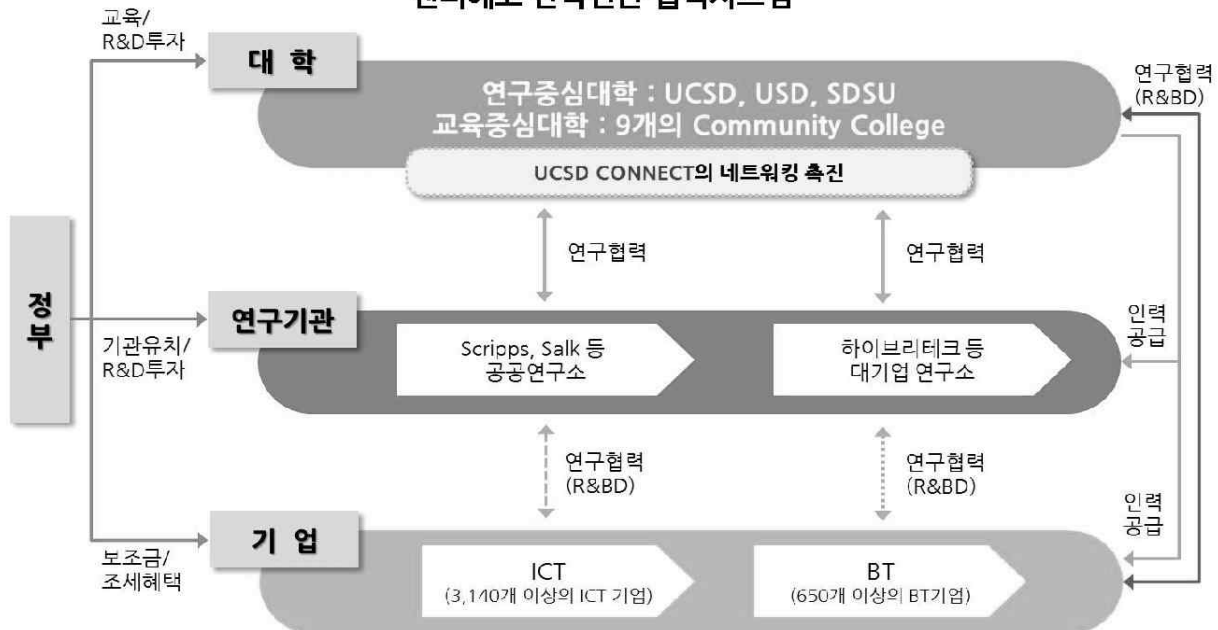
RTP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2) 샌디에고

- UCSD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성공한 혁신클러스터로서 UCSD CONNECT 등 네트워킹 촉진기관의 대표적인 성공모형
- 실리콘밸리 유형으로서 구성요소 별 효과적인 역할 수행: VP(대학, 연구소, 글로벌 대기업), SO(글로벌 대기업), SS(벤처기업, 벤처캐피탈, UCSD CONNECT 등 네트워킹 촉진기관)
- 비영리법인 네트워킹 전문기관을 통한 상호작용: UCSD CONNECT, BICOM, SANDAG, SDRECD 등
-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공유, 뛰어난 정주환경 및 우수한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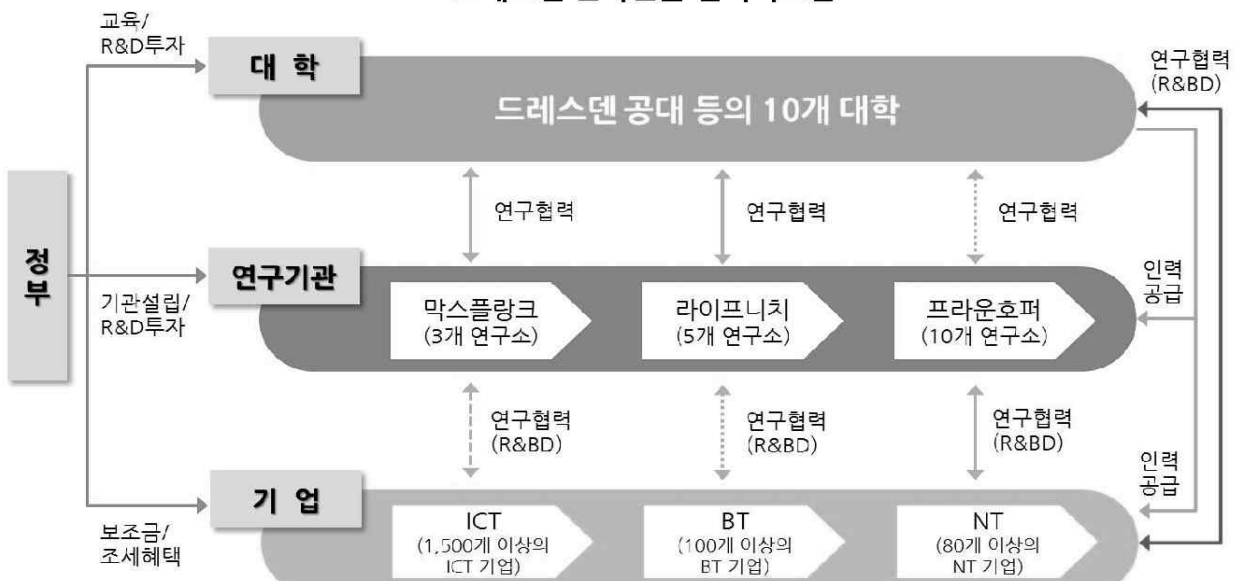
샌디에고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3) 드레스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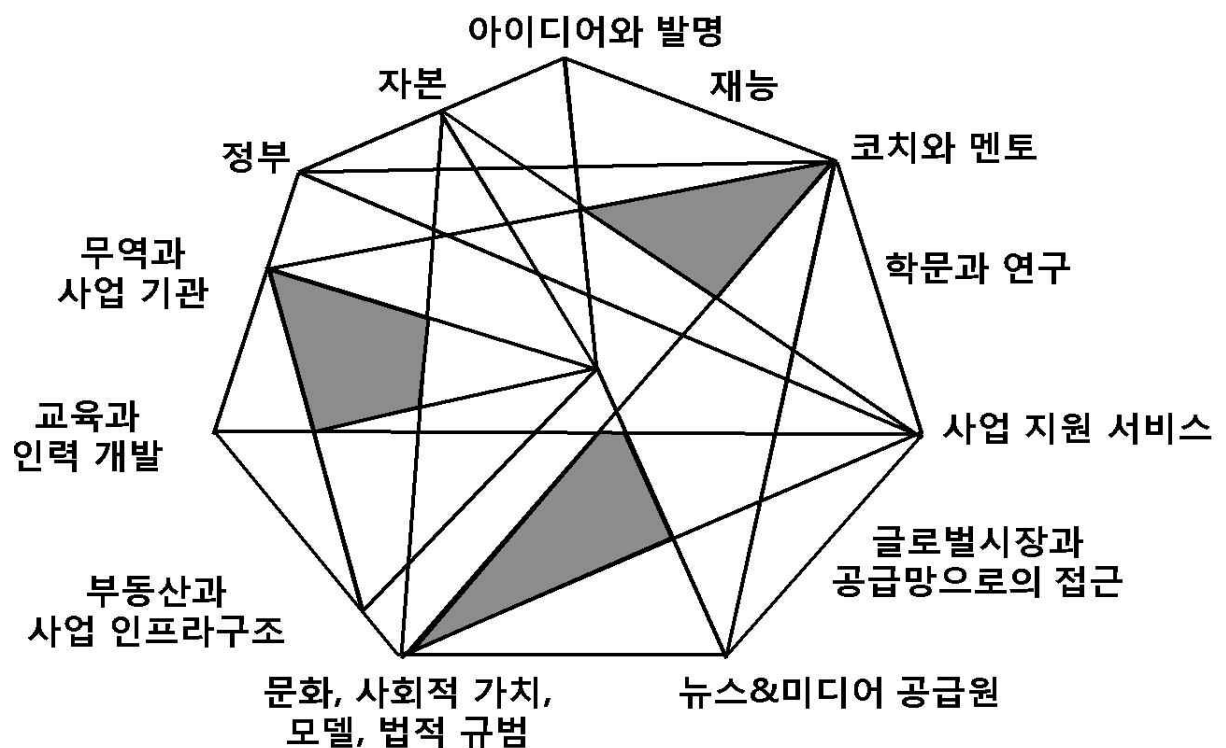
- 낙후된 전통도시에서, 독일 통일 후 정부의 대대적인 연구기관 유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대표적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거듭
- 혁신클러스터 구성요소 별 효과적인 역할 수행 : VP(대학, 연구소, 대기업), SO(글로벌 대기업), SS(벤처기업 및 바이오 이노베이션센터)
- 활발한 드레스덴 산학연 협력 시스템: 기초-응용-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시스템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드레스덴 혁신클러스터의 가장 큰 성공요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인프라구축 및 정주여건부터 세제혜택 등 SW정책까지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

드레스덴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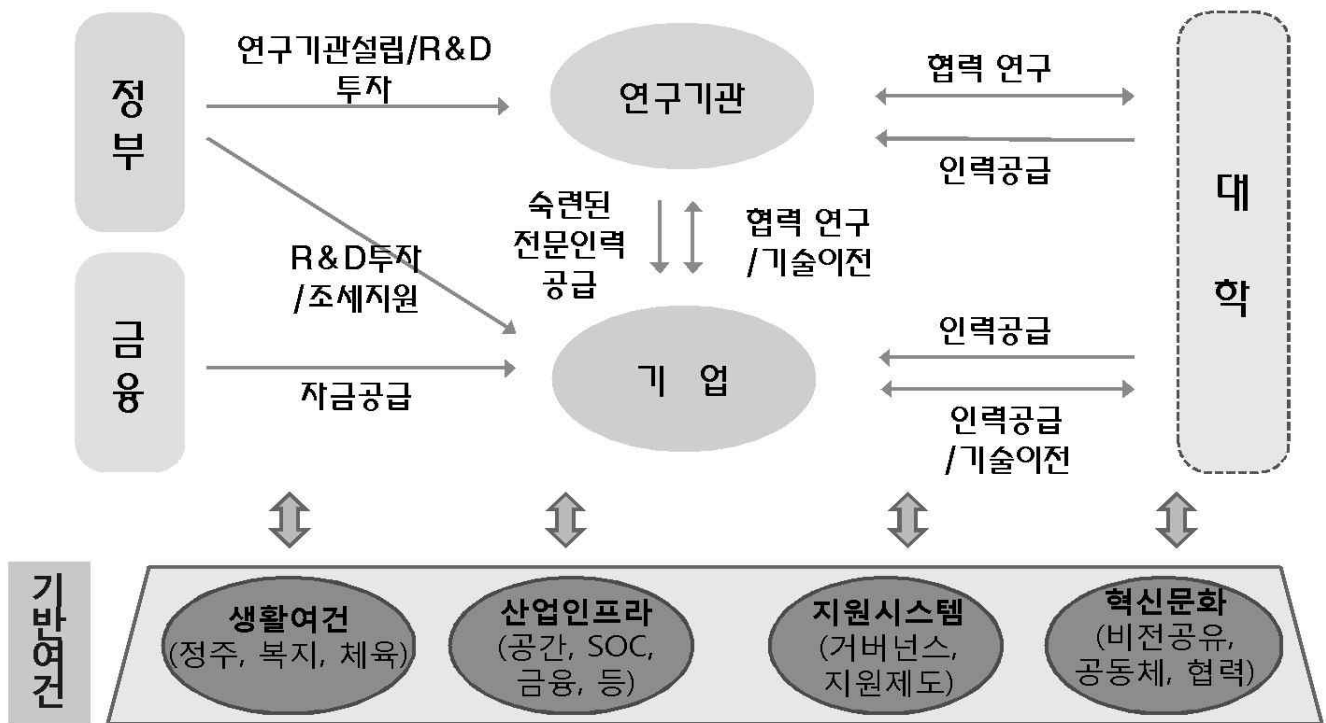
V. 결 론

1. 열대우림의 산업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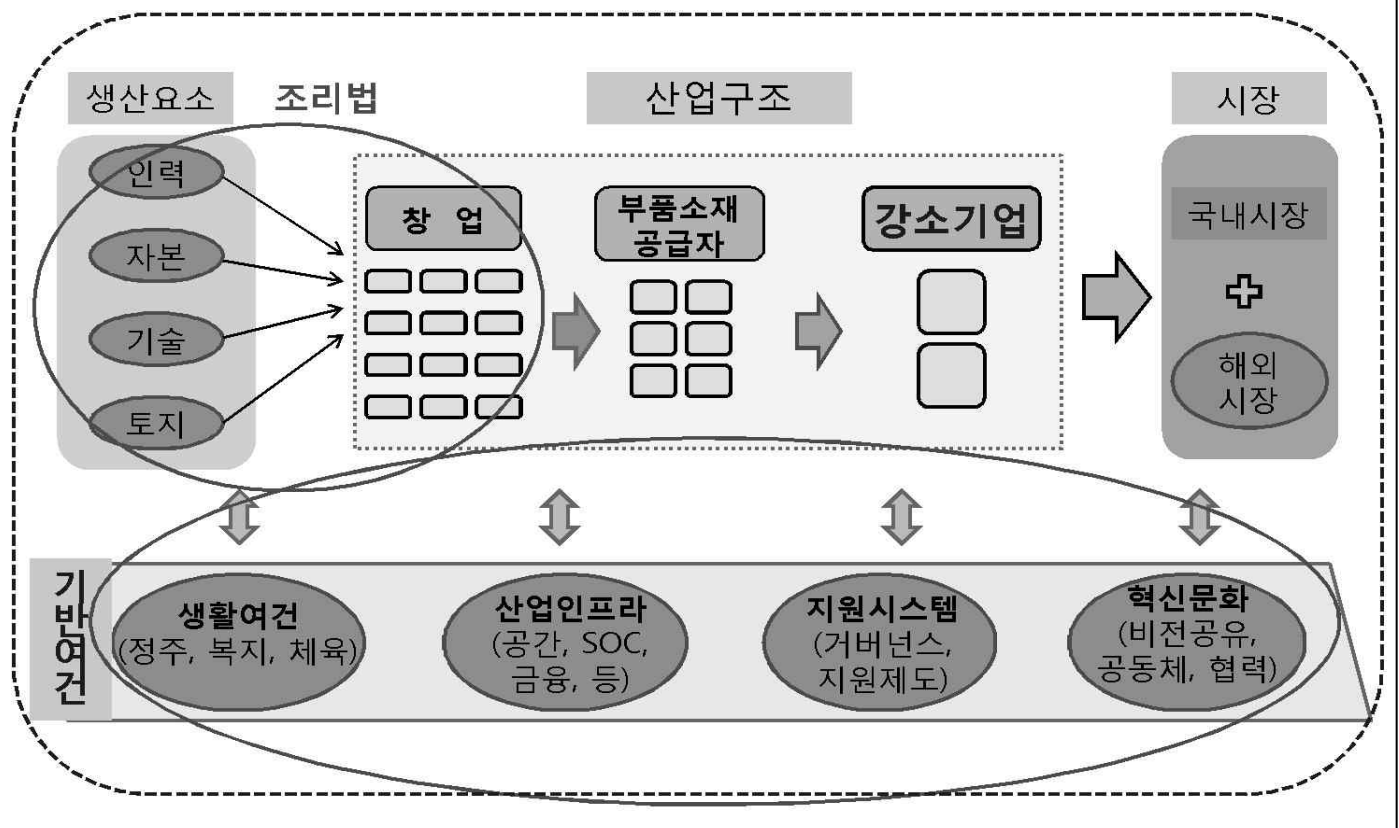


자료: 권중현, 차두원(2013), 정글의법칙: 혁신의 열대우림, 실리콘밸리 7가지 성공 비밀

2. 생태계 차원의 산학연관 혁신클러스터 기본구조



3. 산업생태계 관점의 산업육성 종합지원 시스템



최근의 산업입지 정책 동향과 대전의 대응 과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박사 **장 철 순**

최근의 산업입지 정책 동향과 대전의 산업단지 개발전략

2014. 10. 13

국토연구원 장철순

목 차

- I. 산업입지 정책 동향
- II. 국내외 첨단산업단지 개발사례와 시사점
- III. 대전의 산업단지 개발현황과 개발전략

I. 산업입지 정책 동향

1. 최근의 산업입지 정책 동향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1.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동향

◆ 최근의 산업단지 4대 키워드

1. 노후산단 활성화

- 기존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 확대

2. 도시첨단단지 공급 확대

- 창조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입지 특성을 감안한 도심지역에 대한 입지공급 확대

3. 산업단지 복합화

- 제조업·서비스업, 제조업·연구개발업 등 산업간 통합과 제조·업무·주거 등 기능간 클러스터 필요성 증대에 따라 산업단지 복합화 증대

4. 민간의 참여 활성화

- 산업용지의 지속적인 공급과 맞춤형 자가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1.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용도지역 및 용적을 상향

-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용도지역을 기존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가능
- 용적율(400~500%) 최대 적용가능

녹지율 하향 조정

- 산단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가능
- 녹지율 추가 완화(5~13% → 2.5~6.5%)는 수용·사용·환지방식의 사업지구에 한정하여 적용할 예정임

산업용지 비율 하향

- 산업용지 최소확보비율을 리모델링 대상 면적의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

5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1.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주변지역 확대

-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거·산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지구 주변지역 포함 면적을 재생사업 산업단지 면적의 30%에서 50%로 확대

민간조합 구성요건 완화

- 재생사업조합 설립요건을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2/3이상에서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로 완화

재생사업 시범지구 확대

- 1차 재생사업 시범단지(대전 등 4개, 2009), 2차 시범단지(준천 후평 등 4개, 2014) 지정 지원
- 국토부와 산업부의 협업을 통한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 2017년까지 25개 산업단지 지정 지원

6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1.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1차 재생사업지구 추진 현황					
사업지구	사업규모	사업기간	전체사업비 (기반시설비)	비고	
대전1-2산단	A=2,306천㎡	2010~2020	193,280백만원 (96,640백만원)	. 지구지정 완료 . 재생계획 변경 중	
대구 도심공단	대구3공단	A=1,679천㎡	2009 ~ 2021	294,655백만원 (147,328백만원)	. 지구지정 완료
	서대구공단	A=2,417천㎡	2009 ~ 2021	176,956백만원 (88,478백만원)	. 지구지정 완료
전주1산단	A=1,808천㎡	2010~2015	115,400백만원 (57,700백만원)	. 지구지정 완료 . 재생사업 시행 중	
부산 사상공단	A=1,228천㎡	2013 ~ 2020	271,281백만원 (135,641백만원)	. 재생계획수립 중 . 14下 지구지정 예정	

7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1.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2차 재생사업지구 지정 현황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국토교통부)	협약사업지구 (재생사업 + 구조고도화사업)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부)
준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	구미 1 국가산업단지 안산 반월 국가산업단지	대불 국가산업단지 창원 국가산업단지

대전 1, 2 산업단지 추진계획

- 1단계(2013~2015) : 기반시설 설치(도로 25개소, 공원 일부)
- 2단계(2016~2018) : 기반시설 설치(공원, 녹지, 주차장), 단지 내 정비
- 3단계(2019~2020) : 주변지역 정비

8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2. 도시첨단 산업단지 공급

확대 지정 예정

-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린벨트해제지역,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 등에 지정 확대
- 2014년 인천, 대구, 광주 등 3개 도시첨단단지 지정
- 2015년 6개소 지정 예정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업종 확대

-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만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

녹지율 하향 및 용적율 상향

- 녹지율을 일반산업단지의 절반 수준(5~13% → 2.5~6.5%)으로 완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용적율 법상 최대 한도로 상향(공업지역 200~350% → 준공업·준주거 40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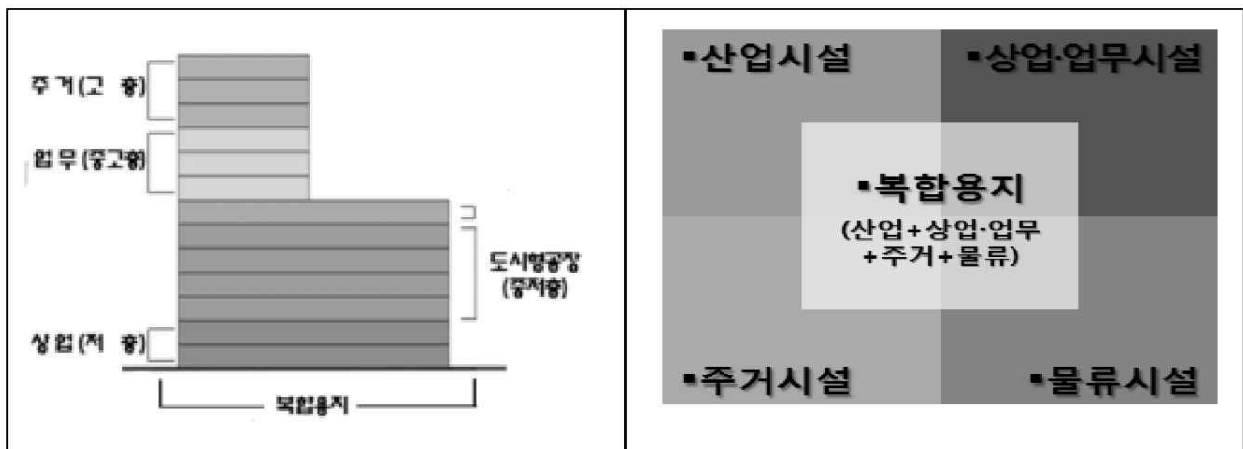
9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3. 산업단지 복합화

복합용지제도 도입

- 복합용지 : 산업시설(공장)과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지역



10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3. 산업단지 복합화

복합용지제도 도입

-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면적을 현재 보다 낮출 수 있음
 - 산업시설비율 : 일반산단 50% → 37.5%, 도시첨단 40% → 30%로 축소
-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국제법상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을 상향이 가능
 - 일반공업지역 : 용적율(200~350%), 허용건축물(공장) → 준공업·준주거 : 용적율(400~500%), 허용건축물(공장,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정산하고 주점방식으로 공급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허용

-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 허용

11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3. 산업단지 복합화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허용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전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

12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3. 산업단지 복합화

네거티브 업종계획

- 현재는 입주업종이 개발계획에 명기되어 업종 변경 시마다 개발계획 변경 필요
-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업종이외에는 모두 허용(네거티브 방식 도입)
- 산단 내 업종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업단지 업종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허용

[사례]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된 용지의 경우, 기반시설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계획변경 없이 즉시 입주 가능

< 현 행 >

신규
산단 개발계획에 업종 표기

업종변경

개발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생략

⇒

< 개 선 >

신규
산단 개발계획 업종미표기 (네거티브)

업종변경

자유 * 단지계획 변경 불필요

13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4. 민간참여 활성화

개발대행제도 확대

- 산업단지 개발 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
 -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전 부분을 대행할 수 있게 됨
 -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음

적정이윤 보장

-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됨.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
 -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

14

2.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 4. 민간참여 활성화

수익계약 대상 확대

-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및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익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함
 - 분양촉진, 특정산업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Ⅱ. 국내외 첨단산업단지 개발 사례와 시사점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2. 국내 첨단단지 개발사례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 바로셀로나 과학단지(PCB)(스페인)

개요

- 위치 : 바로셀로나 시 북서부
- 사업기간 : 1991년 ~ 1997년
- 사업규모 : 25,400㎡(약 8천평), 6개 건물로 구성된 빌딩형 도시첨단단지
- 시행자 : 대학이 보유한 지식을 연구기관 및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 과학단지 조성
- 주력산업 : 생의학 관련 연구시설 등이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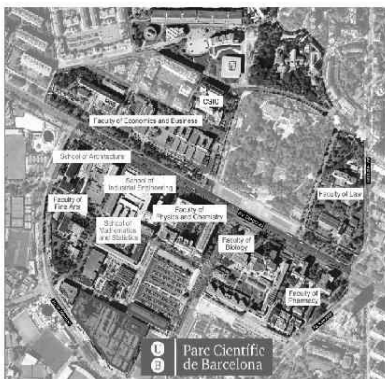
특징

- 대학이 보유한 지식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
 - 기업은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실험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
 - 대학이 설립한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필요한 특허 및 기술 등을 이전
- 생의학 특화단지로 연구 및 교육기능의 전문성 확보
- 대학이 조성하고 지방정부(주 및 시정부)가 관련 연구기관 등을 입주시켜 초기 활성화에 기여
 - 까탈루냐 주정부 및 바로셀로나 시정부는 생의학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 입주시킴
 - 스페인 정부의 지원과 EU정책자금인 ERDF(지역개발자기금)을 우선 투입
 - 70여개 기업, 2,200여명 근무중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와 대학 협력형의 도시첨단단지로 성장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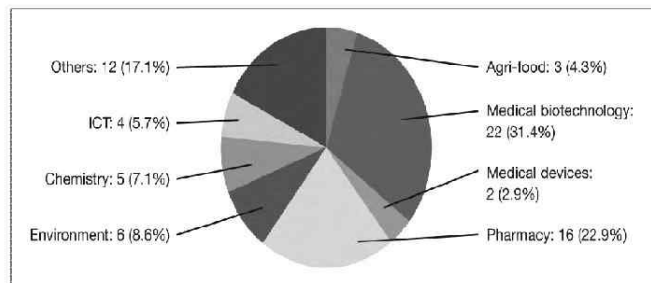
◆ 바로셀로나 과학단지(PCB)(스페인)



까탈루냐 포리텍대학 연구소



연구동



임주업종 현황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 바이오시텍(Biocitech)(프랑스)

개요

- 위치 : 파리 인접도시인 호망빌에 입지
- 사업기간 : 2003년(민간이 조성)
- 사업규모 : 8만㎡(약 2.4만평), 향후 4만㎡ 추가조성 예정
- 시행자 : 민간
- 관리운영 : Dalceo(단지 시설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 담당)

특징

- 민간이 소규모 빌딩형으로 개발한 도시첨단단지
 - 파리 근교지역으로 지하철이 연결되어 파리와 접근성이 매우 좋음
 - 생명과학관련 25개 기업이 입주
- 전문관리기관이 시설물 관리와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실험에 필요한 화학물질 관리업무도 관리기관이 담당
 - 개발업자가 오피스, 연구소 등 물리적 공간을 분양할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도 지원
- 생명과학분야로 특화된 전문단지로서 관련 대학과 정부 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 최고의 단지로 성장

대도시 인접지역에 민간이 조성한 첨단단지로 생명과학분야 전문단지로 성공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 바이오시텍(Biocitech)(프랑스)



바이오시텍 전경



바이오시텍 입주기업



종업원 주택단지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 제노폴(Genopole)(프랑스)

개요

- 위치 : 파리 남쪽 40km 지점
- 사업기간 : 1998년 ~ 2005년
- 사업규모 : 91,500㎡(약 3만평)
- 시행자 : AFM Telethon 주도(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
- 주력업종 : 생의학(Biomedicine) 및 헬스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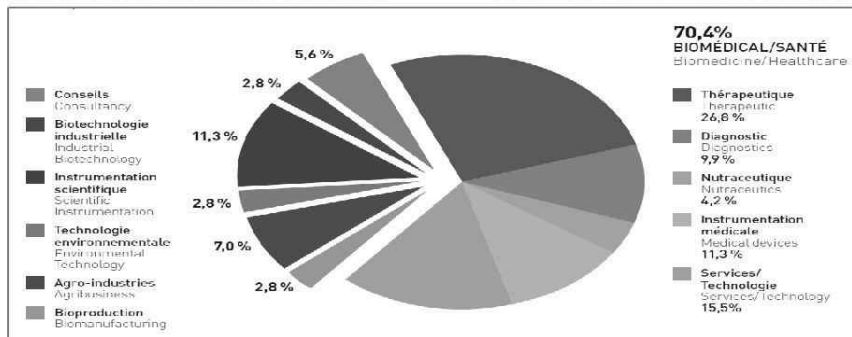
특징

- 과학연구거점 및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
 - 연구소(국립 유전자 연구소, 유전자 생명·바이오정보공학연구소, 게놈연구소), 대학(University of Evry-Val-d'Essonne) 등 초기 입주하여 게놈연구분야의 클러스터로 육성
 - 대학, 연구소, 기업이 협력하여 생명과학분야 인력 및 훈련 강화
 - 단지 내 기업과 연구소간 파트너십 및 협력분위기 조성
 - 71개 기업, 21개 연구소, 2,100여명 고용. 바이오분야 인력이 전체 고용의 50%, 연구소의 37% 차지
- 전문기관을 통한 핵심 업종 유치 및 토지 및 건물 분양·임대
 - SEM제노폴을 설립하여 기업 요구에 맞는 토지 및 건물 공급
 - 지역 상공회의소가 기업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여 단지의 지속적인 활성화 기여

중앙 및 지방정부 연구소, 대학을 입주시켜 초기 분양 활성화를 통해 과학연구단지로 성공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 제노폴(Genopole)(프랑스)



입주기업 현황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 싱가포르 과학단지(싱가폴)

개요

- 프로젝트 계획 규모 : 약 65ha (약 19만 평) 1단계 30ha, 2단계 20ha, 3단계 15ha
- 프로젝트 기간 및 투입자금 : 1982년부터 개발, 임대방식
- 주요 사업
 - 20여의 기업빌딩, 10개 임대용 부지, 1개 지원빌딩 등으로 구성
 - 350여개 기업 입주, 1만 2천명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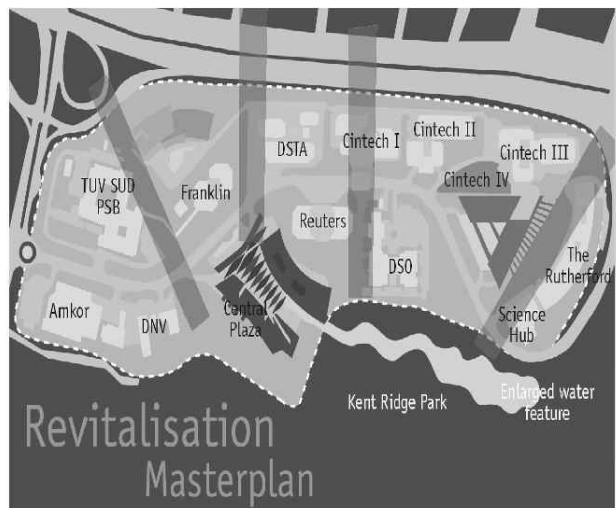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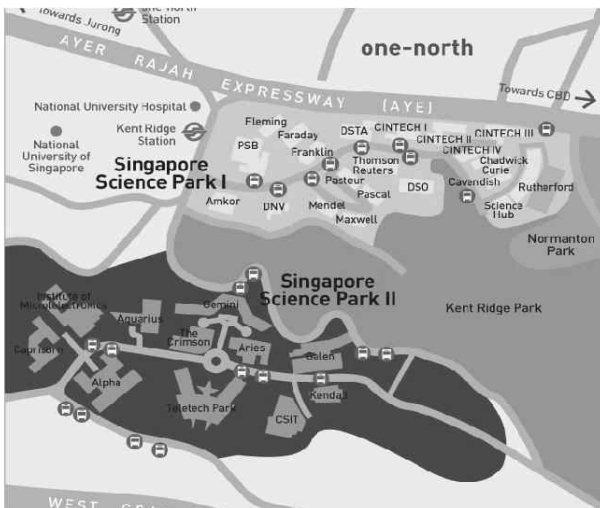
특징

- 임대방식의 연구소 통해 창업 활성화 유도
 - 과학단지 자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대 원칙, 임대는 토지임대, 범용건물임대, 전문건물임대
 - 연구소만 입주 가능, 임대기간은 30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다양한 필지로 공급
- 다양한 지원기능 및 복합적인 창조적인 공간 구성
 - 정보통신분야를 위한 CINETECH(정보기술센터), 기업자문회사, 사업 및 기술중개, 세무 및 회계 상담, 전략계획 수립 지원, 시장조사 등 서비스 지원기능 입주
 - 싱가포르 국립대학 인접, 국가과학위원회 입주 등으로 앵커기능 담당

대학, 국립위원회 등 앵커기능 입지와 입주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입주 공간 제공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클러스터 형성

1. 해외 첨단단지 개발사례

◆ 싱가포르 과학단지(싱가폴)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요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 사업기간 : 2002 ~ 2014년
- 사업규모 : 569,925㎡(17.2만 평)
- 시행자 : 서울시(SH공사 대행)
- 관리운영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특징

- 서울시 미래형산업으로 정보미디어 분야 선정
 - 서울시에서 상암 DMC를 미래형 미디어산업 거점으로 개발
 - 유치산업으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선정
- 주체별 산업지원으로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
 - 서울시 : 산학협력연구센터, 첨단산업센터, 외국인임대주택, IT컴플렉스
 - 정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단지활성화 및 외국인 생활환경을 위한 특화시설 유치
 - 외국인학교 :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서울일본인학교 등 유치
 - 호텔 : 스탠포드호텔 서울 등

유망한 산업선정 및 앵커기업유치 성공, 공공지원시설 유치로 국내 최고의 미디어 집적단지로 부상

25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26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27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판교 테크노밸리

개요

- 위치 :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 사업규모 : 661,915㎡(20만 평)
- 시행자 : 경기도(경기도시공사 대행)
- 관리운영 :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하)

특징

- IT산업 붐으로 산업입지 수요 급증
 - 1990년대 중반이후 IT산업 붐으로 서울벤처밸리(강남,서초) 급속성장
 - 서울벤처밸리의 임대료상승 및 교통혼잡 포화 발생
 - 저렴한 임대료 및 인프라(광통신망) 등 양호한 기업환경 조성으로 성장~성숙기의 벤처기업 이주
- 경기도 산하 관리기관 조성으로 기업 네트워킹 강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하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 구성, 운영기획, 기반시설지원, 기업지원팀 운영
 - 입주 기업간 네트워크, 인력양성, R&D 사업화 등 입주기업 지원
 - 판교테크노밸리 연 2회 포럼운영, 인력공급 현황 조사 및 시범교육 등

강남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 및 저렴하고 쾌적한 기업환경과 입주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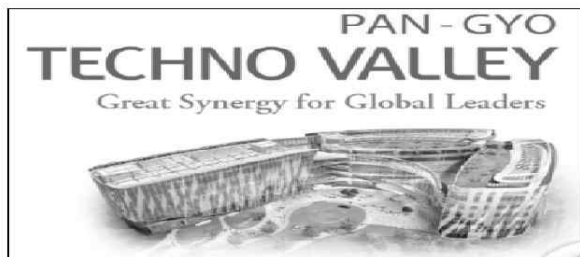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판교 테크노밸리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판교 테크노밸리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산·학·연 R&D센터



공공지원센터

31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마곡 일반산업단지

개요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 사업기간 : 2010년 ~ 2031년
- 사업규모 : 1,112,515㎡(약 33만 평)
- 시행자 : 서울시(SH공사 대행)
- 관리운영 : 서울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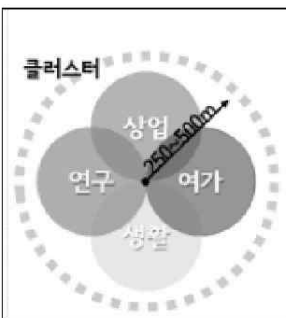
-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 서울시에서 대규모 첨단산업복합단지를 산업단지(준공업지역)로 지정
 - 민간에 조성원가로 토지공급 및 조세감면 혜택 제공
- 서울시의 적극적 선도기업 유치활동
 - 서울시에서 국내에 기업유치를 위해 자금투입(30개월, 약 21.5억)
 - 서울시-SH공사-민간전문가 구성으로 맞춤형 타겟마케팅 진행
 -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으로 법적 토대 마련
 - 국내 5,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서 및 입주의향서 발송
 -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탄력적 용지공급으로 대기업 유치

서울이라는 입지적 강점과 산업단지의 인센티브를 통해 R&D 중심의 앵커기업 및 관련기업 유치 성공

32

2. 국내의 첨단단지 개발사례

◆ 마곡산업단지



33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 산업인프라, 자연환경, 문화시설,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사회인프라 확보 필요
 - 연구자, 기술자, 경영자 등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입지와 환경의 조성 및 가족의 의료, 교육, 쇼핑, 문화생활 등의 매력적인 장소 필요

대학등과의 연계

-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거리에 기업, 대학, 연구소 입지
 - 미국 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 중 하나는 대학, 산업이 집적된 곳에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후 주변 연계 클러스터로 확산시키는 전략 추진

연구친화적인 환경 조성

- 마음 놓고 장기적·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연구환경 조성
 - 교통시설, 정보통신시설, 교육시설, 주거환경 등의 연구기반 및 생활환경 확보가 혁신에 효과적인 반임

34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고급인력 확보

- 최고 수준의 고급과학 연구인력의 유입과 정착 필요
 - 첨단단지의 성공은 기업, 연구소 등의 연구인력과 전문인력을 해당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유무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와의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
 - 기업, 교육기관, 민간·공공 연구기관들이 협력관계를 통해 혁신적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입지 공급
 - 최초의 조성단계부터 중앙정부 주도하에 공공자금이나 관련분야의 간접지원 등 다양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글로벌기업, 대기업 전략적 유치

- 저렴한 부지공급을 위해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유치
- 유치 대상 산업을 선정 후 전략적으로 유치
- 국책연구소, 공공R&D지원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

창업보육, 벤처 지원기능 강화

- 공공, 민간 건물에 창업, 벤처 기업용 임대공간 대량 확보
- 입지기업 경영지원, 정보제공, 기업간교류, 인력수급, 재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
- 중소기업 생태계 조건, 산업구조 변동 유연한 뒷받침을 위해 임대산업공간을 공급

Ⅲ. 대전의 산업단지 현황과 개발전략

1. 대전의 산업단지 현황
2. 산업단지 개발방향
3. 산업단지 개발전략

1. 대전의 산업단지 현황

◆ 산업단지 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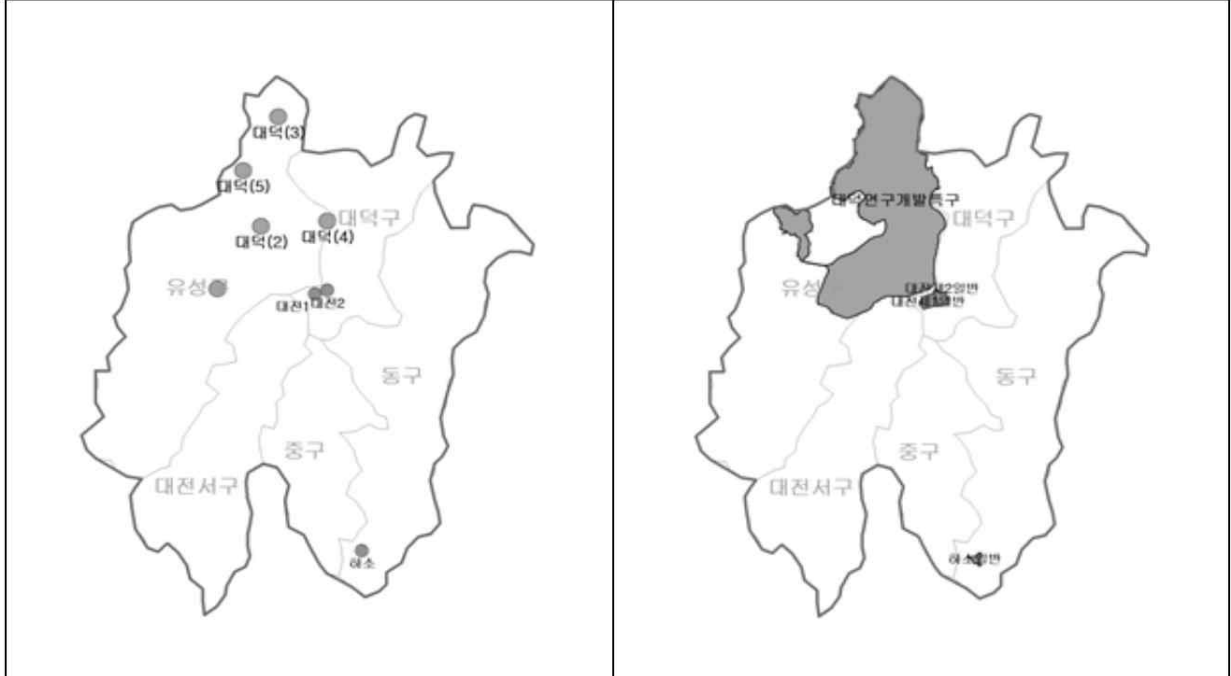
산업단지 현황

- 대전에는 4개, 69.4km²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 내에 지정되었음(특구 내 5개 산단 분포)
-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km ²)	
	전국	대전	전국	대전
계	1,033(100.0)	4(0.4)	1,367.7(100.0)	69.4(5.1)
국가	41(100.0)	1(2.4)	789.4(100.0)	67.8(8.6)
일반	528(100.0)	3(0.6)	503.2(100.0)	1.6(0.3)
도시첨단	11(100.0)	-	2.3(100.0)	-
농공	453(100.0)	-	72.8(100.0)	-

1. 대전의 산업단지 현황

◆ 산업단지 공급 현황



2. 산업단지 개발방향

◆ 기본방향

대전 및 주변지역의
코어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단지 조성

QWL(Quality of Working Life) 개념을
접목한 근로자 중심의 공간 조성

자족적 거점지구 조성

- 자족기능용지로서 중심기능 강화
- 신개념 복합단지 조성

광역 및 대중교통 연계

- 주변 지역과의 광역교통체계 구상
- 대중교통중심도로(BRT) 연계 및 자전거도로 조성

직주 근접의 환경 조성

- 일자리와 주거·생활공간간 이동거리를 최소화
- 상업·문화공간을 인접 배치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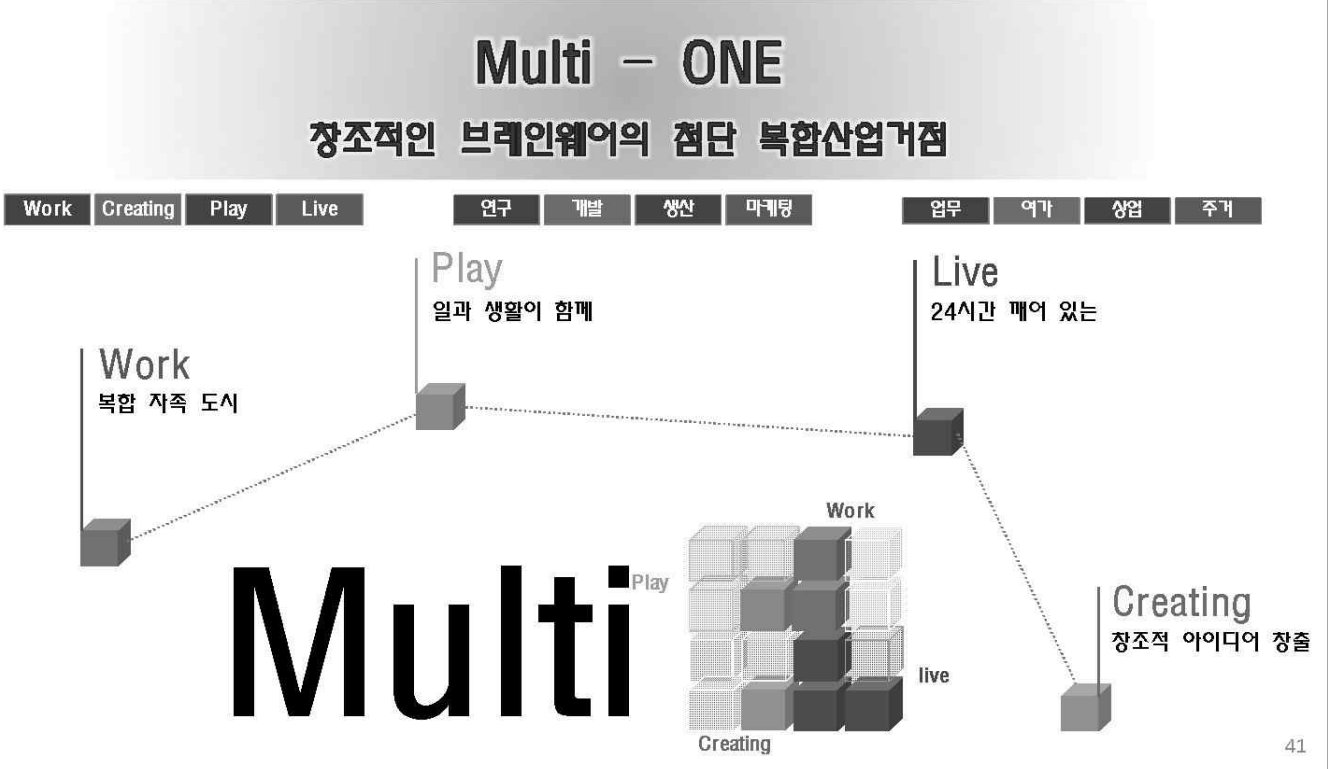
커뮤니티 및 녹지 확보

- Creative Corridor 조성으로 시설별 접근성 확보
- 도보권 공원 설치로 커뮤니티 활동 지원



2. 산업단지 개발방향

◆ 개발 컨셉



2. 산업단지 개발방향

◆ 도입기능



2. 산업단지 개발방향

◆ 도입시설

산업시설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시설 	연구시설 	복합공급저리시설 
	서비스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주거시설(오피스텔 등) 
공공시설		마케팅/전시공간 	공공기업지원시설 	여가체육시설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도심 입지 공급 확대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도심 입지 공급 확대 : 도시경쟁력 강화 필요

세계경제의 초국경화에 대응한 핵심경제지역

- 글로벌 장소경쟁의 심화에 따라 세계적인 대도시 육성 필요
 - 도시는 집적경제와 혁신역량으로 인해 높은 생산성을 갖는 상호 연계된 경제활동의 집적지로서 국가경제의 엔진역할을 담당(Scott and Stoper, 2003)
- 지식기반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중요성 강조
 - 지식기반경제화로 인해 인구·산업·인프라 등의 클러스터 형성이 용이한 도시가 지역발전의 핵심역할 수행
 - 산업발달에 있어 고차기술 및 지원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를 도시에서 지원 가능
- 글로벌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 일반 도시에 비해 우위
 - 글로벌 도시는 초국적 기업본사, 국제적 사업서비스, 교통·통신 중심지, 국제 업무 등을 핵심기능으로 보유

고급근로자들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 훌륭한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의 조건으로 고급인력 확보와 이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엔데버 인사이트(Endeavor Insight, 2014. 2. 11). 유명기업 150개 설립자를 대상으로 조사
 - 규제완화와 세금감면(5%)이 아니라 능력있는 인력 확보와 고급의 생활환경 조성(35%)이 더 중요
 - 시애틀 : 고급 근로자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사업을 시작 할 예정
 - 보스턴 :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학, 극장, 아름다운 건축물 등 문화생활 때문에 이곳을 선택. 이러한 것들은 고급근로자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임

45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도심 입지 공급 확대 : 도시 기능의 중요성

인구와 자원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력

- 도시경쟁력은 경제 및 산업경쟁력, 경제 및 산업지원 경쟁력, 삶의 질 및 시민의식 경쟁력, 인재·기업·생활환경·비즈니스 경쟁력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는 양질의 인적 자원과 노동력, 순이익을 많이 내는 상장기업, 삶의 질이 높은 생활환경과 시민의식, 그리고 잘 갖춰진 유·무형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도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기능 보유

- 인큐베이터 가설과 창업기업 입지
 - 창업기업은 도시에 입지함으로써 차별화된 시장, 중간재 및 중간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등의 이점 상존
- 신공간 분업과 기업 본사 입지
 - 기업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입지요소에 따라 입지가 결정. 기업본사는 사업서비스 인력이 풍부한 도시에, 생산공장은 도시외곽에 입지
- 서비스 경제화와 지식서비스업 입지
 - 서비스업은 특정 공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대도시에 더욱 집중
 - 대도시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도시 내에 서비스업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대도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생산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

46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도심 입지 공급 확대 : 주요국의 도시산업입지 정책

뉴욕의 응용과학단지 (Applied Science NYC)

- 코넬대 · 테크니온 공대(이스라엘) 분교를 유치하기로 결정
- 5만6천평 무상임대(99년), 1억달러 현금지원, 파격적인 세금혜택(뉴욕시)제공
- 600개의 벤처기업, 8,000명의 신규 인력 고용, 2만개의 신규 일자리창출 예상

독일의 Ind 4.0 정책

-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Industry 4.0의 제조업 진화전략 추진
 - 제조업 등의 전통산업에 IT시스템을 결합하여 인텔리전트한 스마트 공장 추진
- Industry 4.0은 기존 생산체계를 스마트, 그린, 도심형 생산으로 전환
 - 스마트 생산 : 고정밀, 고품질, 고객 맞춤형 소량생산
 - 그린 생산 :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 도심형 생산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생산공장 입지

47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복합적인 토지이용

복합적인 업종 유치 확대

- 창조산업이 원하는 입지(지역)를 어디라도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 단지 내 유치업종을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복합적인 토지이용 확대

- 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기능을 복합화
 - 산업시설과 업무 및 연구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입지 유도
 -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이 입주 확대
- 산단 내 용도복합의 입체적인 건물을 공급

48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임대 및 공유형 산업공간 공급

임대산업용지 공급

- 소규모 산업단지를 도심에 임대산업용지로 공급
 - 창조산업의 입지 성향을 감안하여 도심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공급
 - 대덕 및 대학 주변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급
 - 이들 산업단지를 공공에 의한 임대산업단지로 공급

공유형 산업공간 공급

- 창조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에 저렴한 공유형 임대 산업공간 공급
- 생산, 연구, 문화, 레저, 숙박 등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개방형 산업공간 제공
 - 도심이나 대학가 주변에 24시간 개방된 Plug-In 시스템의 산업공간 마련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통합적인 입지 공급

패키지화된 입지공급

- 기업 유치를 위한 모든 조건이 구비된 산업공간 제공
 - 부지(산업공간), 전기, 통신, 도로, 광역네트워크 등의 기반시설 공급
-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세계·자금 등 일괄지원체계 구축
 -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생산·연구·교육 등이 통합된 연계시스템 구축
 - 창조산업이 기반이 되는 산업, 연구, 교육 등이 통합된 패키지형의 연계시스템 마련
 - 단지 내, 단지 외에 걸쳐 연결 가능한 연계시스템 구축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앵커기업유치

앵커기업 유치 필요성

- 대규모 고용 및 투자 발생
 - 앵커기업 및 협력업체의 집적으로 대규모 투자 및 고용의 파급효과 발생
 -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협력업체의 고용효과는 앵커기업 고용의 153%에 이룸
- 관련업체 집적
 - 협력업체 및 연관업종 기업의 집적 유도
 - 원활한 기업 간의 협력 및 암묵지(暗黙知)교환을 유도하여 지역 혁신역량 강화
 - 집적된 업종의 클러스터화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도모
- 대상지 활성화 및 사업성 제고
 - 앵커기업의 선도적인 투자는 위축된 투자심리 제고를 통하여 대상지를 활성화
 - 활성화 이후 공급되는 용지의 가격 상승 및 이를 통한 전체 사업의 사업성 제고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앵커기업 유치

앵커기업 유치사례

- 삼성전자(동탄1신도시)
 - 도시지원시설용지 분양업체의 68.7%가 삼성전자 관련업종, 8.3%가 삼성전자 협력업체
- 삼성엔지니어링(강동첨단업무단지)
 - 삼성엔지니어링 토지분양 이후 엔지니어링 유사 업체 분양
 - 연구단지에서 엔지니어링업체 집적단지로 성격 전환 및 후속개발
- CJ E&M 센터(상암 DMC)
 - CJ E&M 센터 유치(4차분양) 이후 매각율 90% 달성
 - CJ 유치후 용지공급가격 20 ~30% 인상, 미분양 토지 매각성공
- LG디스플레이
 - 산업단지 지정 등 도지사중심의 FTF, 중앙부처 정부지원반 운영으로 신속한 기업 지원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앵커기업 유치

앵커기업 유치사례

- 파스퇴르연구소
 - 위치 : 판교테크노밸리 내 조정연구단지
 - 조성시설 : 연구관, 기숙사, 부대시설
 - 규모 : 토지 1.4천㎡, 고용 150명
 - 경기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505억원, 연구개발비 1천400억원(10년간)
- 스미모토
 - 위치 : 평택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 투자금액 : 5억달러
 - 규모 : 토지 14.9만㎡, 고용 2천명
 - 인접부지(농심소유)와 LH 보유부지 일부와 맞교환, 도비(9억원)로 진입도로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공공주도의 지식산업센터 등 공급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 생존률은 30.2%에 불과
-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단절로 인한 성장 병목현상 심화
- 사업의 공신력 및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지자체의 사업참여 및 자금지원이 필수적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선도적인 산업기반 공급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이 주도하여 시범적으로 공급

지식산업센터 공급 사례

-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
 - 규모 : 대지면적 17,025㎡
 -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건립
 - 상암 DMC의 전략업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유치
 - 임대사업(시세의 50% 수준)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정부·지자체 주도의 공공지원기능 공급

공공지원기능의 필요성

- 공공지원시설의 입지는 지역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에 핵심요소로 작용
- 산업이 고차화되면서 R&D성과 파급효과극대화, 기술사업화, 사업효율화 등의 산업생태계의 적응을 위해서는 지속적 기업지원 절실
- 산업생태계를 이해하는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업지원이 반드시 필요

공공지원기능 공급사례

- 판교 공공지원 인프라 구축
 - 글로벌 R&D센터 : 46,488㎡, 글로벌 R&D기업 및 국책연구기관유치, GE, 싸토리우스, KETI, ETRI, 이수업지스, 코오롱 생명과학 등 유치
 - 공공지원센터 : 28,499㎡, 홍보관, 국제회의실 등, NHN·네오위즈·공공지원센터
 - 산·학·연 R&D센터 : 49,202㎡, IT·융합기술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간 협력 연구지원(사업자 선정 중)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

- 우수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유지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특히 앵커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 필요

맞춤형 지원사례

- 마곡일반산업단지의 맞춤형 지원
 - 서울시에서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자금 투입(21.5억원)
 - 서울시-SH공사-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타겟마케팅 진행
 -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인 토대 마련
 - 탄력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기업 유치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단계별 토지공급

단계별 토지공급의 필요성

- 도시성장과정에 따른 순차적 공급 필요
 - 도시자족기능은 도시형성 이후에 순차적으로 형성
 - 업무, 상업기능은 주택 입주시작 이후 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
 - R&D나 첨단업무용지의 경우 거주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해야 입지하는 경향이 있음
- 수요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한 공급 필요
 -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정부 정책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예상됨
 - 분당과 일산의 경우 업무용지의 활성화 기간은 초기공급 후 초기공급 후 2년 / 4~6년 / 8년, 매각 완료시기는 초기공급 이후 10~11년 소요

수요변화에 대응한 토지공급 방안

- 자족성 조기 확보라는 공급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지 선도공급
- 선도 공급하는 용지는 앵커기업 또는 앵커기능(지식산업센터 등) 중심으로 공급
- 수요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의 수립을 통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공급전략 수립

57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단계별 토지공급

단계별 토지공급 사례

-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 입지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매각
 - 2002년 DMC홍보관을 필두로 2005년까지 점진적 공급 실시
 - 핵심앵커기업을 유치한 통한 매각 활성화
 - 2005년 방송통신 핵심앵커기업인 MBC, CJ E&M에 매각 이후 토지 공급률 90% 이상 달성
 - 방송통신 핵심앵커기업 유치 이후 관련 업종 기업(YTN, 동아, SBS, 서울디지털프레스센터 등) 대거 유치
 - 핵심앵커 유치 이후(5차 공급) 높은 가격, 다수 토지 공급 성공
 - 5차 공급 시 미매각 용지를 최저가격 대비 20~30% 인상하여 공급

58

3. 산업단지 개발전략

◆ 단계별 토지공급

단계별 토지공급 사례

- 판교테크노밸리
 - 2006년 우수한 입지와 부동산경기를 바탕으로 초기매과 성공적
 - R&D, 연구업무기능의 첨단업종 유치
 - 2006.9월 1차, 2007.1월 2차, 2011.6월 3차공급 실시
 - 1차(영커기업) : 삼성테크위, 안철수연구소, 엔씨소프트 등
 - 2차(시행사) : 엠택비전권소, (주)이노밸리, (주)판교벤처밸리
 - 3차(시행사&대기업) : 삼양사권소, 삼성중공업 등
 - 1차 미공급분에 대한 3차 공급은 다수의 건물이 완공되고 단지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2011년 6월에 공급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최소가격대비 25% ~ 52% 인상된 가격으로 매과 성공(평균 42% 인상)

감사합니다.

대전시의 산업입지 여건 및 산업단지 공급 혁신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박사 정 경 석

대전시의 산업입지 여건 및 산업단지 공급 혁신 방안



목 차

01. 배경 및 필요성
02. 산업구조 현황 진단
03. 산업단지 개발 가용지 분석
04. 산업구조 현황 종합
05. 산업입지 공급 활성화 방안

- 대부분 기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들이 높은 GRDP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 성장
- 산업단지는 기업활동 유치 및 지역경쟁력 확보의 첨병 역할 수행하는 전초기지

기업유치에 따른 재정기여도 증대

지난 10년간GRDP 증가율이 상위 20위 인 지자체 중 13곳은 10대 그룹 계열사의 생산연구시설 기반이 있는 곳 차지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여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구미 삼성전지 지역 제정기여도-사회공헌 '효자'

산단 전체 수출 40% 차지...지방세실적 1등의 진명 나들워링 페스티벌 등 지역연계 봉사활동 강화

완주군 재정규모 성장률 1등 달성으로 완주 불동의 200만 규모의 산업단지가

1. 국내 산업단지 공급의 문제점

- 산업단지 개발권한 및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권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최근 산업단지의 개발이 큰 폭으로 증가
 - 지자체별 과다경쟁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과잉
 - 무분별한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해 산업단지분양성악화 및 산단 수급 불균형 문제 심화
- 대도시지역 산업단지 과부족 면적(적정공급면적-개발중면적, 천㎡, 13.6월말): 전국(26,458), 경기(△3,222), 부산(△1,743), 울산(△4,083), 대전(△2,711)

[전국 산업단지 지정 현황]

(13.12.31 현재)

(단위 : 개, 천㎡, %)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산업단지(산업+주거+지원)				
			공급대상 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계	1,033	1,367,598	775,140	577,235	552,784	24,451	4.2
국가	41	789,357	368,856	308,137	302,896	5,240	1.7
일반	528	503,164	348,398	216,663	199,970	16,694	7.7
도시첨단	11	2,285	1,383	539	501	37	6.9
농공	453	72,792	56,504	51,896	49,417	2,480	4.8

출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13.12)

2. 산업입지 관련 정부정책 변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대도시 권역 중심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체계 구축
- 도시지역내 산단 공급 확대 및 실수요 위주의 산단 개발을 위해 수급 관리 강화
-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민간개발 인센티브 부여
- 도시지역내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여 활력이 넘치는 산단으로 전환
- 이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도입 및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등 융복합개발을 촉진

비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산단 개발 방향

기본방향

- 용도지역 및 업종 규제 완화
- 혁신역량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신규 산단

노후 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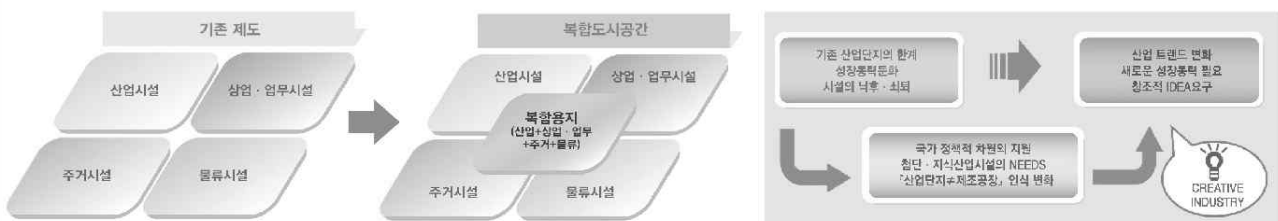
도시지역 산업단지 공급확대
산단 수급관리 강화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으로
매력적인 창의 · 혁신공간으로 전환

“대전시의 체계적인 산업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적극적 기회로 활용”

3. 최근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

- 쾌적한 주거환경과 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증대



- 기술혁신과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 증대
- 수요자(기업) 중심의 중소규모 맞춤형 단지개발(아파트형공장, 임차공장 등)에 대한 수요 증대
- 신규 산단 개발중심에서 기존 산단 재생을 통한 경쟁력 지원 강화
- 단순한 생산공간의 기능에서 복합도시공간으로 산단 기능이 변화

“대전시는 최적의 산업입지 여건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

1.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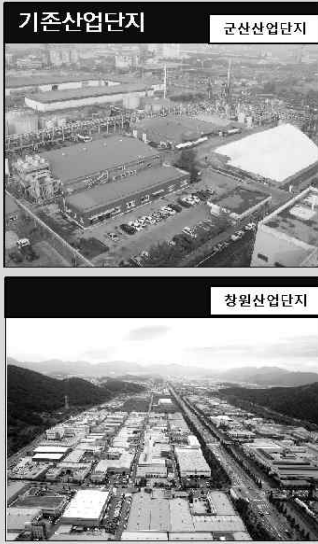
7

산업단지 공급확대의 필요성
최근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

01

3. 최근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

현재의 산업단지는 기존의 생산공간 중심에서 복합도시공간으로 진화 중



1.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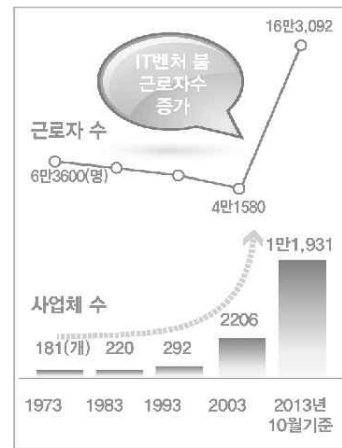
8

산업단지 공급확대의 필요성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

01

3. 최근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

도시입지형 첨단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 - 서울구로 디지털산업단지



구로공단변천사

주요입주업종

지식산업센터가 세워지면서 입주업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
비제조업종의 상당 부분은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등 IT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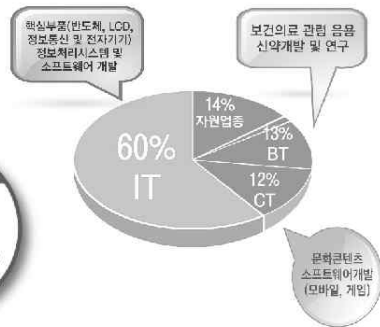
3. 최근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

도시입지형 첨단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 - 판교테크노밸리첨단산업단지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테크노밸리

IT·BT업종 골고루 포진



3. 최근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

도시입지형 첨단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 - 부산센텀시티 산업단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한국의 맨하탄,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의 성공 흥 모델 "센텀시티"

개발비용



조성원가: 1,109,510원/평방미터
3,867,810원/평

분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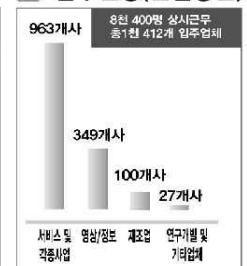
분양가 평당 400만원대
오피스 매매가격보다 낮음 (오피스평균전세 294만원)



분양현황



입주현황(산업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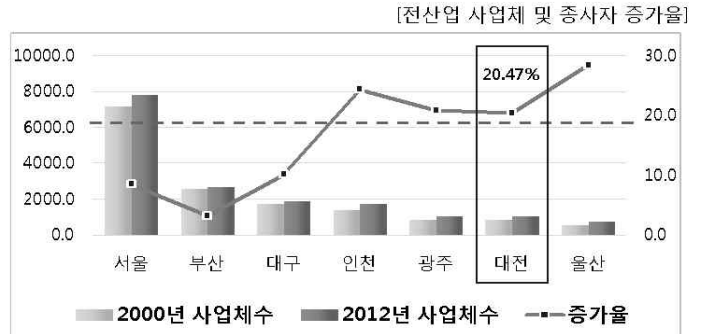


취약한 산업기반 구조로 지속적인 도시성장의 한계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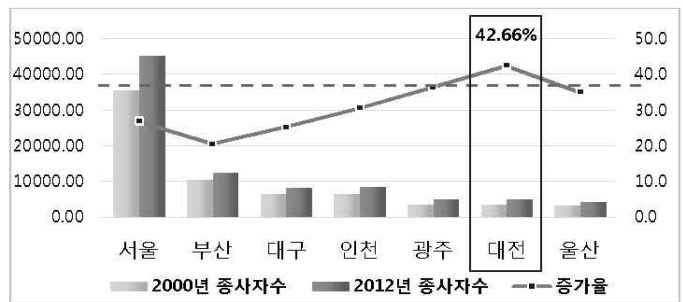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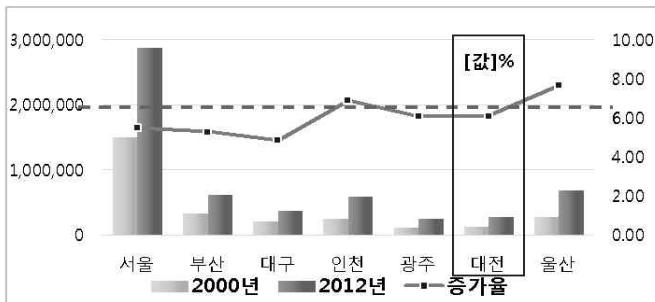
- 낮은 산업생산기반 구조
 - 전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전국평균치 상회
 - GRDP의 증가율은 오히려 전국평균치 하회

구분	전산업(%)		제조업(%)	
	대전시	전국	대전시	전국
GRDP (연평균)	6.15	6.43	6.02	6.99
사업체	20.47	19.55	8.23	17.10
종사자	42.66	36.50	15.42	1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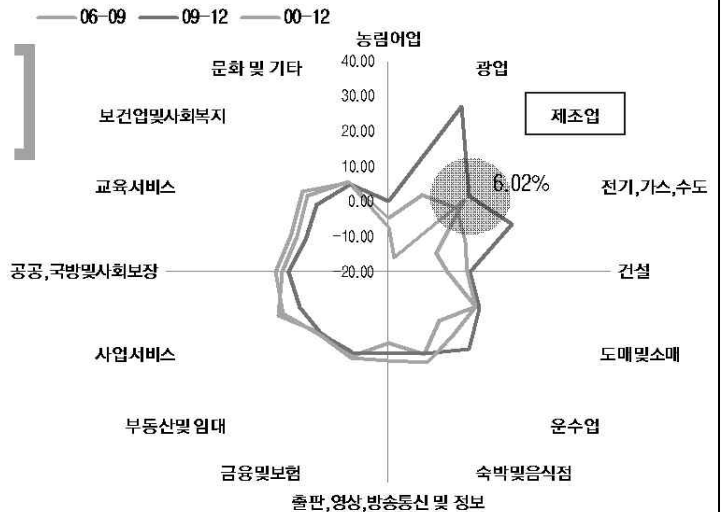
[전산업 및 제조업의 증가율 추이]



[전산업 지역내총생산 및 연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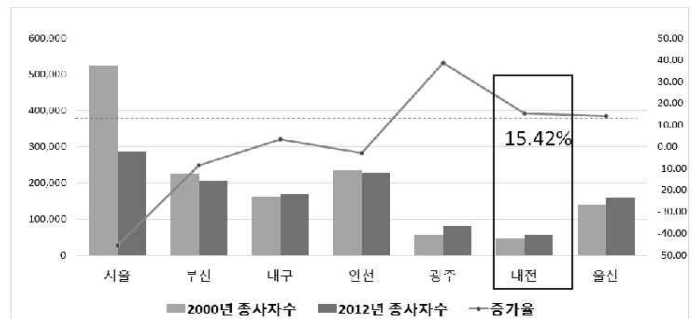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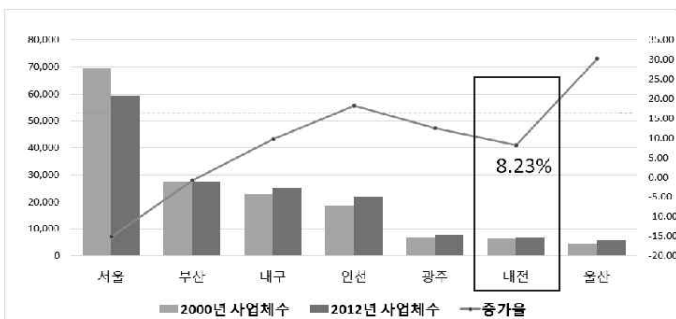


- 제조업 부문의 육성 및 진흥 노력 미흡
 - 사업체 증가율은 현저히 저조
 - GRDP 연평균 증가율 역시 전국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은 추세



[제조업 사업체수 증가율 현황]

[제조업 종사자수 증가율 현황]



● 제조업 산업용지 면적 현황

- 전국 총 제조업 산업용지면적은 1,083km²로 이 중 대전시가 차지하는 전국대비 비중은 약 1.14%
- 6대 광역시 중 제조업 산업용지 면적이 가장 낮음
- 대전시 공장용지 면적 8.4 km² (전국 164개 시군 가운데 29위 수준)
- 1km²당 공장용지면적 15.6 천m² (전국 38위)

[6대 광역시 산업용지 면적 현황]

	산업용지 면적(단위 km ²)					1km ² 당 (단위 천m ²)			
	행정면적	공장용지	제조용지	부대용지	총용지	공장용지	제조용지	부대용지	총용지
서울	606	3.7(50)	2.8(25)	1.8(17)	8.5(40)	6.1(66)	4.8(40)	3.0(30)	14.0(57)
부산	781	22.9(3)	10.6(2)	4.5(4)	37.9(3)	29.3(13)	13.6(5)	5.7(13)	48.5(12)
인천	1,167	21.1(5)	10.1(4)	5.0(3)	36.2(4)	18.1(30)	8.7(21)	4.3(18)	31.0(26)
대구	881	17.7(10)	9.0(7)	2.7(11)	29.4(7)	20.1(24)	10.3(18)	3.0(28)	33.4(25)
대전	540	8.4(29)	3.0(23)	1.6(21)	13.1(25)	15.6(38)	5.5(33)	3.0(29)	24.2(35)
광주	499	13.4(17)	5.4(12)	1.7(18)	20.5(17)	26.8(16)	10.9(16)	3.4(25)	41.1(19)
울산	1,069	48.5(1)	12.5(1)	7.2(1)	68.2(1)	45.4(3)	11.7(14)	6.7(10)	6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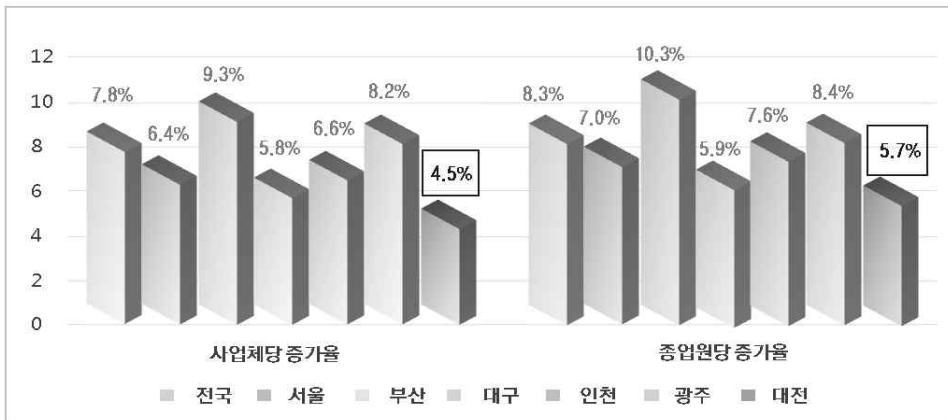
주 : ()은 전국 대비 순위
자료 : 팩토리온 자료(2013년 12월 기준)

● 제조업 생산성 분석

[단위 : 억원, %]

- 사업체당 생산액 : 182억원 (2011년 기준)
- 사업체당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4.5%
- 전국 연평균 7.8% 보다 낮아 제조업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
- 종업원 1인당 생산액 : 3억 9천만원
- 종업원당 연평균 증가율 : 5.7%
- 전국 8.3% 보다 훨씬 낮음

구 분	대전		전국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당 생산액	182	4.5	238.3	7.8
종사자당 생산액	3.9	5.7	5.6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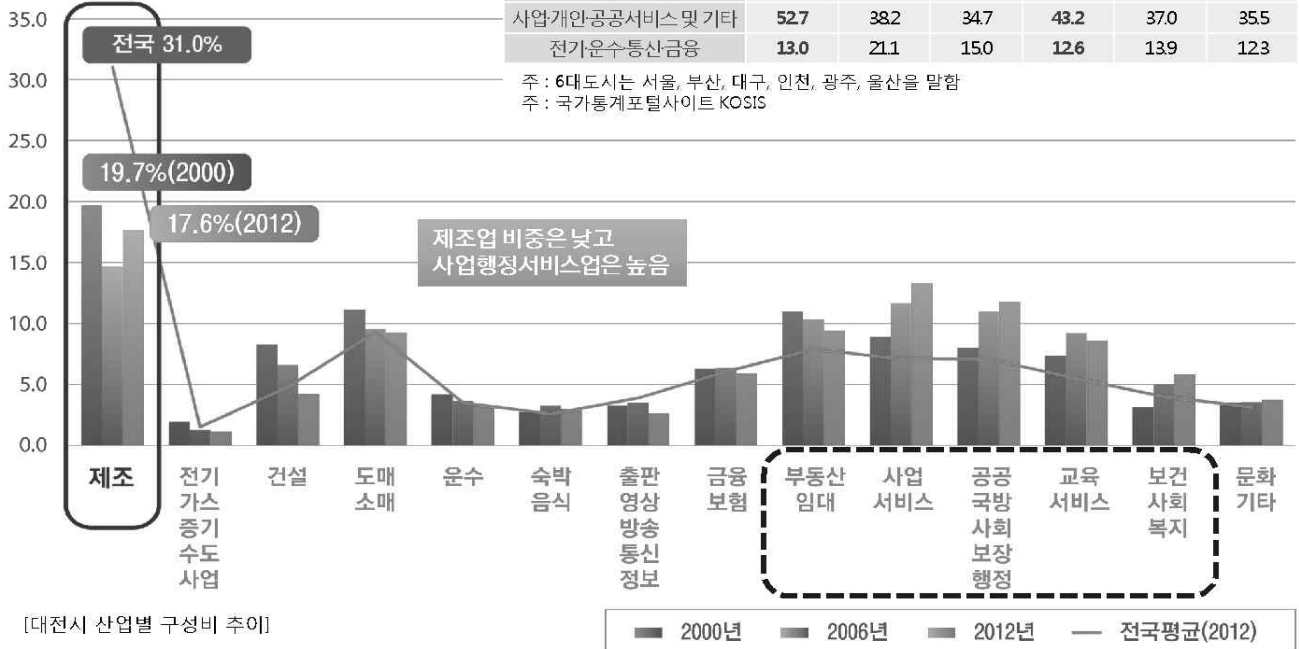
- 사업체뿐만 아니라 종업원 1인당 생산액도 6대 광역시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음
- 제조업부문의 체계적 지원 · 육성과 특화발전 전략이 필요

● 제조업 GRDP 비중

- 전산업 대비 17.6%로 가장 낮음
- 전국 비중(31.0%) 대비 낮고
생산액 및 취업자 구성비 모두 전국 수준 하회

구분	GRDP			취업자		
	대전	6대도시	전국	대전	6대도시	전국
농림어업	0.2	0.4	2.5	0.7	0.9	4.9
광업	0.0	0.1	0.2	0.0	0.0	0.1
제조업	17.6	19.8	31.0	11.8	15.6	17.1
건설업	4.2	3.6	4.8	8.4	7.1	7.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2.3	16.8	11.9	23.5	25.4	22.9
사업개안·공공서비스 및 기타	52.7	38.2	34.7	43.2	37.0	35.5
전자운수·통신·금융	13.0	21.1	15.0	12.6	13.9	12.3

주: 6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을 말함
주: 국가통계포털사이트 KOSIS



[대전시 산업별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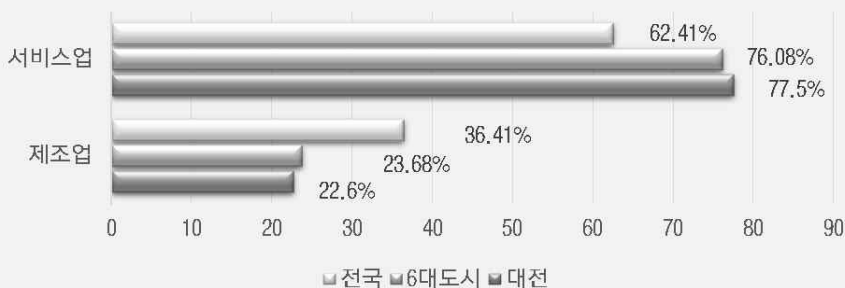
● 제조업 GRDP 성장기여율

- 대전: 22.6% ('98~2012년 20.3%)
- 전국: 36.4% ('98~2012년 41.5%)
- 6대도시 평균(23.7%)보다 낮음

구분	대전	6대도시	전국
농림어업	-0.1	0.18	1.11
광업	0.00	0.06	0.07
제조업	22.6	23.68	36.41
서비스업	77.5	76.08	62.41

주: 성장기여율=(각산업 부가가치 증가액/전산업 부가가치 증가액)×100

제조업 GRDP 성장기여율



구분	대전			전국		
	비중(A)	성장기여율(B)	B/A	비중(A)	성장기여율(B)	B/A
제조업	17.6	22.6	1.28	31.0	36.4	1.17
서비스업	82.2	77.5	0.94	66.4	62.4	0.94

비중대비 성장기여율의 비를 보면, 제조업 분야가 대전시의 산업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분야 보다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지방세 세입 기여율

- 전체 지방 세입액 : 1조 3,327억원 (2011년 기준)
- 전산업 기업체 및 종사자 세입액 : 2,138억원
- 제조업체 지방소득세 세입액 : 459억원 (858개 제조업체 대상 10% 과세 지방법인세로 한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지방세 전체 세입액(A)	1조 649	1조 1	1조 1,626	1조 3,327	7.76
전체 기업체 및 종사자 관련 세입액(B)*	2,143	1,769	1,929	2,138	-0.08
법인세 중 제조업체 관련 세입액(C)**	429	461	491	459	2.29
전체 법인 세입(B) 대비 제조업체 납부세액(C)비중 (C/B*100%)	20.03	26.09	25.44	21.49	2.37

구분	사업체	종사자	GRDP	지방세
제조업	6.6	10.6	17.6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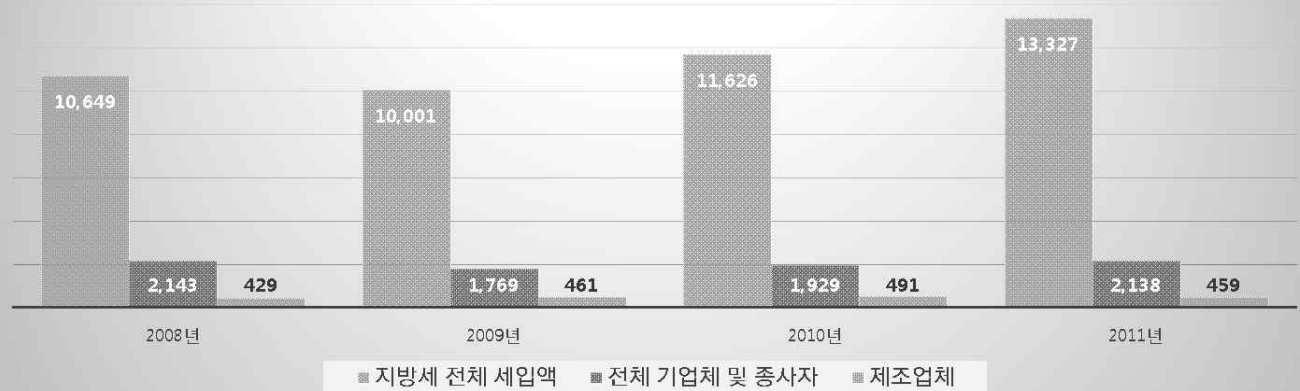
[대전시 전산업 대비 제조업 비중 및 지방세 납입 기여율, 단위: %]

[대전시 전체 기업체 및 제조업체 지방세입 현황]

*: 2011년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변경, 현재의 기업체와 종사자 세목 구성 추적이 불가능하여, 기업체가 납입한 총 지방세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

** : 대전시 제조업체의 지방세입액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보유한 대전시에 소재한 전체 기업체(2,955개) 중 제조업체(858개)를 대상으로 추정 (총 법인세 중 10%가 지방법인세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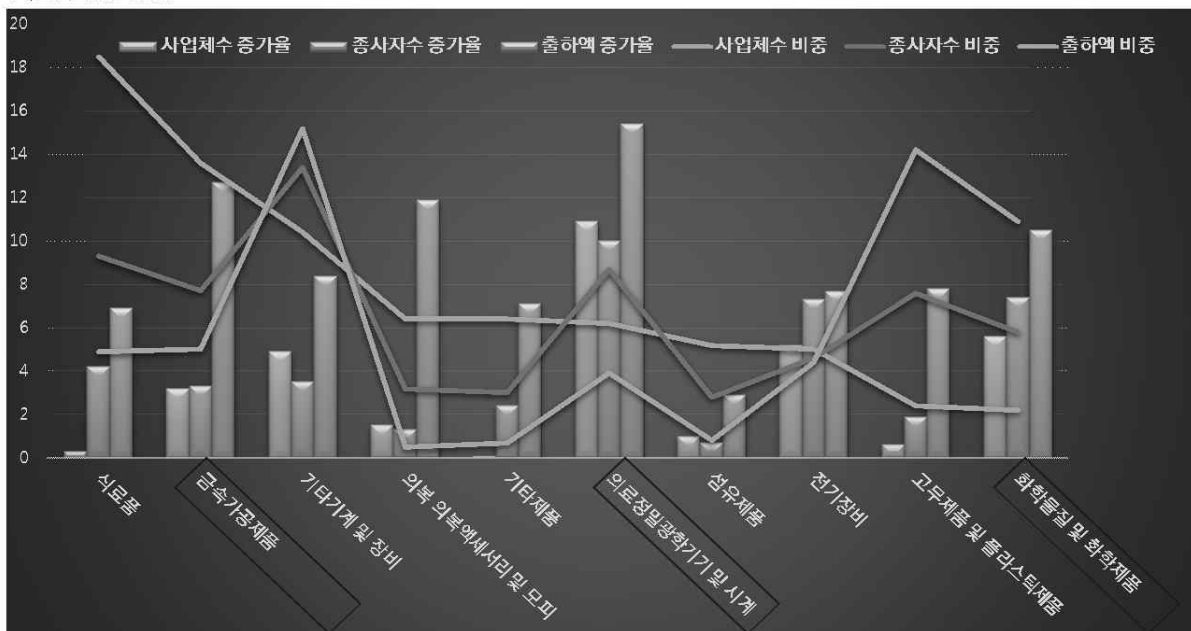
지방세 세입 기여율



● 제조업 업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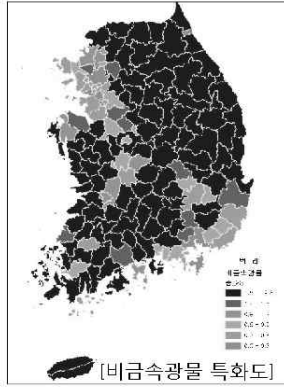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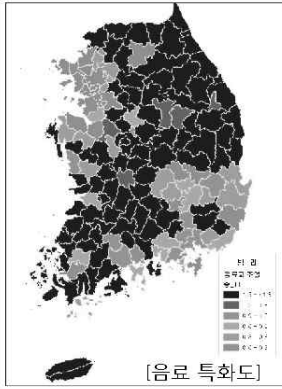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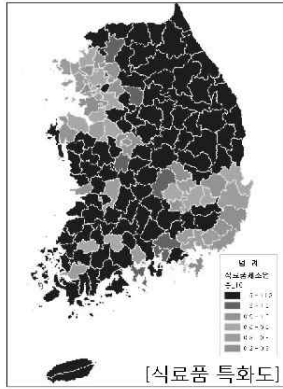
- 제조업 사업체수는 6,914개, 종사자수는 55,451명, 평균 고용은 8명
- 사업체수 기준 : 식료품제조업(18.5%)
- 종사자수 및 출하액 기준 비중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각각 13.4%, 15.2%)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그리고 출하액 기준 성장률: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10.9%, 10.0%, 15.4%)

[제조업 업종 현황]



● 제조업 업종별 현황

- 제조업 업종 구성의 전환 필요
- 단순 가공, 보관 및 적재/적치 위주의 업종에 대한 과감한 이전
- 전기 및 전자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등의 첨단업종에 대한 전략적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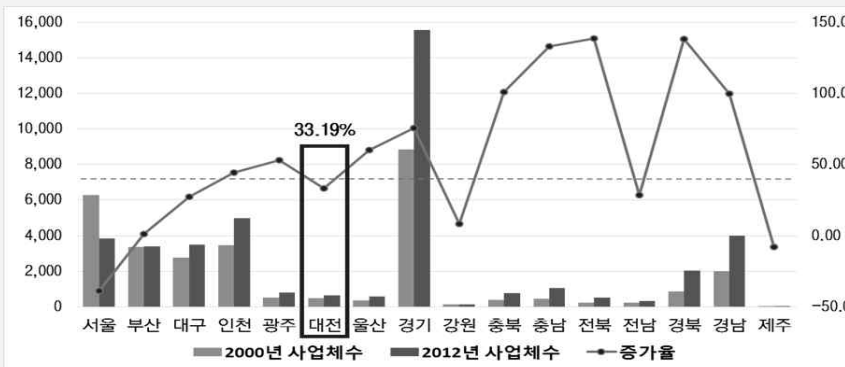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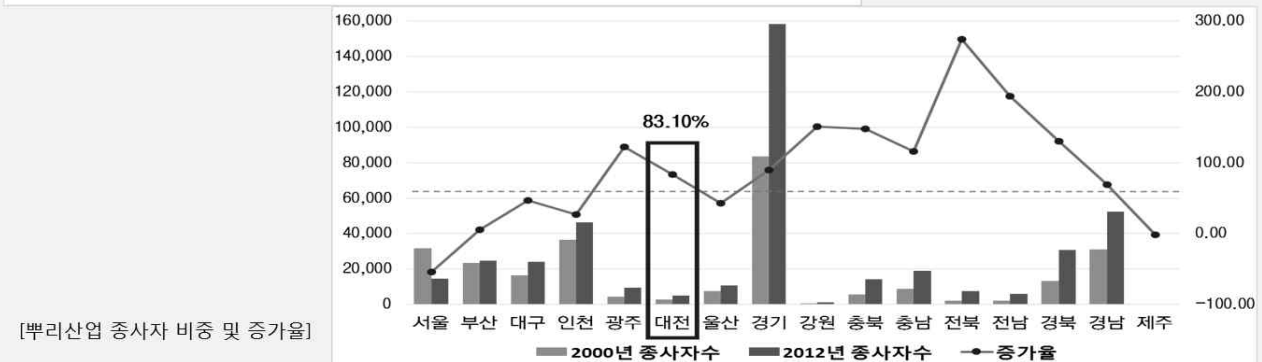
구분	6대도시 및 전국대비 특화도 높은 업종	6대도시 대비 특화도 높은 업종	전국 대비 특화도 높은 업종	
사업체	2000년	담배, 펄프/종이/종이제품, 인쇄/기록매체, 의료용물질/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기타제품	식품업, 음료, 목재/나무제품, 비금속광물	섬유, 의복/액세서리/모피, 가죽/가방/신발, 금속가공,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장비, 가구
	2012년	담배, 펄프/종이/종이제품, 인쇄/기록매체, 의료용물질/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기타기계/장비, 가구, 기타제품	식품업, 음료, 화학물질/화학제품	섬유, 의복/액세서리/모피, 가죽/가방/신발, 금속가공, 전기장비
종사자	2000년	담배, 섬유제품, 가죽/가방/신발, 펄프/종이/종이제품, 인쇄/기록매체, 화학물질/화학제품, 의료용물질/의약품, 고무/플라스틱,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전기장비, 기타제품	식품업, 음료	의복/액세서리/모피, 기타기계/장비
	2012년	담배, 펄프/종이/종이제품, 인쇄/기록매체, 화학물질/화학제품, 의료용물질/의약품, 고무/플라스틱,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기타기계/장비, 기타제품	식품업, 음료, 비금속광물	의복/액세서리/모피, 가죽/가방/신발, 전기장비, 가구

가. 뿌리산업

- 주요업종 : 주조산업,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 용접접합산업 등 6개로 구분
- 비중 : 사업체수(630개, 전국대비 1.5%), 종사자수(4,973명, 전국대비 1.17%)



뿌리산업 특화단지(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신규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모 지정 운영 중
경기도 안산시 A, B, 인천시 서구, 경남 밀양 등 네 곳 지정
평가기준 : 협동화 정도, 단지역량, 고도화 계획, 지정시 파급효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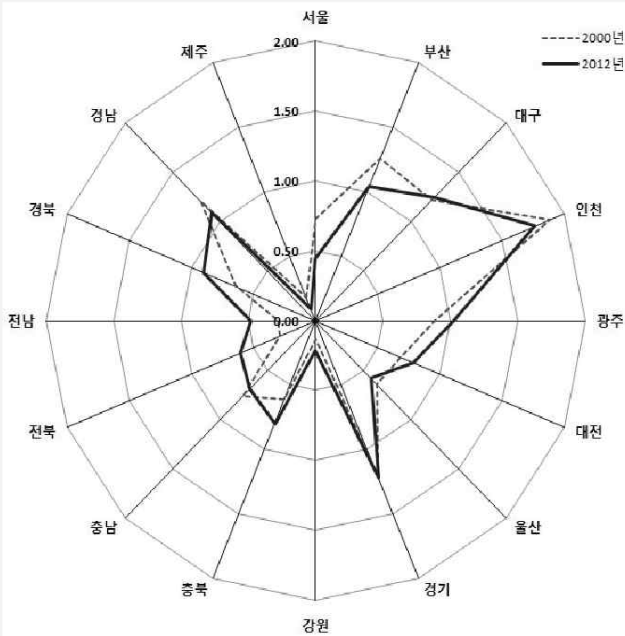


가. 뿌리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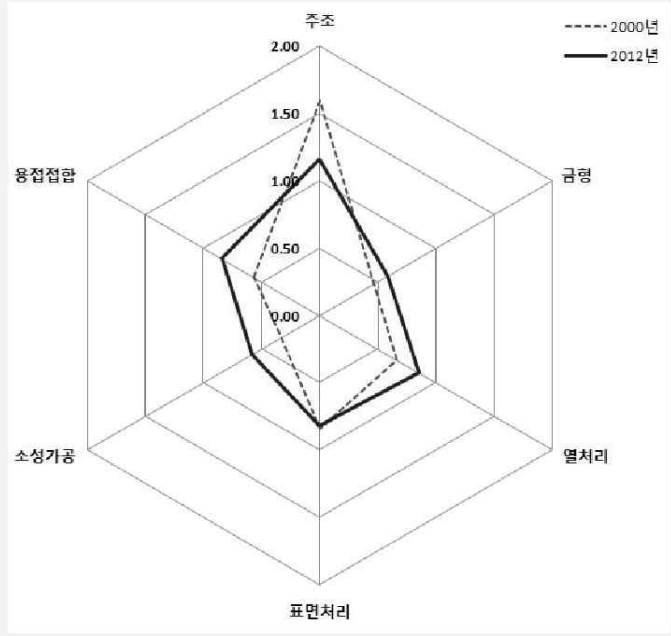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특화도 변화가 거의 없음
- 특화도가 1 이상인 업종 : 주조, 열처리, 용접접합, 표면처리

LQ지수란 특정산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산업의 지역간 상대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한 지역의 특화산업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뿌리산업 LQ 변화]



[대전시 뿌리산업 업종별 LQ 변화]



부가가치가 높은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 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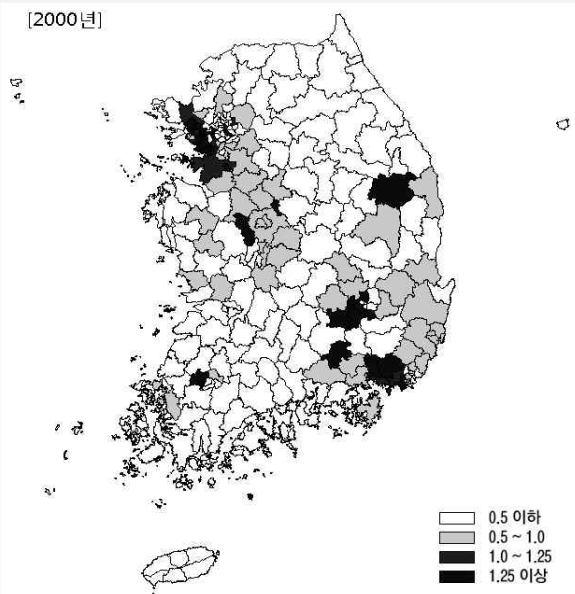
가. 뿌리산업

- 대전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특화도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2년에 대전 유성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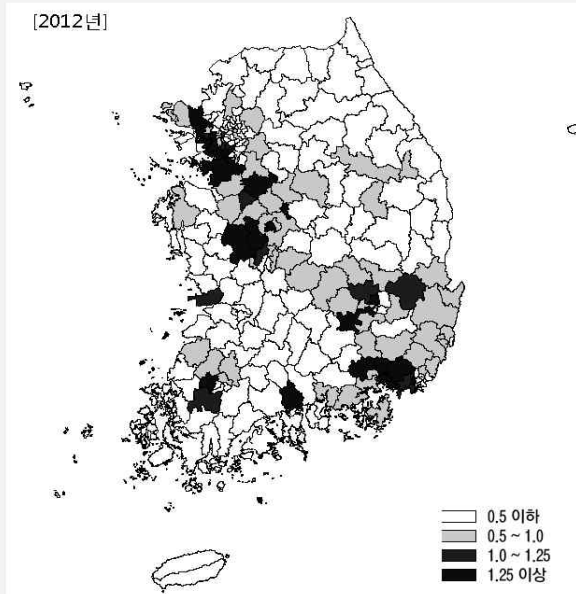
251개시군구중

유성구(35위) LQ 1.161
대덕구(71위) LQ 0.690
동구(78위) LQ 0.668
중구(156위) LQ 0.237
서구(168위) LQ 0.196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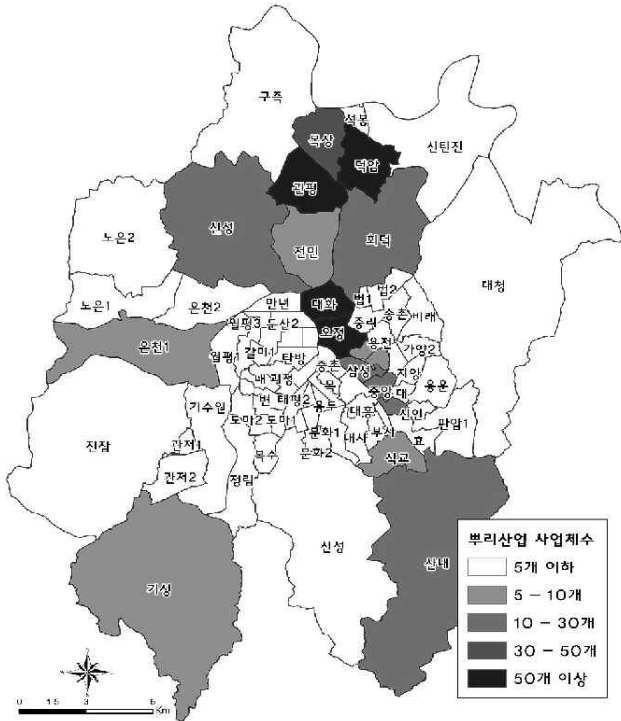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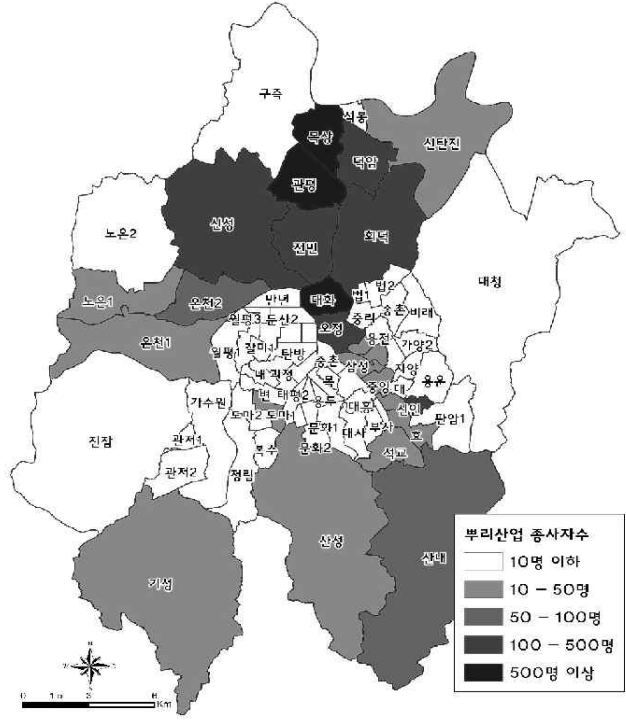


가. 뿌리산업

뿌리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사업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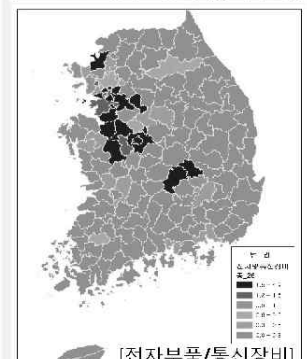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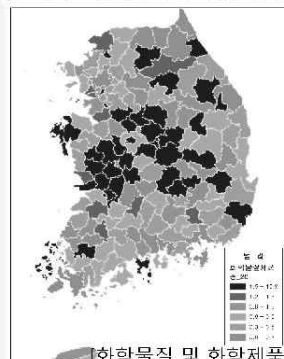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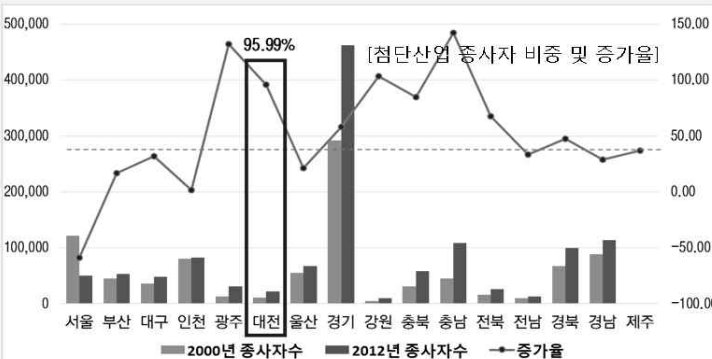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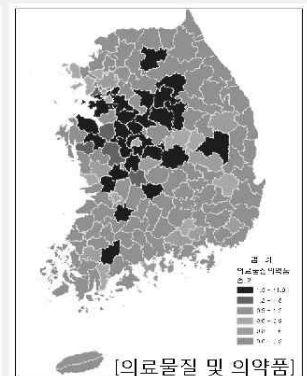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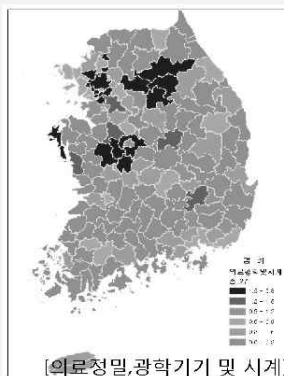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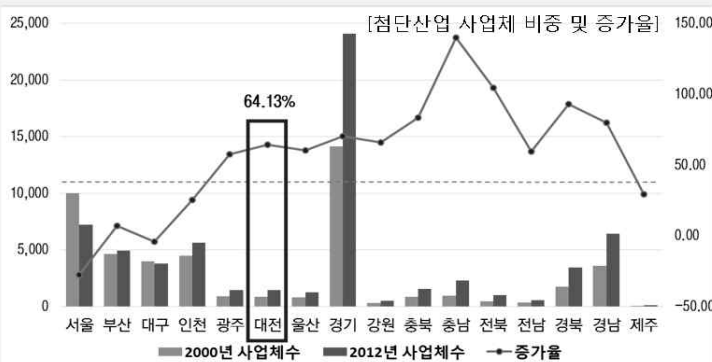


뿌리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종사자수 -



나. 첨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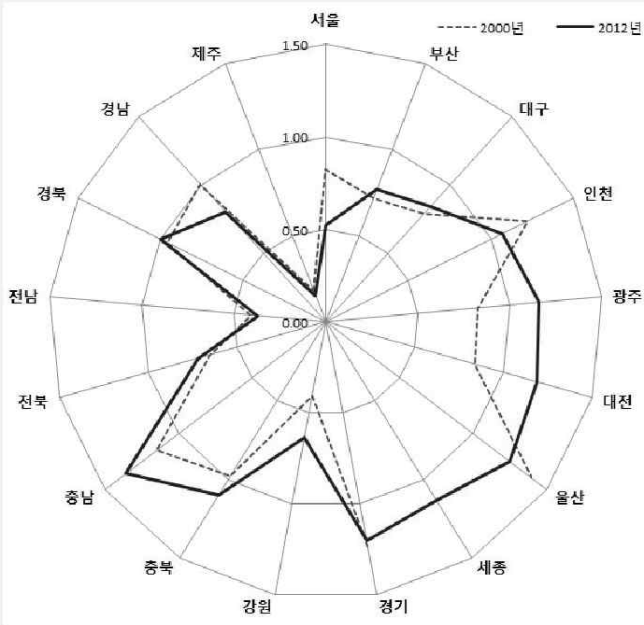
- 전국 종사자 기준으로 30%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특히 충남, 충북, 대전 등 충청권의 성장이 두드러짐
- 비중 : 사업체수(1,446개, 전국대비 2.2%), 종사자수(22,298명, 전국대비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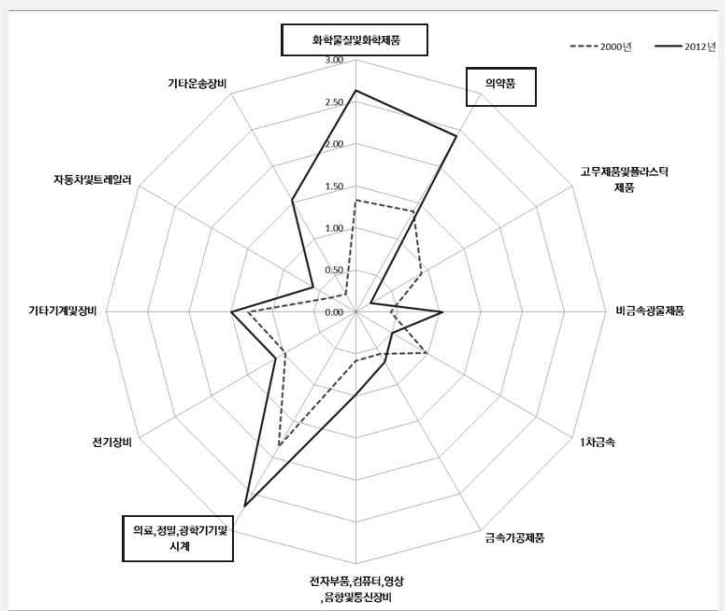
나. 첨단산업

- 첨단산업 특화도는 증가(0.92 → 1.19)
- 특화도가 2 이상인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첨단산업 LQ 변화]



[대전시 첨단산업 업종별 LQ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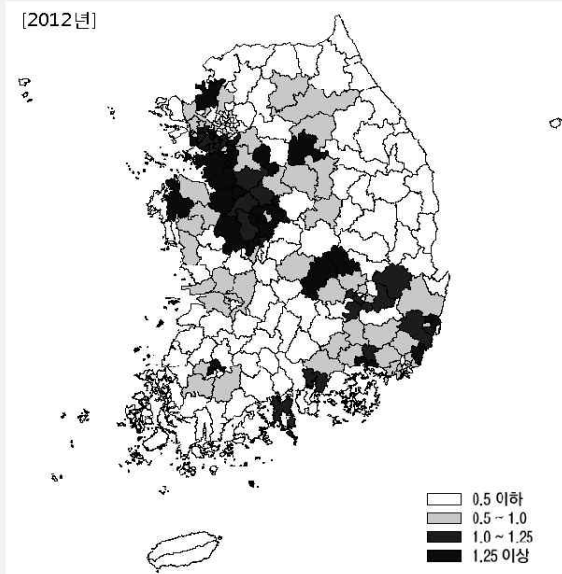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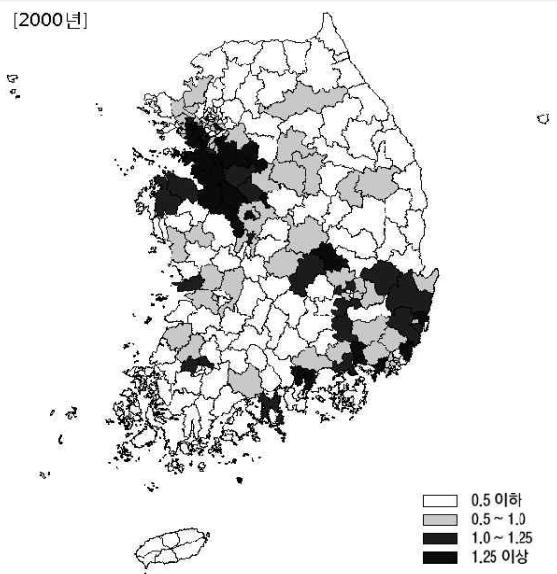
대표적인 주력 업종으로 특화 필요

나. 첨단산업

- 첨단산업은 2000년에 비해 2012년의 경우 대전권역으로까지 특화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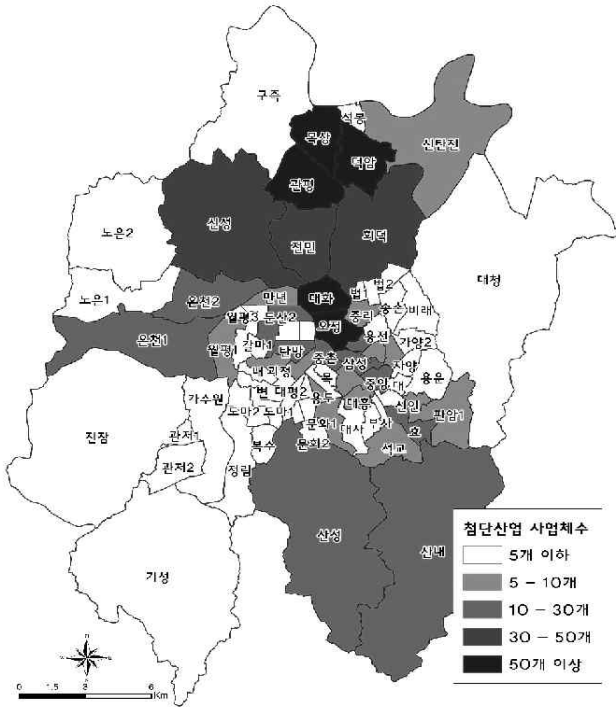
251개시군구중

유성구(8위)	LQ 1.835
대덕구(49위)	LQ 1.091
서구(103위)	LQ 0.584
중구(118위)	LQ 0.496
동구(153위)	LQ 0.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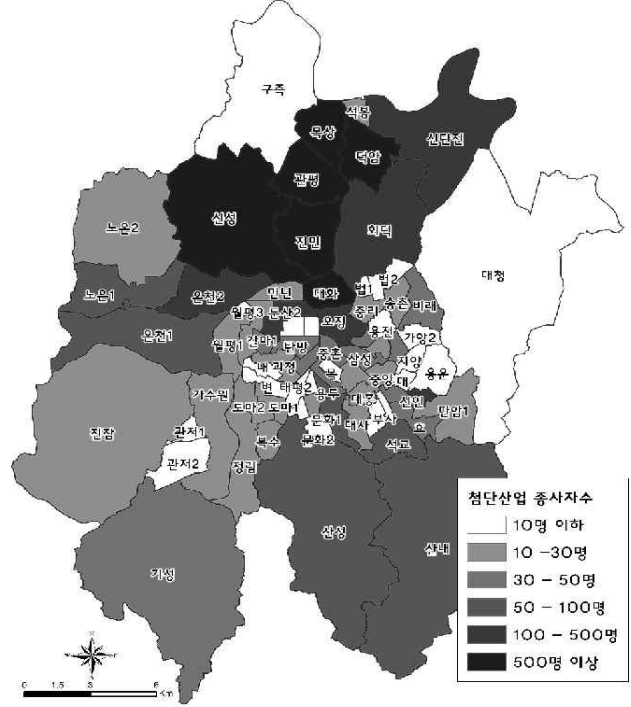


나. 첨단산업

첨단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사업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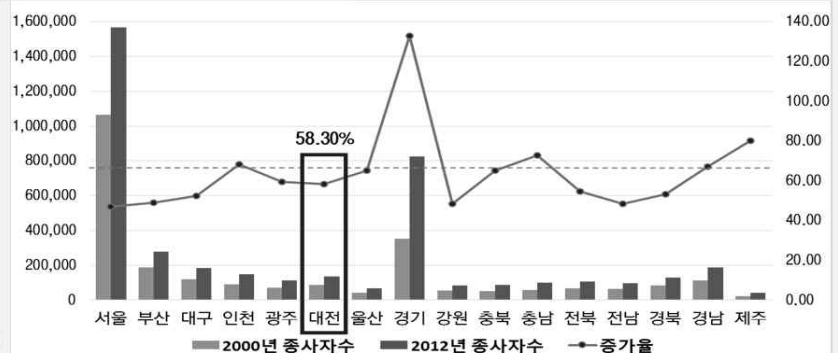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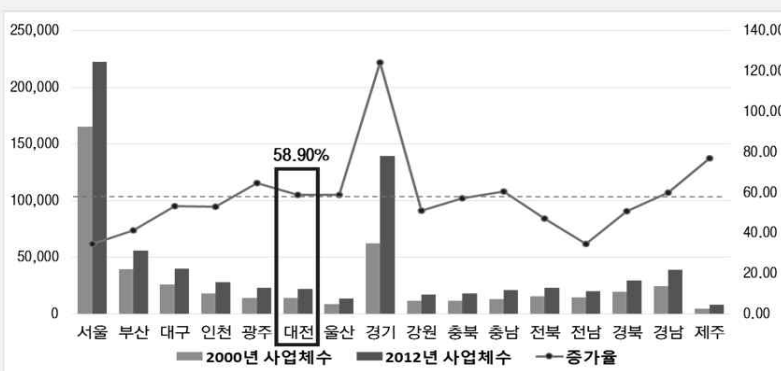


첨단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종사자수 -



다. 지식서비스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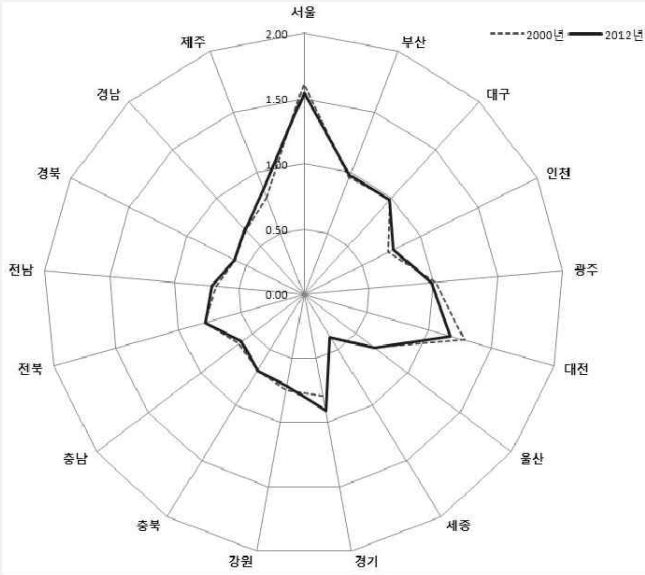
- 대도시 지역에 대체로 집중
- 비중 : 사업체수(22,144개, 전국대비 3.1%), 종사자수(136,655명, 전국대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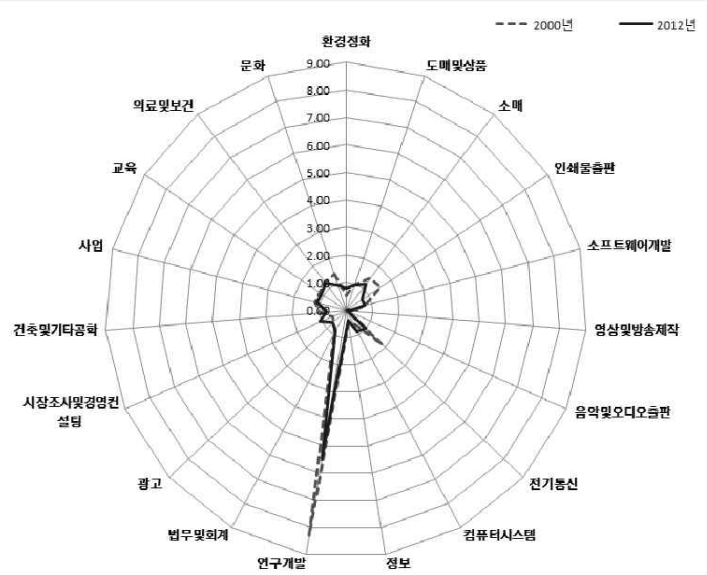
다.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특화도는 다소 낮아졌으나, 전국대비 서울 다음으로 특화도가 높음
- 연구개발의 특화도가 과거 10년전 보다 약 30%가량 낮아짐

[지식서비스산업 LQ 변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 LQ 변화]



특구부지의 개발 한계 극복 및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방지를 위한 대체연구단지 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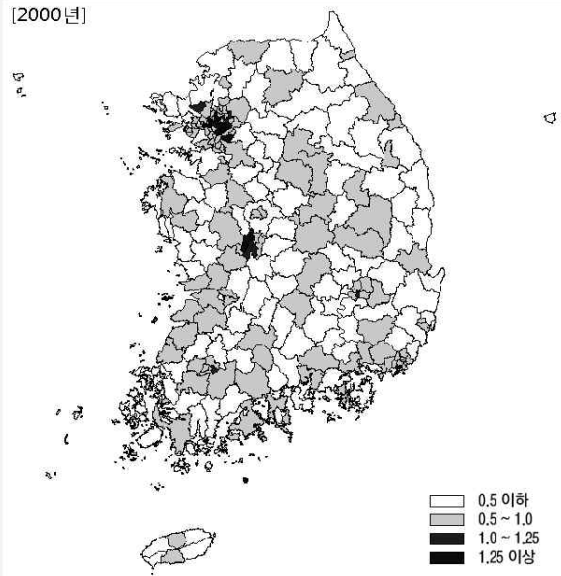
다. 지식서비스산업

- 수도권지역에서의 특화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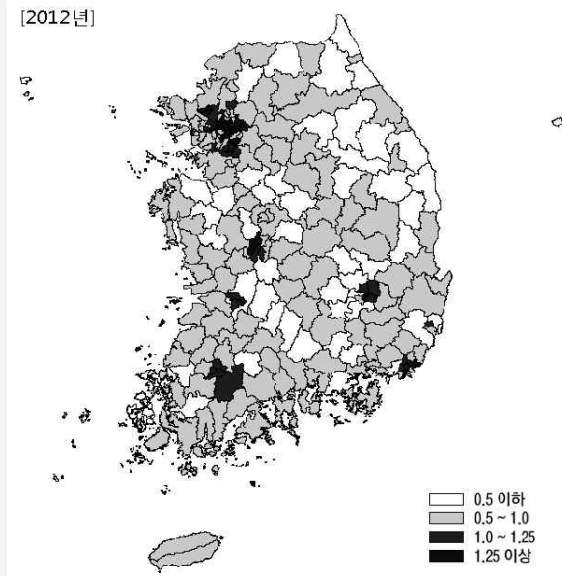
251개시군구중

유성구(11위) LQ 1.547
중구(30위) LQ 1.218
서구(37위) LQ 1.129
동구(88위) LQ 0.892
대덕구(90위) LQ 0.877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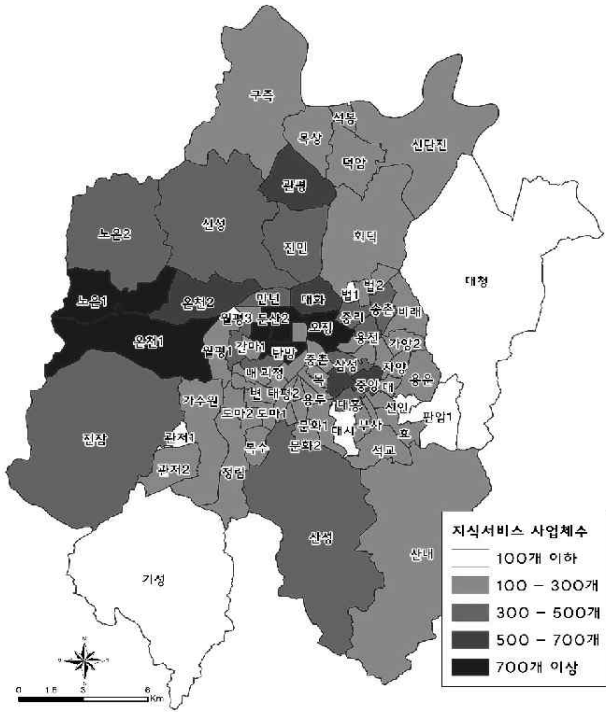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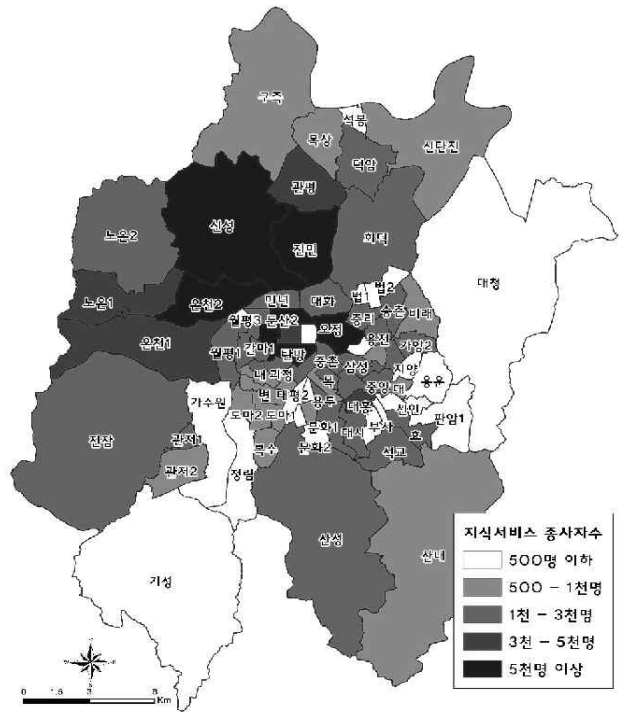


다. 지식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사업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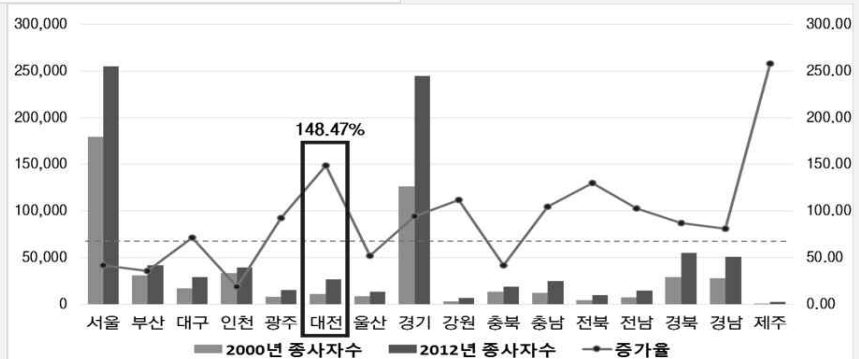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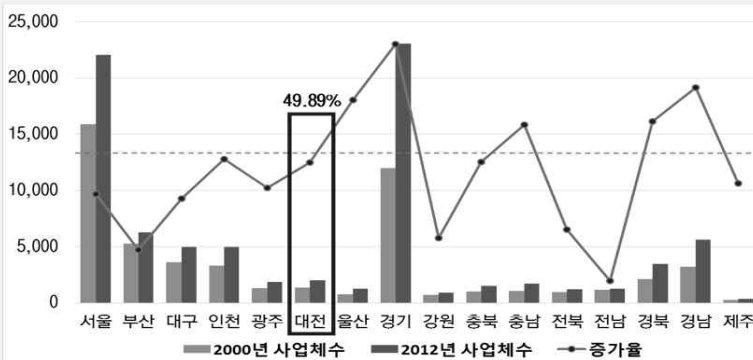


지식서비스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종사자수 -



라. 주력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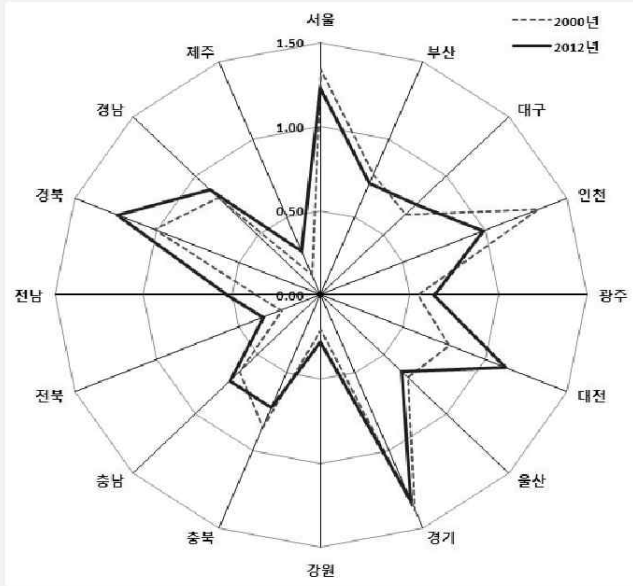
- 주요업종 : 무선통신융합산업, 메디바이오산업, 로봇자동화산업, 금속가공산업,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으로 구분
- 비중 : 사업체수(2,001개, 전국대비 3.17%), 종사자수(26,812명, 전국대비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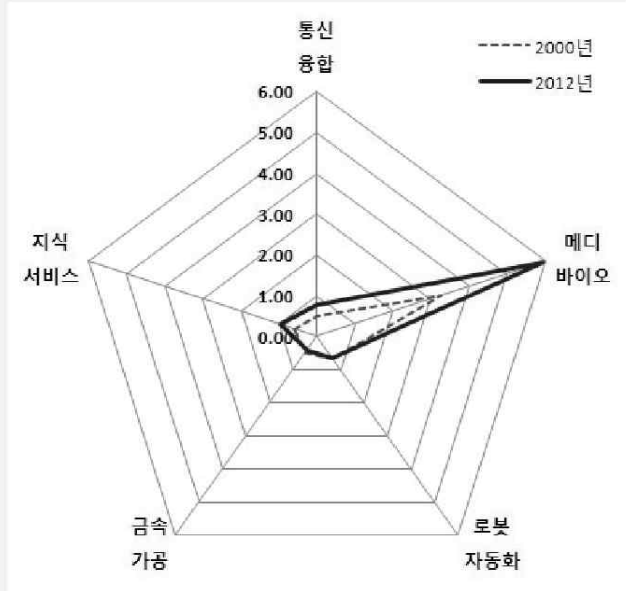
라. 주력산업

- 주력산업 특화도는 증가(0.78 → 1.12)
- 메디바이오 업종의 경우 특화도 5.92로 가장 크게 나타남

[주력산업 LQ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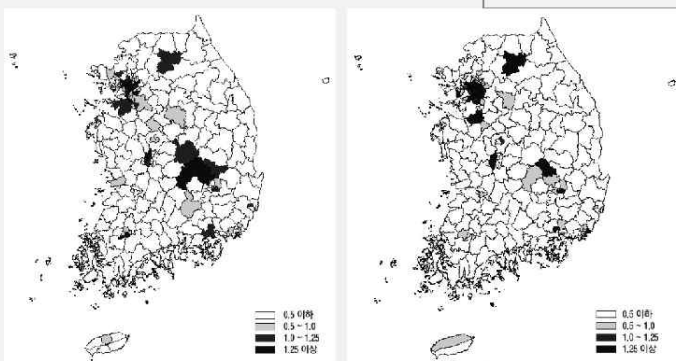


[주력산업 업종별 LQ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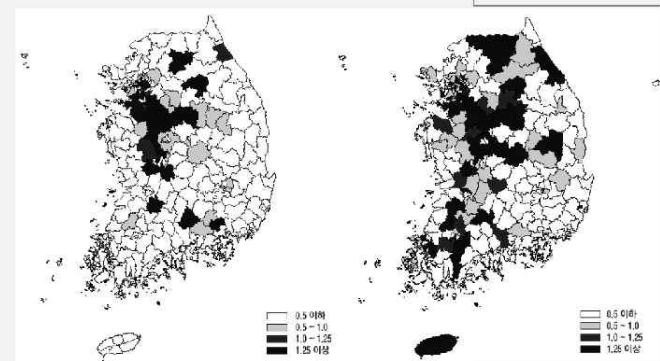


라. 주력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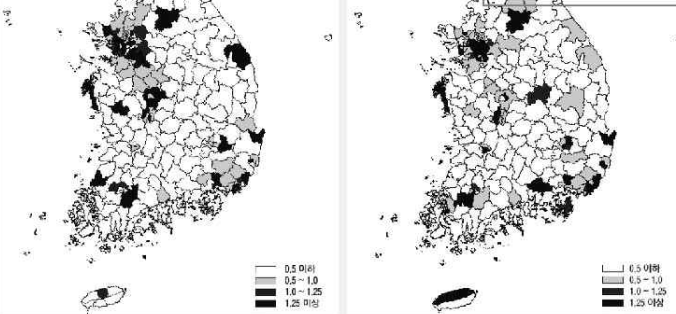
[무선통신융합산업 LQ 변화]
2000년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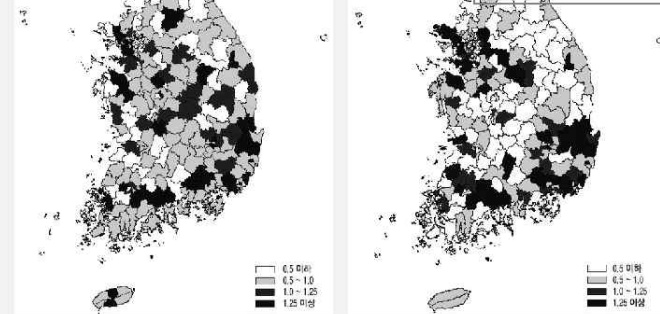
[메디바이오산업 LQ 변화]
2000년 / 2012년



[로봇자동화산업 LQ 변화]
2000년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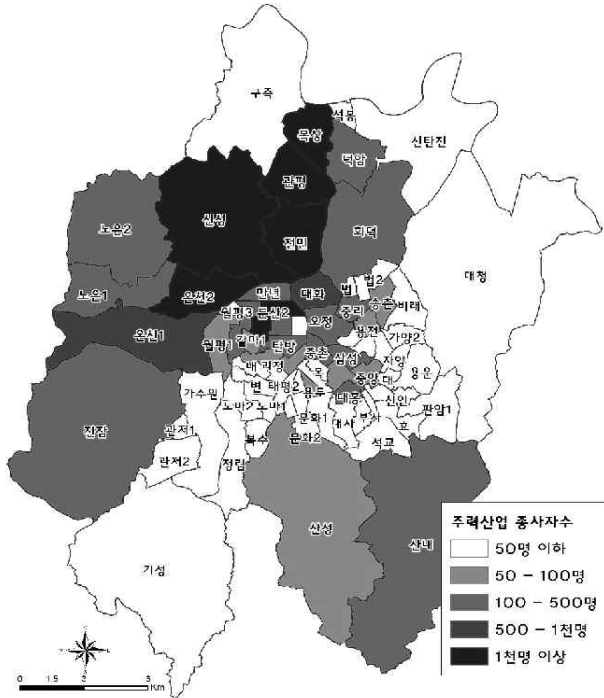


[금속가공산업 LQ 변화]
2000년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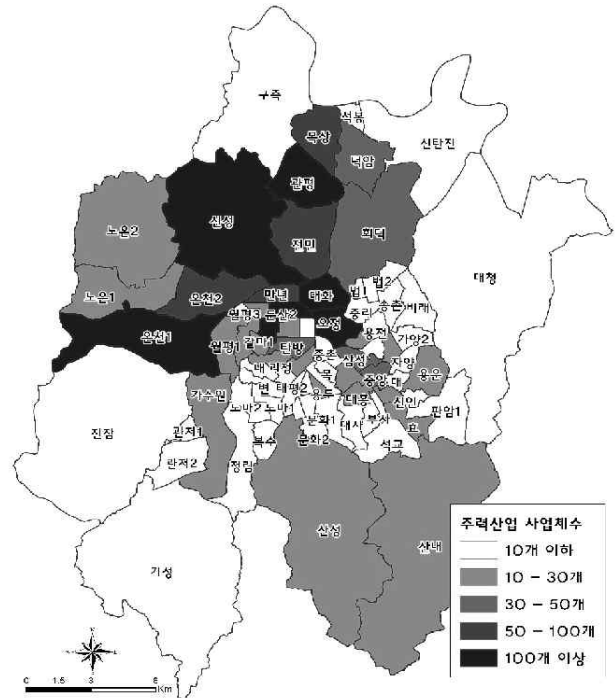


라. 주력산업

주력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사업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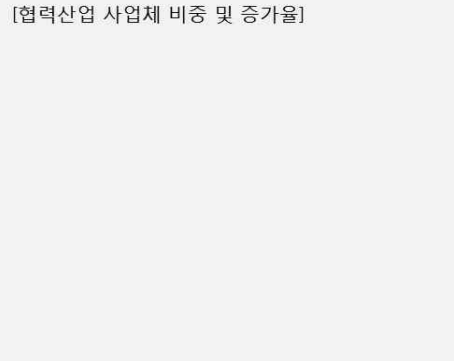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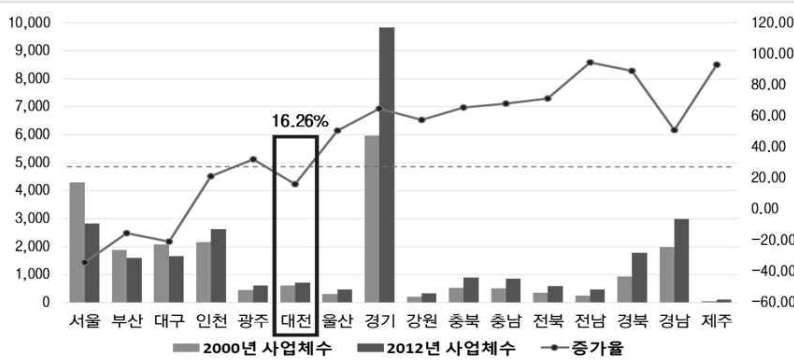


주력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종사자수 -



마. 협력산업

- 주요업종 : 기능성화학소재산업, 광전자부품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등 3개로 구분
- 비중 : 사업체수(722개, 전국대비 2.54%), 종사자수(10,161명, 전국대비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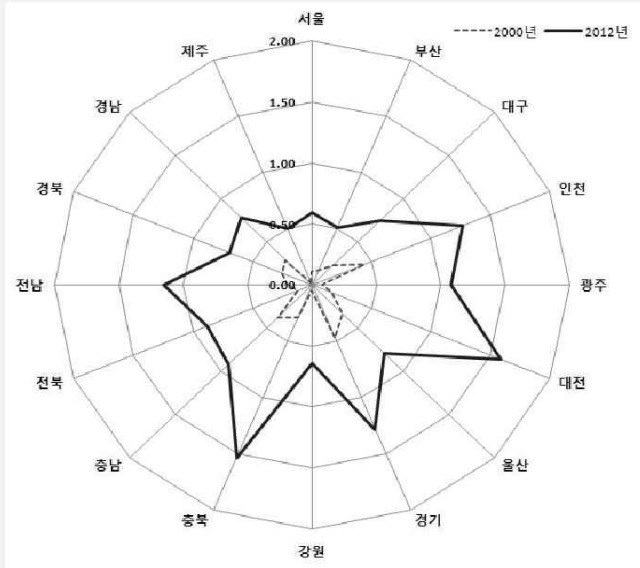


[협력산업 종사자 비중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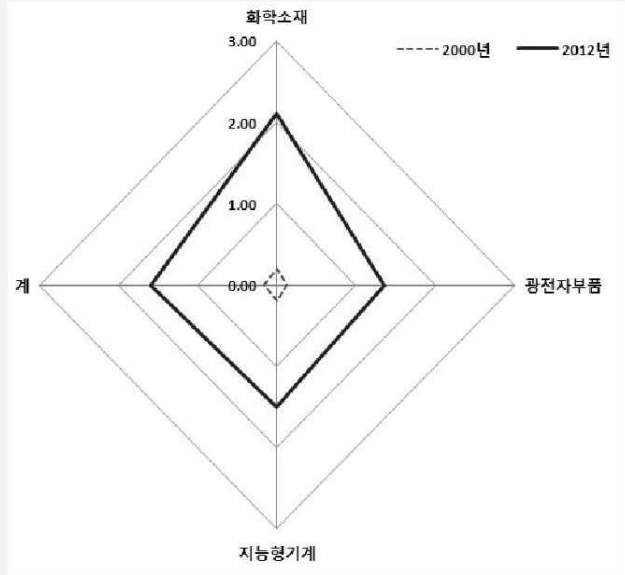
마. 협력산업

- 협력산업 특화도는 크게 증가 (0.16 → 1.59)
- 특화도 1 이상인 업종 : 화학소재, 광전자부품, 지능형기계 모두 해당

[협력산업 LQ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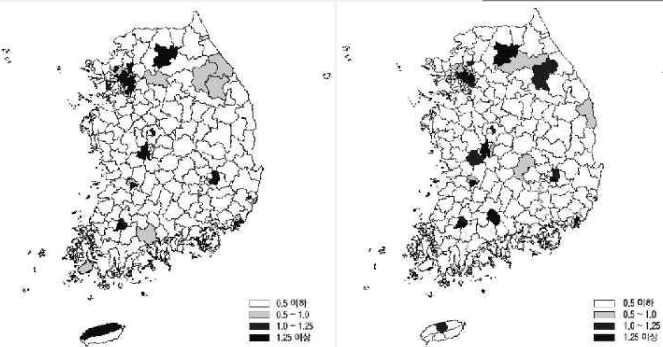
[협력산업 업종별 LQ 변화]



마. 협력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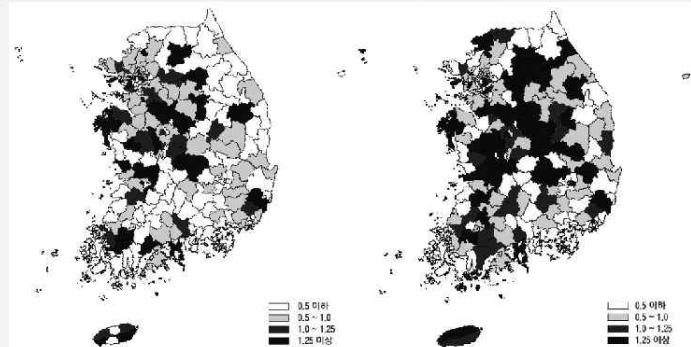
[지식재산서비스산업 LQ 변화]
2000년 / 2012년

서구(11위) LQ 11.379
중구(15위) LQ 6.892
유성구(38위) LQ 2.170
동구(78위) LQ 0.423
대덕구(143위) LQ 0.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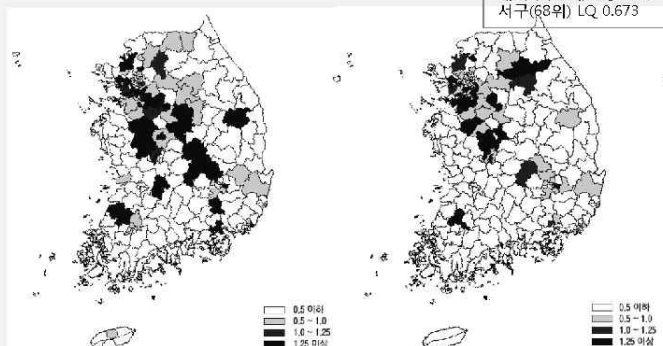
[기능성화학소재산업 LQ 변화]
2000년 / 2012년

유성구(7위) LQ 4.380
서구(41위) LQ 1.506
대덕구(66위) LQ 1.106
동구(91위) LQ 0.943
중구(176위) LQ 0.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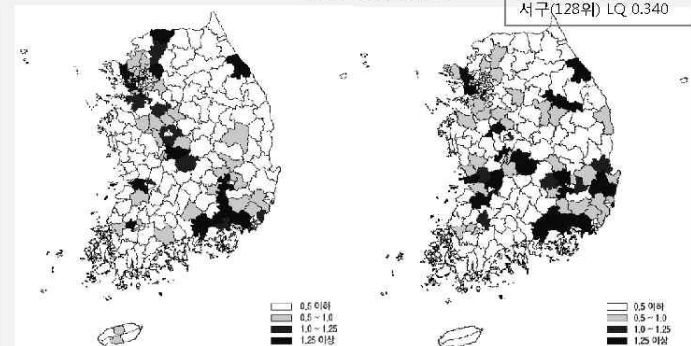
[광전자부품산업 LQ 변화]
2000년 / 2012년

유성구(11위) LQ 2.355
중구(26위) LQ 1.550
동구(48위) LQ 0.930
대덕구(52위) LQ 0.855
서구(68위) LQ 0.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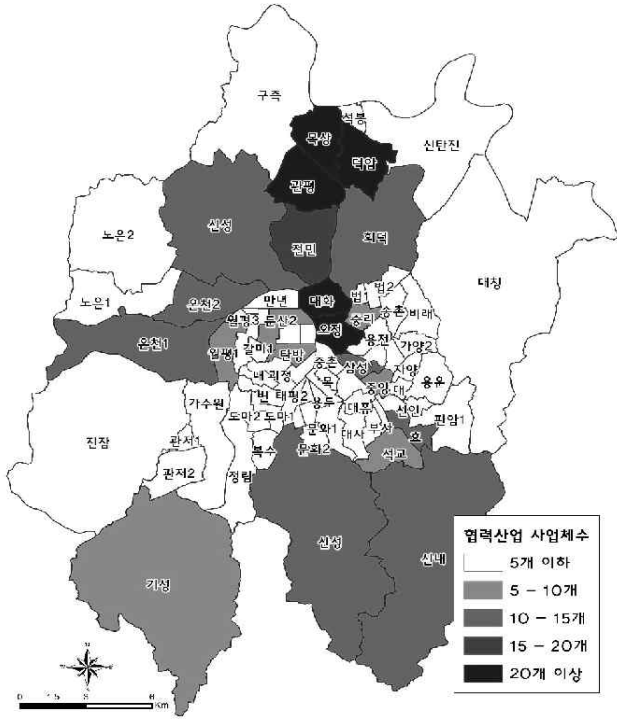
[지능형기계산업 LQ 변화]
2000년 / 2012년

유성구(13위) LQ 2.259
대덕구(27위) LQ 1.377
동구(59위) LQ 0.885
중구(77위) LQ 0.680
서구(128위) LQ 0.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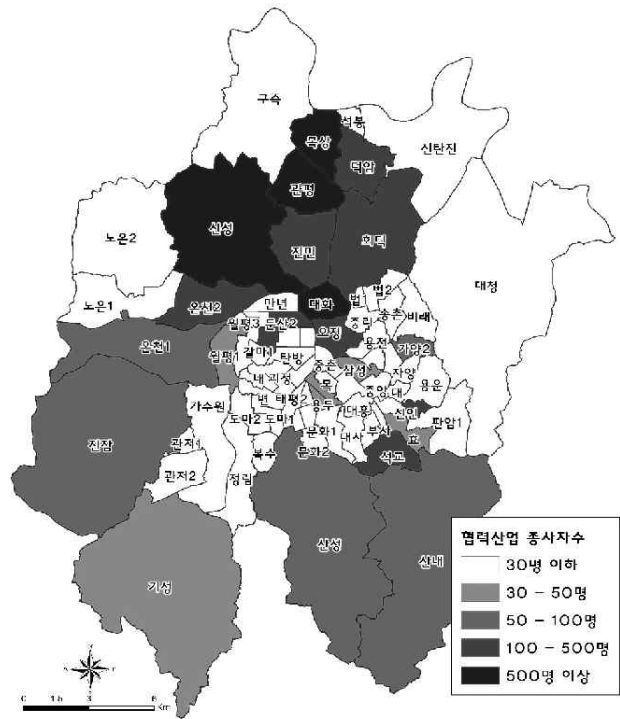


마. 협력산업

협력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사업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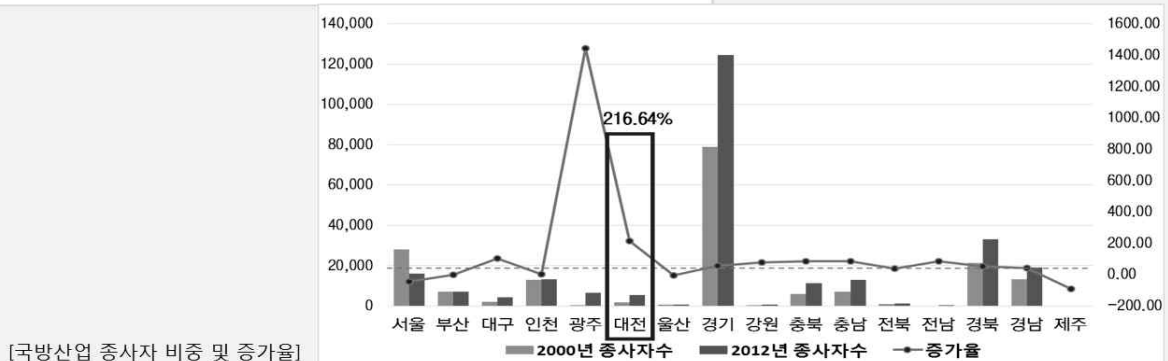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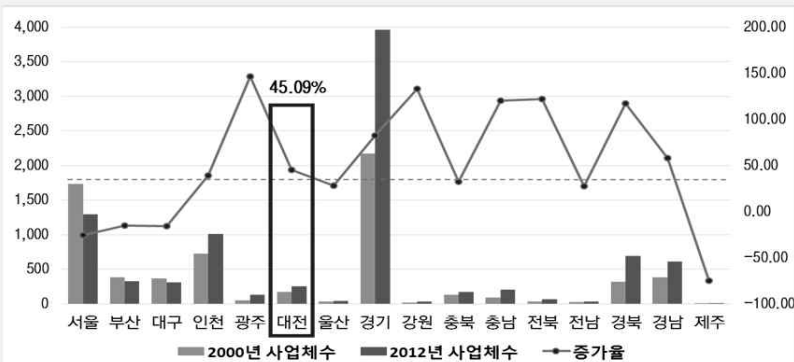


협력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종사자수 -



바. 국방산업(자체육성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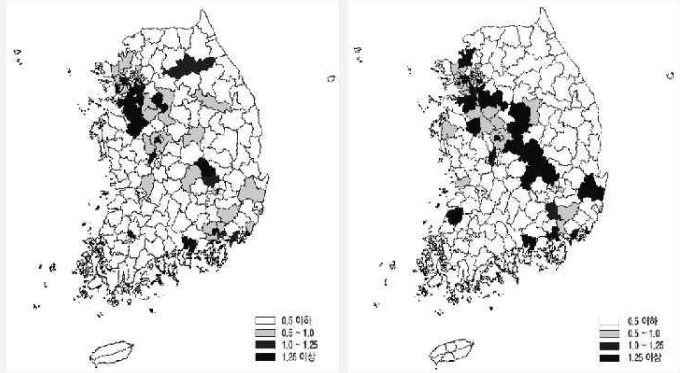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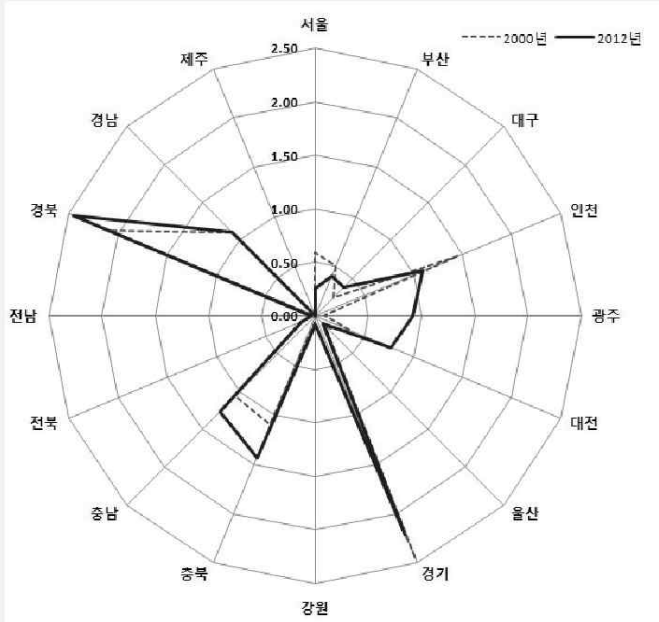
- 광주시, 대전시 지역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비중 : 사업체수(251개, 전국대비 2.74%), 종사자수(5,557명, 전국대비 2.15%)



바. 국방산업(자체육성산업)

- 국방산업 특화도 2배 증가(0.36 → 0.77), 집중적인 전략적 육성 필요
- 특화도 1 이상인 지역 : 경북, 경기, 충북, 충남, 인천

[국방산업 LQ 변화]



[2000년]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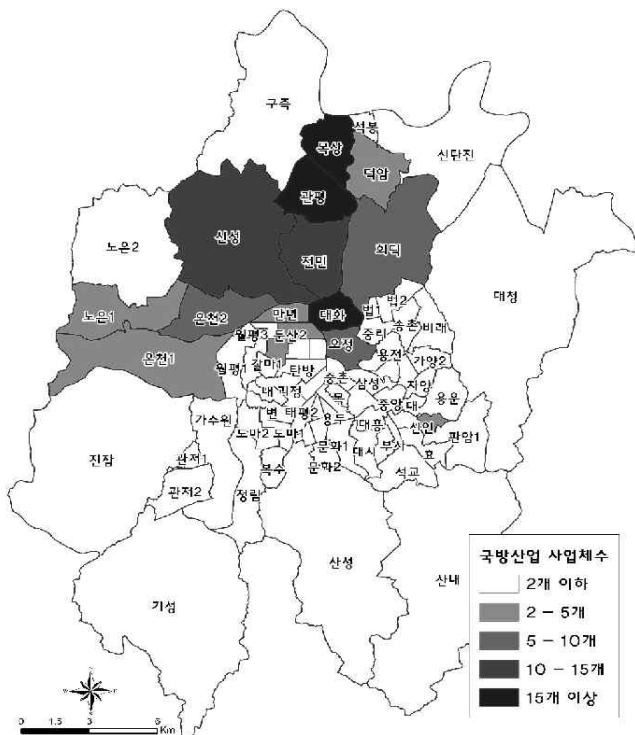
변이할당분석에서 순성장효과에서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을 포함하여 메디바이에 이어 2위에 해당되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유성구(8위) LQ 3.722
대덕구(83위) LQ 0.439
서구(84위) LQ 0.437
중구(87위) LQ 0.371
동구(113위) LQ 0.223

바. 국방산업(자체육성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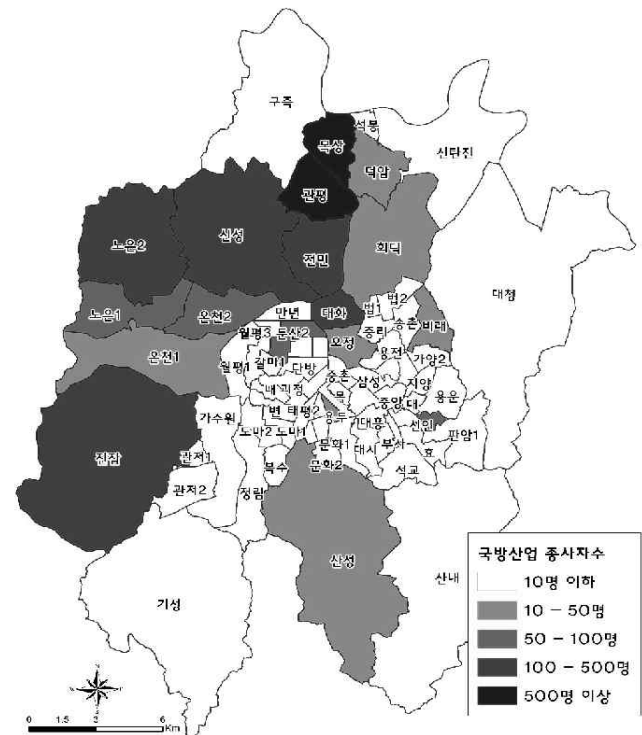
국방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사업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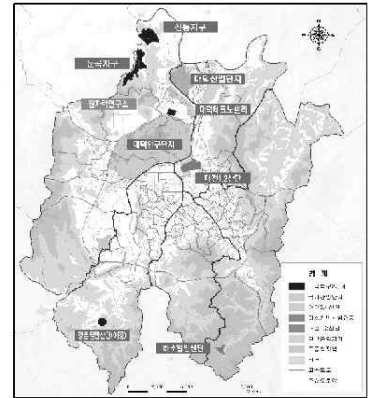
국방산업 분포 현황(2012년)

- 종사자수 -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현황

- 전체 지정면적 : 71,985천㎡ (미분양 면적 없음)
- 국가산업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면적 : 70,417천㎡
- 대전시 전체 산업단지의 97.8% 차지, 이 중 43,145천㎡(61.3%)는 녹지구역



[대전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 - 2013년 4분기 현재 (단위: 천㎡)]

구분	단지명	조성상태	지정일자	사업기간	지정면적	위치
국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중	1997-12	81~	70,417	유성구, 대덕구 일부
일반	대전제1	완료	1968-12-16	69~73	479	대덕구 대화동, 읍내동 일원
	대전제2	완료		75~79	777	
	하소	미개발	2012-02-11	12~	306	동구 하소동 일부
합계	-	-	-	-	71,985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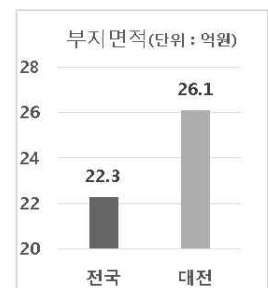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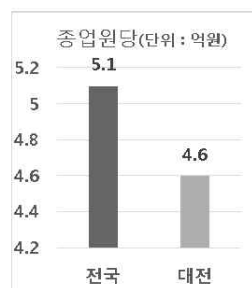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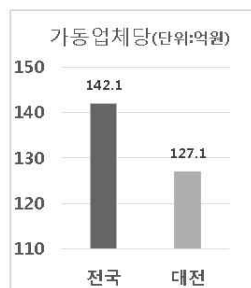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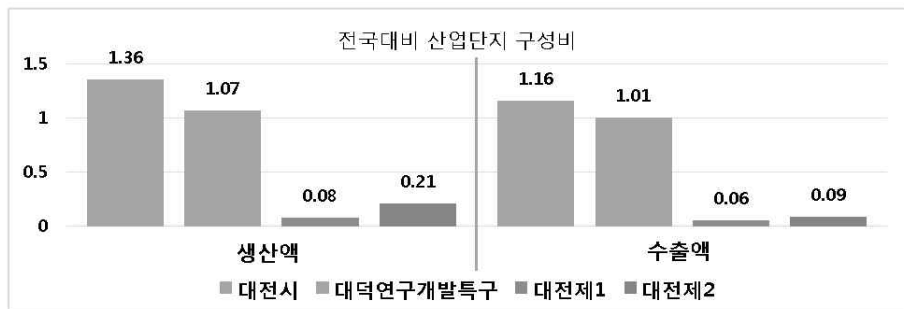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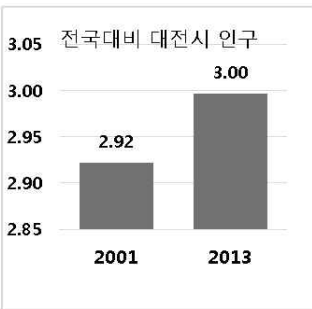
[대전 국가산업단지 - 2013년 9월말 현재 (단위: 천㎡, %)]

단지명	지정연도	사업시행사	지정면적	분양	미분양율
대덕연구개발특구	2005	토지주택공사, ㈜대덕테크노벨리, 실수요자 등	67,806	26,006	0.0
◇대덕연구개발특구(제1지구) <구:대덕연구단지>	1977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실수요자	27,781	15,393	0.0
◇대덕연구개발특구(제2지구) <구:대덕테크노벨리>	1991	(주)대덕테크노벨리	4,270	3,554	0.0
◇대덕연구개발특구(제3지구) <구:대전34일반>	1988	대전광역시	3,195	3,099	0.0
◇대덕연구개발특구(제4지구)	2005	-	28,600	0	-
◇대덕연구개발특구(제5지구)	2005	한국화학, 국방과학연구소	3,960	3,960	0.0



● 산업단지 생산액 및 수출액

-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로 생산액 67.0%, 수출액 114.3%(전국 평균 생산액 63.0%, 수출액 101.0%)
- 전국대비 생산액 및 수출액 구성비 : 각각 1.36%, 1.16%로 도시규모에 비해 취약한 제조업 기반구조
- 가동업체당 : 127.1 억원 (전국 평균 142.1 억원)
- 종업원1인당 : 4.6 억원(전국 평균 5.1 억원)
- 부지면적당 : 26.1 억원(전국 평균 22.3 억원, 공장부지면적이 적어 원단위 상으로는 전국평균치 보다 높음)



[산업단지 생산성 분석]

● 산업단지 개발 가능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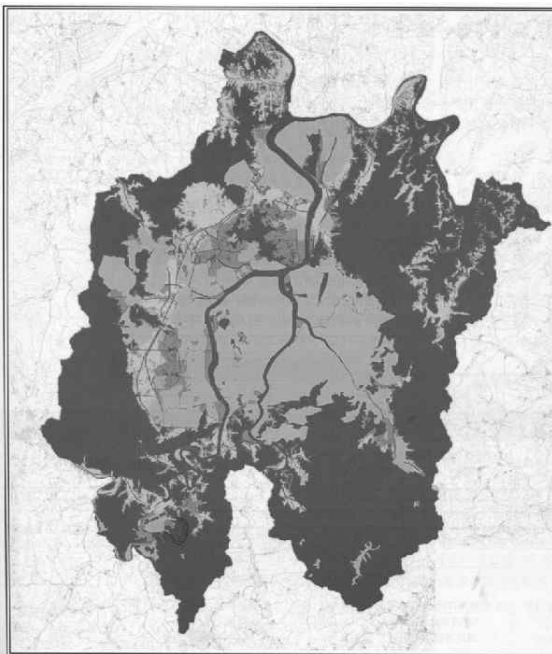
- 도시전체 면적 : 약 540 km²
- 기 개발면적 : 212 km²
- 순개발 가능 면적 : 11.8 km²
- 총 개발 가능 면적 (A) : 68.1 km² (GB 포함시)
- 실 개발 가능 면적(C) : 55.6 km² (총 개발 가능면적 (A) - 환경영향평가 1등급 (B) - 환경영향평가 2등급 지역(C))

[대전시 개발가능 면적 현황]

구분		면적(km)		비고	
도시전체 면적		540			
기 개발지 면적		212		개발예정 면적 포함	
순개발 가능 면적		11.8		GB지역 제외 시	
개발 가능 총면적 (A)		68.1		GB 해제 전제 시	
GB지역내 환경영향평가 등급	1등급 (B)	높음 ↑ ↓ 낮음	환경적 가치	1.2	보존적 가치가 제일 큰 지역
	2등급 (C)			11.3	1등급에 준하여 보존해야 할 지역
	3등급			26.1	
	4등급			15.5	
	5등급			2.1	
실 개발가능 면적 (D)		55.6		(A - B - C)	

● 산업단지 개발 가능 면적

[2030 도시기본계획 상에서의 개발 가능지]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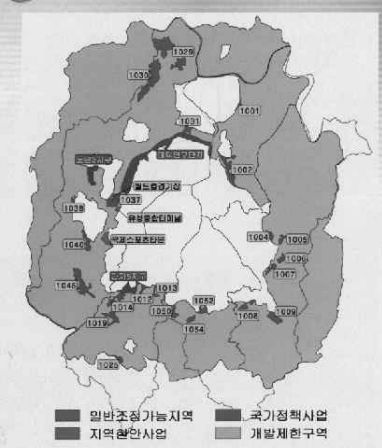
■ 대안영역외 동종구역외
 ■ 주거지
 ■ 공업지역
 ■ 개발제한지역
 ■ 도시개발지
 ■ 도시계획지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조정가능지역 지정현황

구분	도면번호	위치	면적(km ²)
소계	29개소		19,980
	23개소		13,358
일반조정가능지역	대덕구 1001	병천동	0.115
	1002	회덕1동, 방2동	1.080
	1004	유동1동	0.230
	1005	상정동	0.232
	1008	방1동	0.233
	1007	가오동	0.295
	1008	이사동	0.424
	1009	구노동	0.579
	1012	기수원동	0.204
	1013	정림동	0.190
	1014	관저동	0.587
	1019	봉곡동	0.646
	1025	방촌동	0.242
유성구	1029	국기신동	2.223
	1030	동곡구동	2.165
	1031	관평동	0.305
	1037	장대동, 구암동	0.771
	1038	김동	0.117
	1040	화양동	0.465
	1045	성북동	1.453
	1050	인영동	0.290
	1052	부소동	0.288
	1054	침산동	0.244
국가정책사업	소계	3개소	5,862
	대덕연구단지	죽동	4,440
	서구 유성구 노은3지구	관저동	0.684
지역합의사업	소계	3개소	0.740
	월드컬링기장	노은1동	0.172
	유성구 유성정충합터미널	노은1동	0.108
유성구 유성소초터미널	진잠동	0.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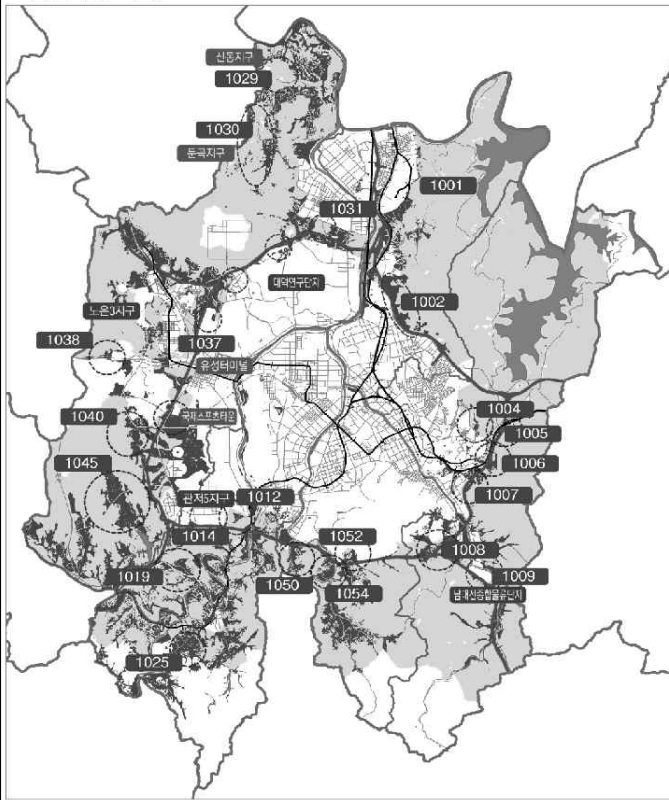
● 조정가능지역 지정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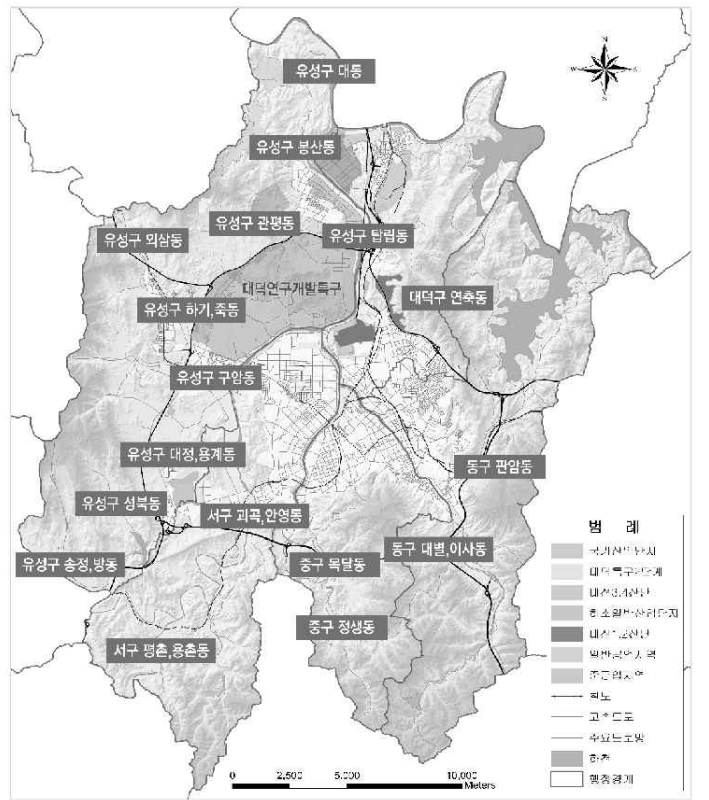
[대전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 조정가능지역, 2006.]

● 산업단지 개발 가용 면적

[개발가능 지역]



[계획 수립 가능 지역]



● SWOT 분석

Strength

-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입지의 최적지
- 특구의 첨단기술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크 환경 구축
- 우수한 연구기반 및 사업기반의 구축
- 최고 수준의 기술융합 능력 보유
- 집적된 혁신인프라의 높은 활용가능성
- 지리적 접근의 용이성
- 우수한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
- 쾌적한 주거환경 및 우수한 연구교육 인프라

강점

Weakness

- 취약한 제조업 기반구조로 지속적인 도시성장에 한계
-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업중 위주의 산업구조로 외부 충격에 약함
- 제조업기반의 산업정책 진흥 노력 부재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정체 심화
- 전국 대비 낮은 제조업 성장률 및 산업용지 공급 부족
- 기업유치 유인력 부족에 따른 기업입지 매력도 저하
- 선도기업의 부재(제조 관련 대기업의 부족)
- 혁신지원기관과 산단내 기업간의 네트워크 취약
- 금융 및 컨설팅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취약

약점

Opportunity

- 지식기반사회 및 첨단산업기반의 산업생태계 도래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 변화(생산공간 복합공간)
- 도심지내 기업입지 요구증대(기업체의 도심 U턴화 가속)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대변화
- 규제완화 및 도심첨단산업단지 조성확대
- 노후산단의 재생 및 기술고도화사업 지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유치업종 전환 확대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한 기초원천 연구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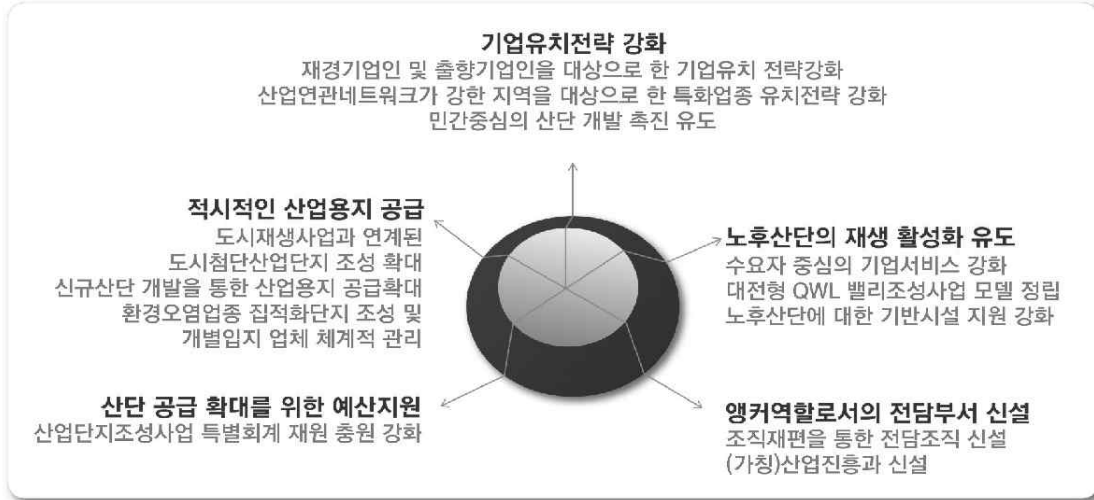
기회

Threat

- 산업체의 수도권 집중 심화 및 일부 강원 및 충청권으로의 수도권 확대
-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세력권(대도시권) 약화
- 세종시 및 오송·오창 등 주변지역에 대한 산업입지 수요 증대
- 점차 약화되고 있는 연구개발 특화도
-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용지 한계 도달 및 정부정책의 특구남발에 따른 연구인력 이탈 등

위협

● 산업입지 정책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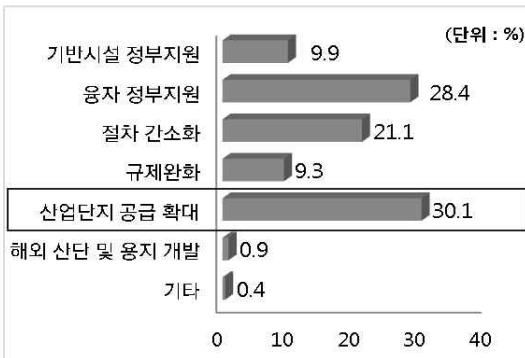


대전시의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환경구축을 통해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성장발전을 견인

6. 산업입지 공급 활성화 방안

● 적시적인 산업용지 공급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프랑스 / 소피아 앙티폴리스

자연적으로 형성된 프랑스의 대표적 산업단지

-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언어권이 파란단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첨단기술 집적지구, 그리고 연구와 기술혁신 및 역량개발이라는 3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테크노폴리스를 종합한 모델임
-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관리책임은 공공기관인 SYMISA에 있으며, SYMISA는 지방자치·상공의역사지체도시 등으로 구성됨

“산책로, 자전거도로등에 따복지 적용으로 쾌적성과 저탄소에너지 사용등 친환경성을 증시함”

핀란드 / 아라비안인더스트리 / 암미르비 저스투드

바려진 오래된 공업단지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 태양열, 바람, 지열 및 단지 내 발전된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 예술(디자인 대학)과 산업(기업), 주거(주민)가 커뮤니티로 밀접한 관계
- 녹색비중 증대, 경전철을 설치, 자전거도로 활성화로 탄소없는 단지계획

“경전철, 자전거이용과 같은 지속가능한 무탄소 단지 계획, 태양열, 지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활용 계획”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 주거, 연구개발, 도시지원서비스가 용이한 도심지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창출
- 청년층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공유형 임대산업공간을 저렴하게 공급

영국 / 캠브릿지 테크노폴

1970년대 이후 설립된 영국의 첨단산업 집적지

- 정부나 대학본부의 개입 없이 대학 내의 결과지가 주도가 되어 조성, 성장한 것이 가장 큰 특징
- 1980년대 중반까지 첨단기술 집적지로서 표면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첨단분야의 산업이 정착하였고 분야를 초월한 산업 네트워크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자생적으로 첨단산업이 집적지로 성장하였으며 녹지를 40% 이상과 쾌적한 주거지가 연계된 장점을 보유함.”

싱가폴 / 윈 노스

싱가폴의 미래산업단지

- 단지 고유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겸비한 시설물을 개발 단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ICON을 개발하여 다양한 공공기공사업에 적용 산업단지를 상징하는 조형물 도입, 경제성을 확고히 하여 대외 홍보에 활용
- 무재폐의 동인된 가로경관 조성으로 고교스틸과 세련된 아이치 연출
- 컬러를 이용한 공간구분 계획 적용, 지역 영태를 CI 브랜드화

“단지 고유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접목한 시설물을 개발하여 일관성 있는 상징체계 정립”

● 적시적인 산업용지 공급

□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과 도시문화 창출을 통한 우수 인력 및 자본의 유출 최소화, 유입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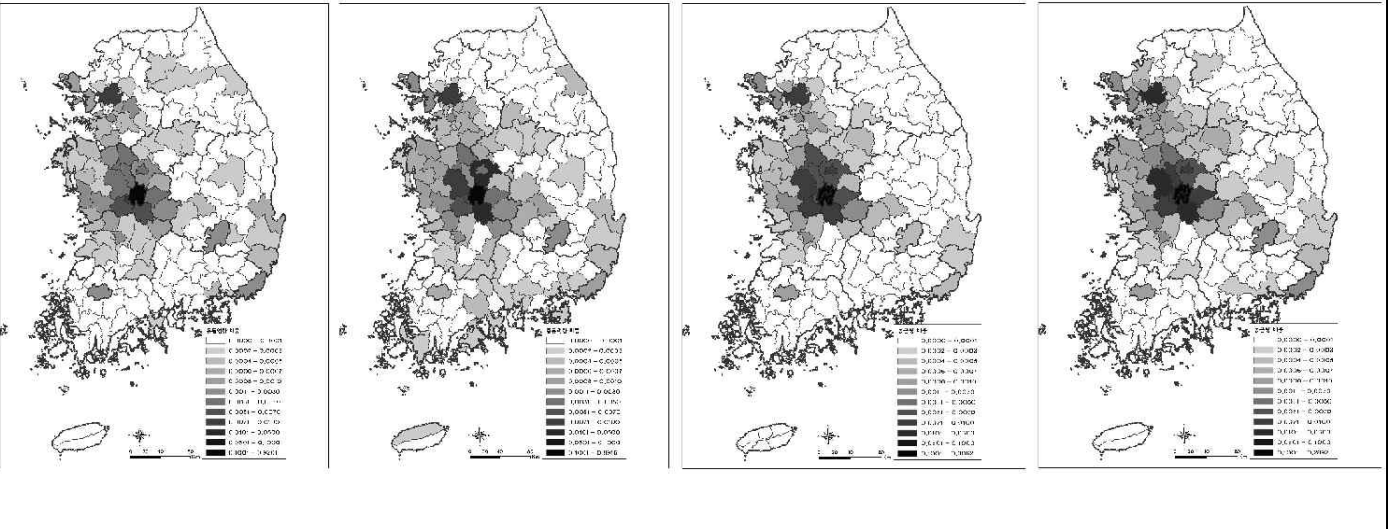
▪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총통행량 및 통근량 비중 변화(2005년/2010년)

[2005년 대전시 총통행량 비중]

[2010년 대전시 총통행량 비중]

[2005년 대전시 통근량 비중]

[2010년 대전시 통근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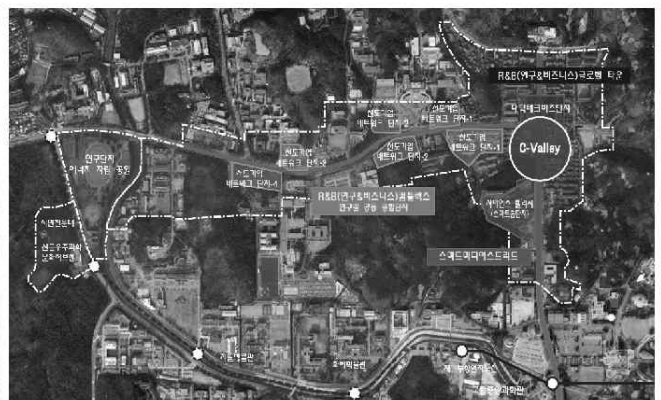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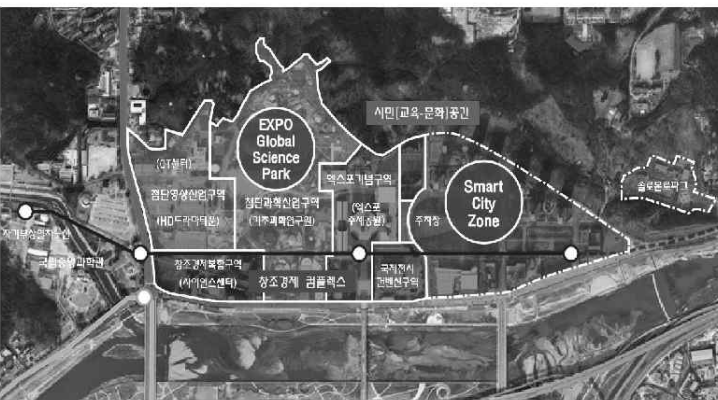


● 적시적인 산업용지 공급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도시점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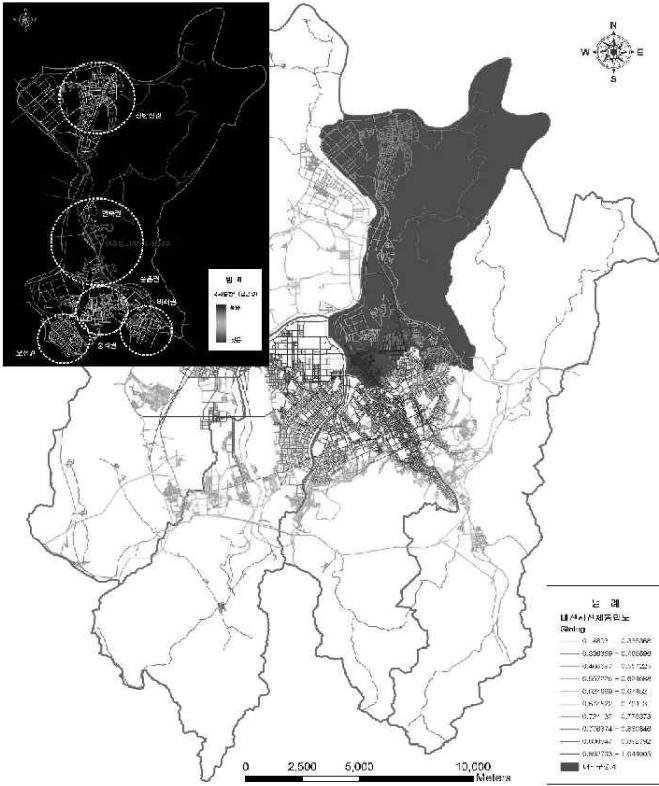
대덕연구단지특구 재생사업_ 미래창조과학융합단지 조성 사업(예시)

- 사업추진 필요성
 - '93년 엑스포 개최 이후 과학을 주제로 공원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새로운 기능 및 역할 정립의 필요성 대두
 - 대덕연구개발특구내의 엑스포과학공원, DCC, 국립중앙과학관과 둔산대공원 일대의 문화, 여가자원시설과 연계되는 계획적 개발로 연구비즈니스기반확보 및 문화복합공간으로의 재창조 필요성 증대
 - 「국세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 수행을 위해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기초과학연구 전담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설립을 통해 기초연구-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창조경제전진기지로써의 기반환경 구축 필요
- 사업추진의 주요점 및 주요사업 내용
 -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대덕특구와 과학벨트가 연계된 창조경제 클러스터 구축 및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로써 기능과 역할 부여
 - 기초과학연구원의 과학기능과 시민 교육, 문화 공간, IT미디어단지, 비즈니스 문화 융합 단지 기능 등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 기초과학연구원과 대덕특구의 연계 협력 확대 강화를 통해 대덕특구내 출연(연)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연구 기반환경을 제공
 - 키즈마케팅 특화전략으로서 체험형 사이언스 관광루트(키즈창의과학문화캠프존)의 개발과 주변 자원 및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 이미지 강화
 - 인접한 대전시민천문대, KAIST, 화백박물관, 지질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IBS, 솔로몬로파크,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등을 연계한 키즈투어 체험코스 개발
 - 사업은 크게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를 위한 1단계 사업과 1단계 사업과 연계되는 배후 기능지구로서 도룡동 창조경제 특화융합벨리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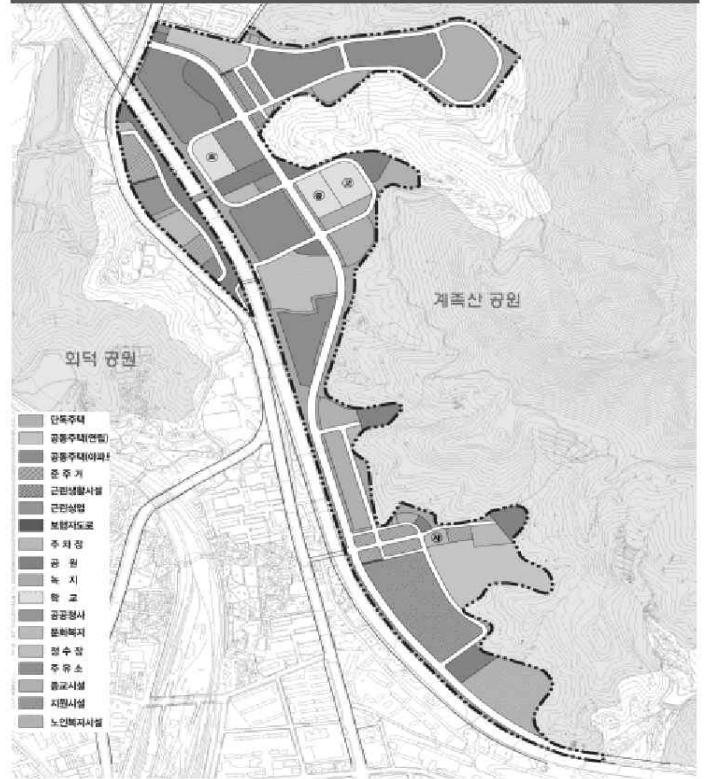
● 적시적인 산업용지 공급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을 도모한다면?”



● 신규 산단 개발을 통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

- 목표년도 2020년까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적정 공급면적은 연간 728천㎡ (순공급면적 :6,400,114㎡ + 추가공급면적 : 880,000㎡ = 7,280,114㎡/7년 x 0.7[계획입지비율])
- 산업용지 개발소요 총면적은 약 5,096천㎡(목표년도 2020년 기준)
- 현재 개발 중인 분양예정 면적(공급면적)은 약 1,690천㎡로 약 3,406천㎡ 과부족(국토부 자료 대전(△2,711))

[대전시 생산액 및 산업용지 수요 추정 수정안, 2014년, 단위 : 천㎡]

구분	연간 계획입지 총 소요			연간 개별 입지 소요	합계 (산업입지 총소요)
	순소요	추가소요	소계		
대전	640	88	728	312	1,040

년도별 산업용지 공급계획 (단위: 천㎡)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수요		5,096	728	728	728	728	728	728	728		
합계		5,096	210		1,480	651		639	2,116		
공급	완료	특구1단계(죽동/신성/양현)	-							531(2013년 조성완료)	
	추진중	특구2단계(문지)	56	56							
		하소산단	154	154							대체산단
		평촌산단	449			449					대체산단
		특구3단계(둔곡/신동)	1,031			1,031					
소계		1,690	210		1,480						
향후	A지구	651				651					
	B지구	639					639				
	C지구	2,116							2,116		
	소계	3,406				651		639	2,116		

[입지유형별 공장용지면적(2013) (단위: 천㎡)]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계획	개별	계획	개별	계획	개별	계획	개별	계획	개별	계획	개별
계	-	132	-	88	-	252	3,182	153	2,992	1,621	6,174	2,247
C10	-	27	-	10	-	11	1	28	214	54	215	130
C11	-	1	-	-	-	87	-	-	68	7	68	95
C12	-	-	-	-	-	-	-	-	18	389	18	389
C13	-	5	-	2	-	4	-	0	117	59	117	70
C14	-	5	-	8	-	11	-	-	7	2	7	26
C15	-	0	-	1	-	0	-	-	5	15	5	16
C16	-	1	-	3	-	5	-	0	9	24	9	33
C17	-	6	-	1	-	13	-	6	528	119	528	144
C18	-	9	-	5	-	2	-	5	4	-	4	21
C19	-	-	-	-	-	-	-	-	-	32	-	32
C20	-	2	-	4	-	1	1,282	5	273	43	1,555	56
C21	-	0	-	-	-	-	102	1	74	17	176	18
C22	-	9	-	2	-	5	0	53	155	314	155	384
C23	-	1	-	24	-	50	0	14	5	169	6	258
C24	-	2	-	1	-	4	32	-	117	72	149	79
C25	-	19	-	1	-	11	112	16	222	73	333	120
C26	-	9	-	4	-	6	482	6	139	27	621	52
C27	-	3	-	5	-	1	188	4	42	7	230	19
C28	-	11	-	5	-	9	455	3	109	23	564	50
C29	-	11	-	7	-	32	434	10	268	105	702	164
C30	-	-	-	-	-	-	44	1	437	60	481	61
C31	-	-	-	-	-	-	50	-	50	2	100	2
C32	-	8	-	1	-	1	-	0	17	4	17	15
C33	-	3	-	5	-	2	0	0	114	3	114	14

주: 식료품 제조업(C10), 용료 제조업(C11), 담배 제조업(C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류,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구 제조업(C32), 기타 제품 제조업(C33)
 자료: 국토교통부, 2013년 기준 공장등록통계현황

□ 환경오염업종 집적화 단지 조성 및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

- 대전시의 제조업체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면적 비율은 약 7.3 : 2.7의 비율
- 개별입지 면적 비중이 높은 업종은 담배제조업(C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식료품 제조업(C10)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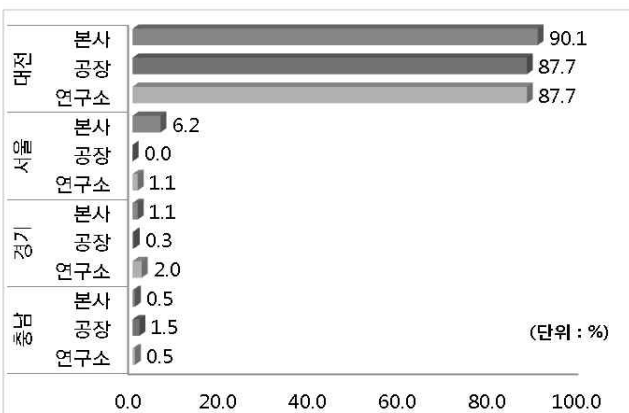
배출오염업종 대체 이전단지의 조성 및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용한 산업집적화 유도

● 기업유치 전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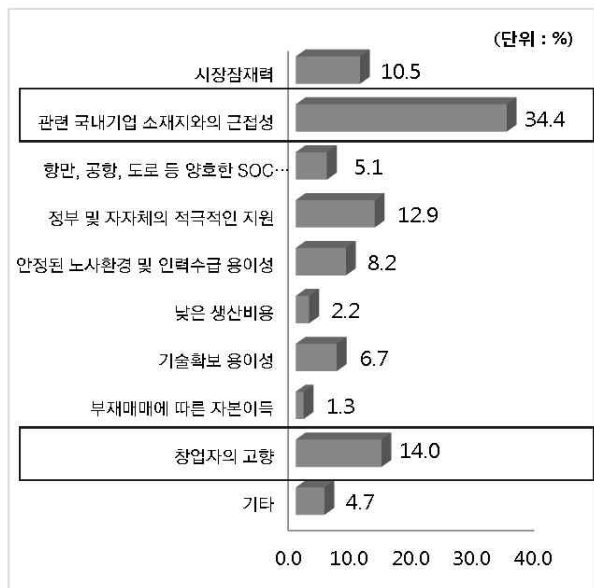
□ 재경기업인 및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 전략 강화

- 대전 소재 제조업체 대부분(91.2%, 설문응답결과)이 지역내 설립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주 기반 역시 대전에 소재를 둔 경우가 대부분
- 서울 및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유치전략 강화 마련 필요
-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 관련 산업입지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기업서비스 제공

[현 사업장 소재지]



[대전 입지결정시 중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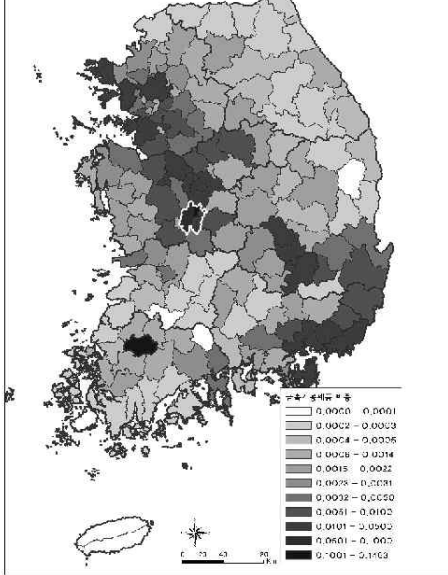
● 기업유치 전략 강화

□ 산업연관네트워크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화업종 유치전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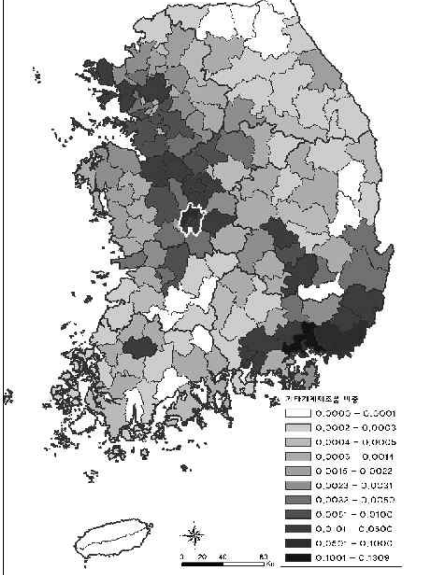
- 금속가공제품(사업체기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종사자 및 출하액 비중)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사업체, 종사자, 출하액 비중)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출하액 및 종사자 기준)
-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성장잠재력 측면)

“전략적 타겟 유치업종 및 유치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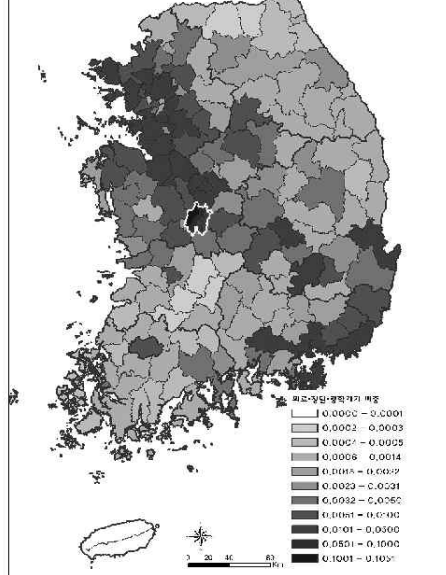
[금속가공제품 물동량 비중]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물동량 비중]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물동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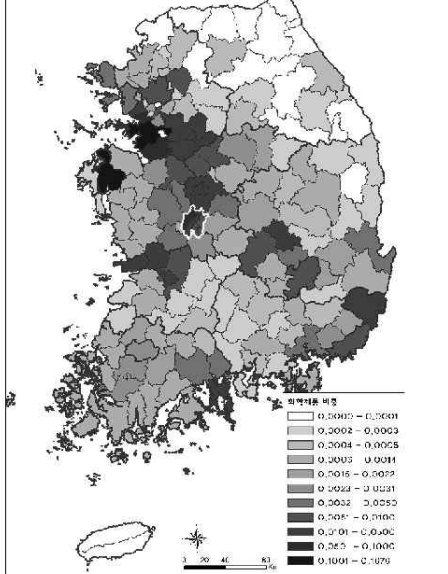
● 기업유치 전략 강화

□ 산업연관네트워크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화업종 유치전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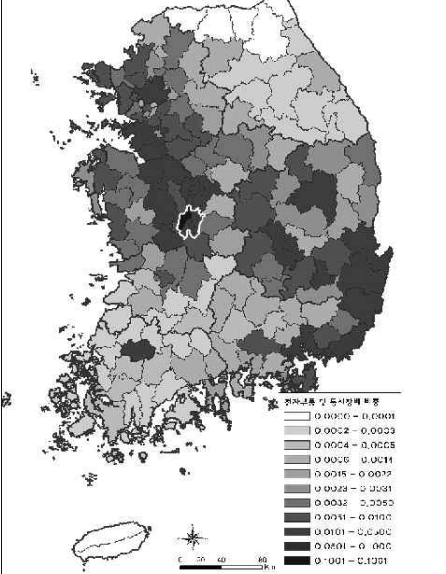
- 금속가공제품(사업체기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종사자 및 출하액 비중)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사업체, 종사자, 출하액 비중)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출하액 및 종사자 기준)
-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성장잠재력 측면)

“전략적 타겟 유치업종 및 유치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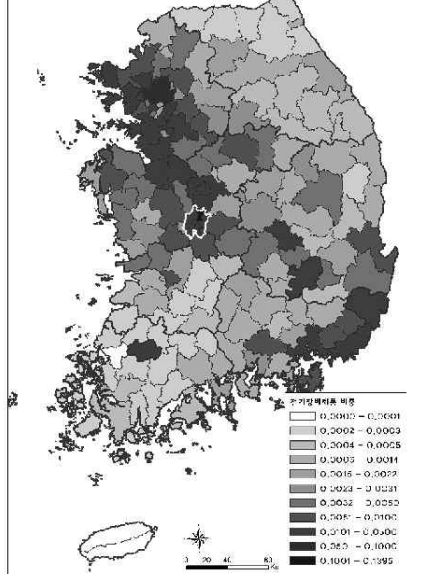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물동량 비중]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물동량 비중]



[전기장비제조업 물동량 비중]



● 기업유치 전략 강화

□ 민간중심의산단 개발 촉진 유도

- 민간개발업자가 산업단지 개발시 적정 이윤율 상향 보장(기존 6% → 14% 상향)
- 수요자 중심의 중소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유도

[선분양 사례]

-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조성된 명례일반산업단지는 전국 최초의 선분양 후착공 산단 개발 사례임
- 입주예정기업들이 직접개발사업을 위한 특수회사(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를 만든 뒤 국비 확보와 보상, 공사까지 자력으로 개발 완료
- 전체 사업비 3천 184억원 가운데 550억원 국비를 확보해 공장부지 가격을 100만원대 초반으로 낮추어 산업용지를 공급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사례]

- 이천 대월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천시가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
- 입주예정기업 5개사와 사전 입주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지 분양을 완료
-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모델을 적용, 개발 초기단계부터 입주희망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 토지이용계획, 업종배치계획, 공원 및 지원시설용지 위치조정, 폐수연계처리 등
- 입주희망기업의 부지요구면적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고, 비공해업종에 불필요한 시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업비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 효과 거둠



●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

□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 민간 생산자서비스의 공급기반 매우 취약
- 공공부문의 기업지원서비스 확대 전략
- 대전TP,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등의 중간지원 조직 역할이 매우 중요

□ 대전형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사업 모델 정립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
-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 생활의 질 향상 도모
- 창조과학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 연구마을 지원사업 등 기존사업과 연계 가능한 대전형 QWL 모델사업 전개

□ 노후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강화

-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확충



● 산단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재원 총원 강화

- 경기에 민감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서비스업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 필요
-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
- 막대한 초기자본투자가 요구되므로 공공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
- 민간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산단개발시 공공출자 지분 확보가 반드시 필요
-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추가적 예산 확충이 필요

[대전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현황, 2013.12]

구분	자산액(단위 : 억원)	비고
특별회계 현금보유	317	
일반회계 전출금	264	2009 - 2010년 전출
매각대상 공유재산	346	4필지 55천㎡
합계	927	

- 현 산업단지 특별회계 총 자산은 약 927억원으로 추정
- 특별회계 현금보유액은 317억원 정도임
- 2020년까지 총 소요 추정예산액은 2,183억원으로 예상

● 산단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 초기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
- 운용 가능한 총예산 927억원의 조기집행 및 과부족 1,520억원의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필요
-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관련 예산 확보

〈총 소요 예산 내역〉

산업단지 년도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총 소요예산액 (현금보유액+매각대상 공유재산+일반회계 전출·전입금)							세입			
		대전산단 재생사업	하소산업 단지조성	평촌산업 단지조성	A 지구	B 지구	C 지구	산단 관리	소계	현금	전입	토지 매각
2014	227	150	50	20	5	-	-	2	227	99	128	
2015	333	200	62	49	20	-	-	2	333	95	238	
2016	278	200	-	40	30	5	-	3	278	98	158	22
2017	414	320	-	30	30	30	-	4	414	25	215	174
2018	235	-	-	-	115	110	5	5	235	-	165	70
2019	315	-	-	-	100	180	30	5	315	-	275	40
2020	381	-	-	-	-	-	375	6	381	-	341	40
계	2,183	870	112	139	300	325	410	27	2,183	317	1,520	346

※주: 일반회계전입금 = 일반회계 전출금(264억) + 순전입금(1,520억)
순전입금 : 산업단지 특별회계 보유자금 집행 후 부족한 소요사업비

● 앵커역할로서의 전담조직 신설

□ (가칭)산업진흥과 신설

- 산업단지 공급확대 및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 필요
- 6대 도시 및 경기도, 충남의 경우 대부분 최소 과급 단위 이상에서 산업입지 및 관리업무 총괄
- 업무분장 및 담당인력 구성의 경우, 부산시는 산업입지과 내 14명, 대구는 산업입지과내 22명, 울산시는 산업진흥과 및 투자지원단에 41명이 업무를 담당
- 대전시는 현재 12(신규조성, 특구지원, 과학 기존산업단지 관리)명이 담당

● 앵커역할로서의 전담조직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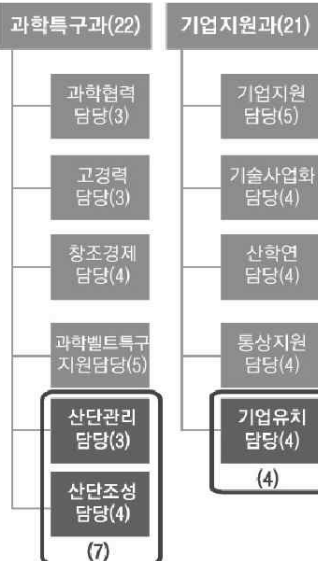
□ (가칭)산업진흥과 신설

- 산업용지의 적시 공급
- 개별입지 공장의 효율적 관리
- 첨단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확대
- 기업 유치 및 지원

산업진흥과(총 10명)



산업진흥과	업무인력	직렬구성	총원
소 계		기술4 or 행정4(1), 행5(1) 행·토5(1), 행6(4), 행7(2) 토5(2), 토6(5), 토7(2) 공5(1), 공6(2)	21인
과 장	부서업무 총괄(1)	기술4 or 행정4 (1)	1인
1.산업기획	총괄(1), 산업동향분석(1), 용지공급계획(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1) 특별회계 관리(1)	토·행5(1), 행6(1), 토6(2), 행7(1)	5인
2.기업유치	총괄(1), 기업유치(1), 기업지원(1), 컨택센터지원(1)	행5(1), 행6(3)	4인
3.산단계획 조성	총괄(1), 일반산단조성(1), 도시첨단 산단조성(1), 산업단지(도로, 용수, 오페수)지원(1)	토5(1), 토6(2), 토7(1)	4인
4.대전산단 재생	총괄(1), 개발계획변경 및 정비지원(재생사업)(1), 준산업단지 정비(개발입지)(1)	토5(1), 토6(1), 토7(1)	3인
5.산단관리	총괄(1), 산단관리(2), 공유재산(1)	공5(1), 공6(2), 행7(1)	4인





감 사 합 니 다

대전시의 산업입지 여건 및 산업단지
공급 혁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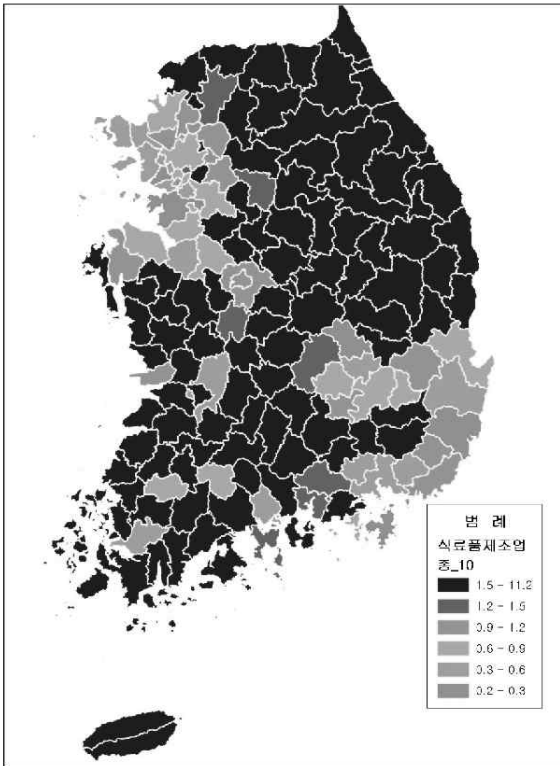
2014.10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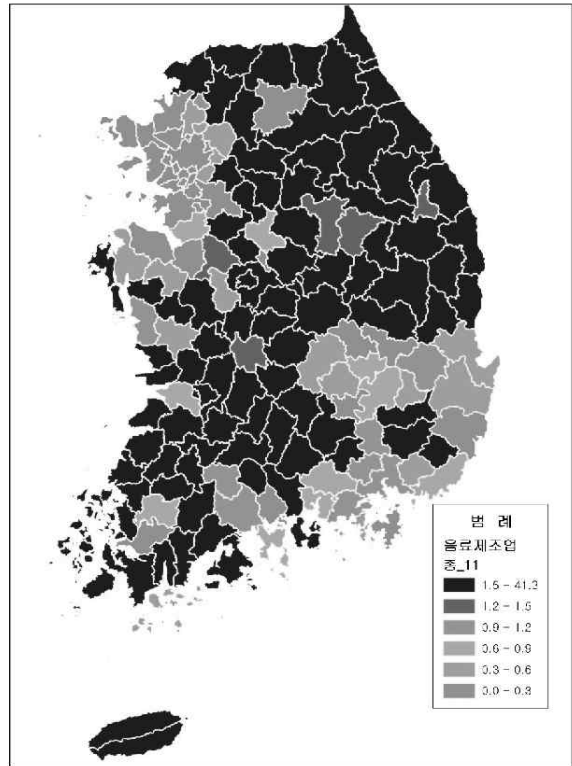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식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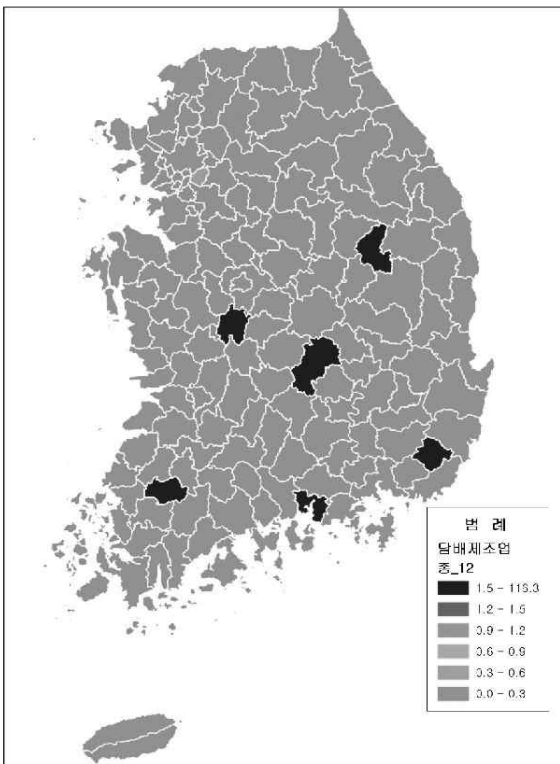
[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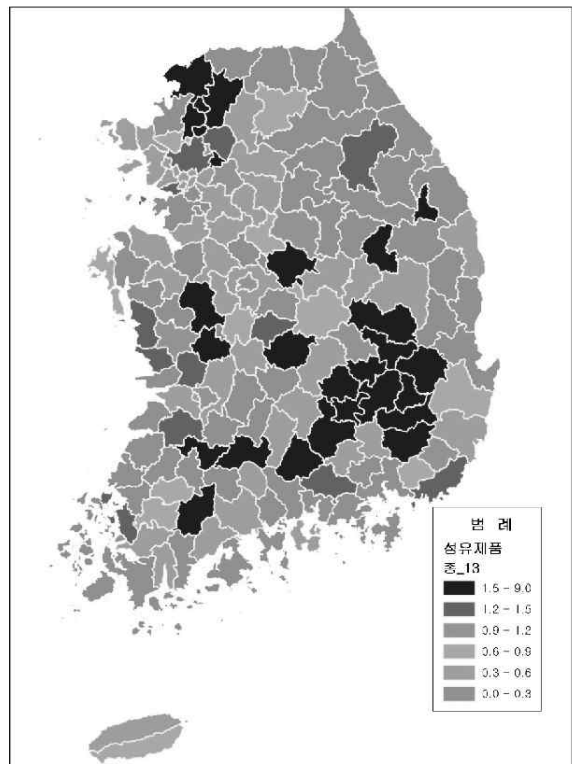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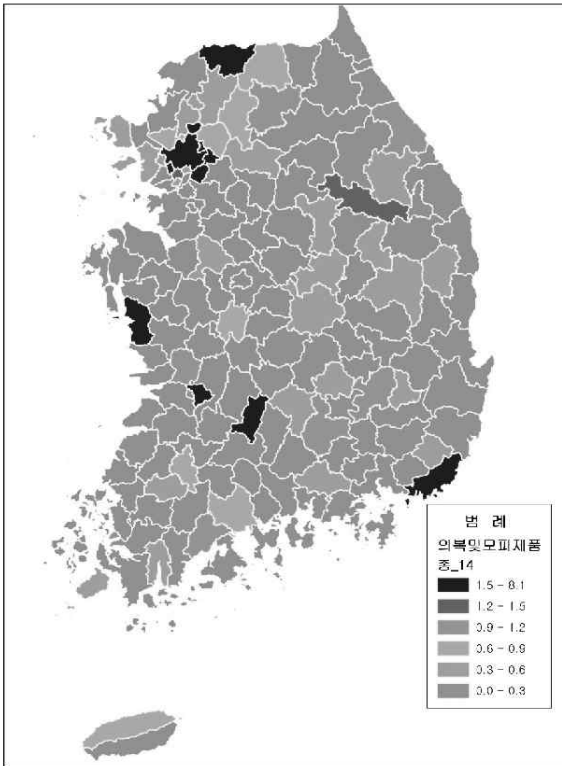
[섬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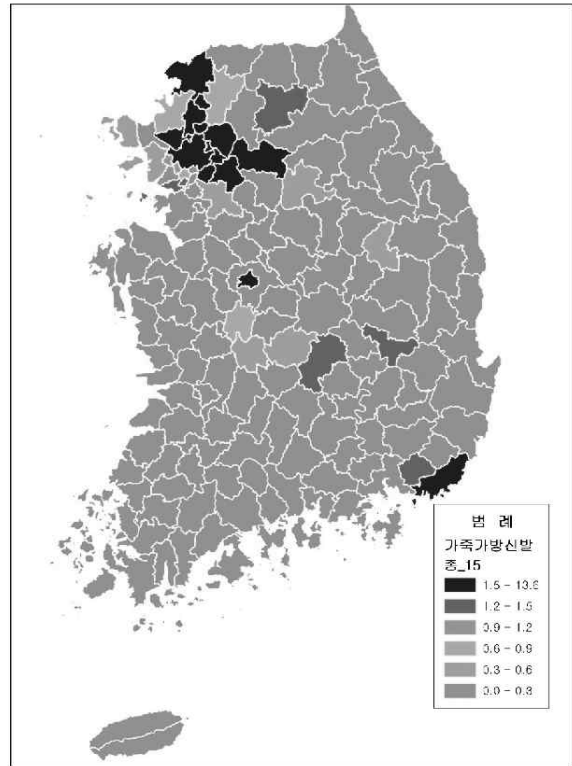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의복및모피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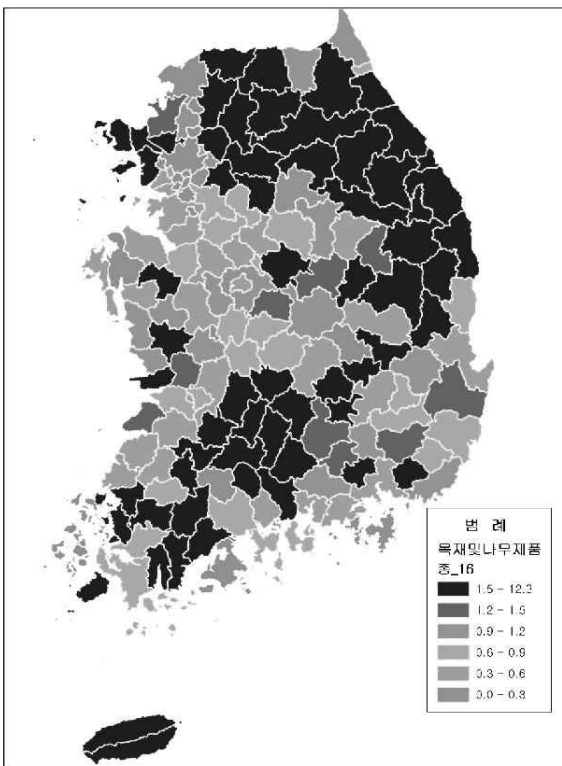
[가족가방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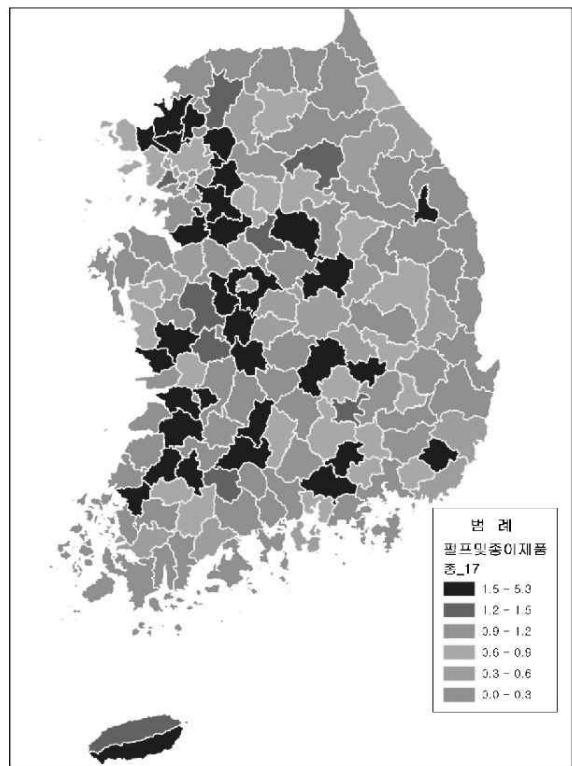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목재및나무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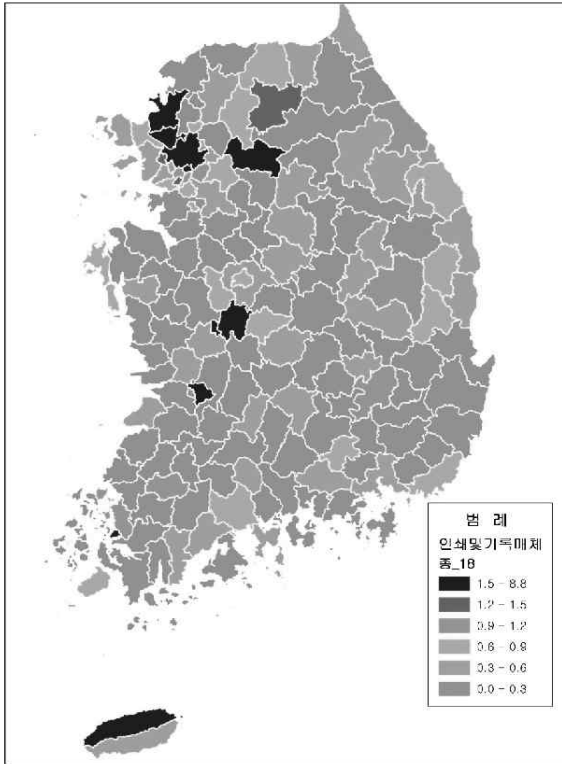
[펄프및종이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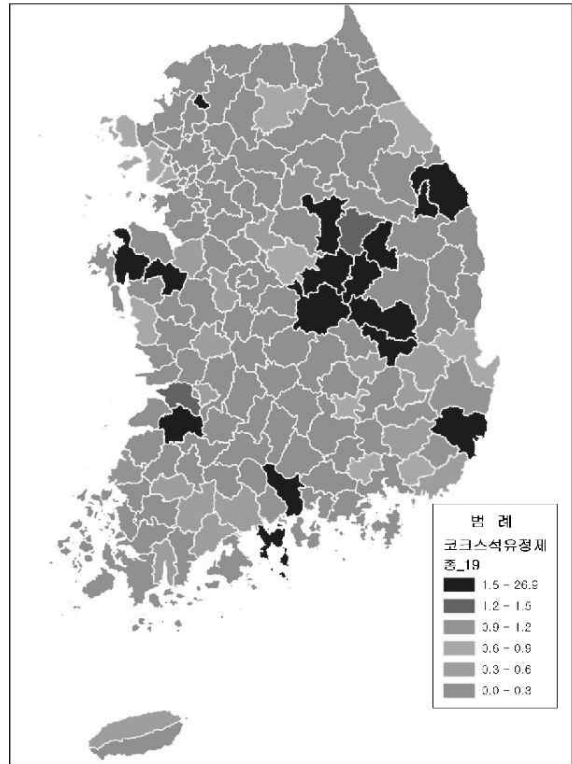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인쇄및기록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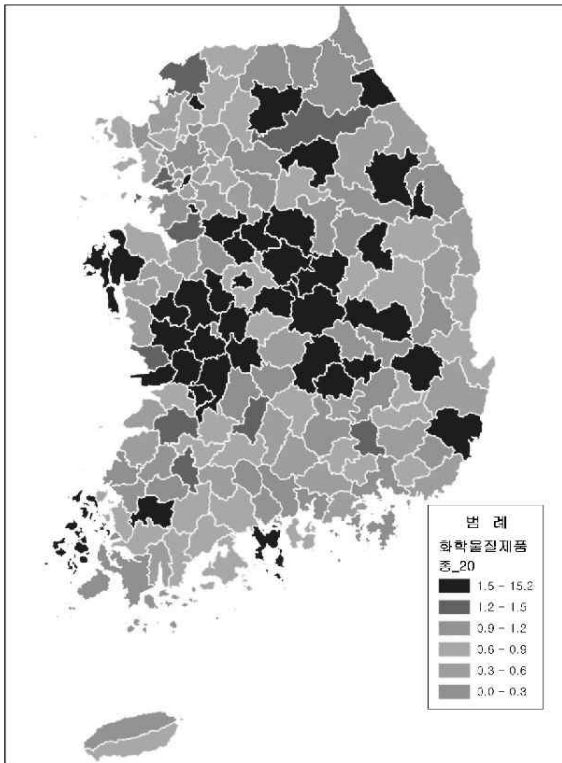
[코크스석유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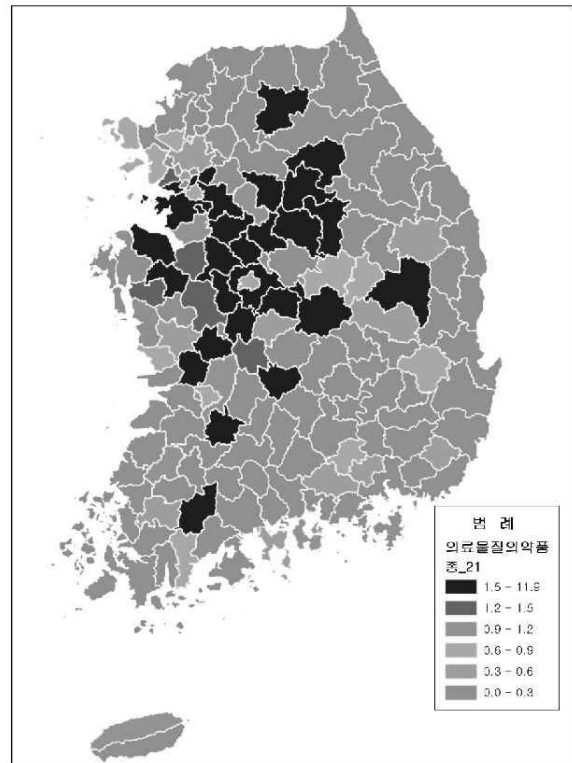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화학물질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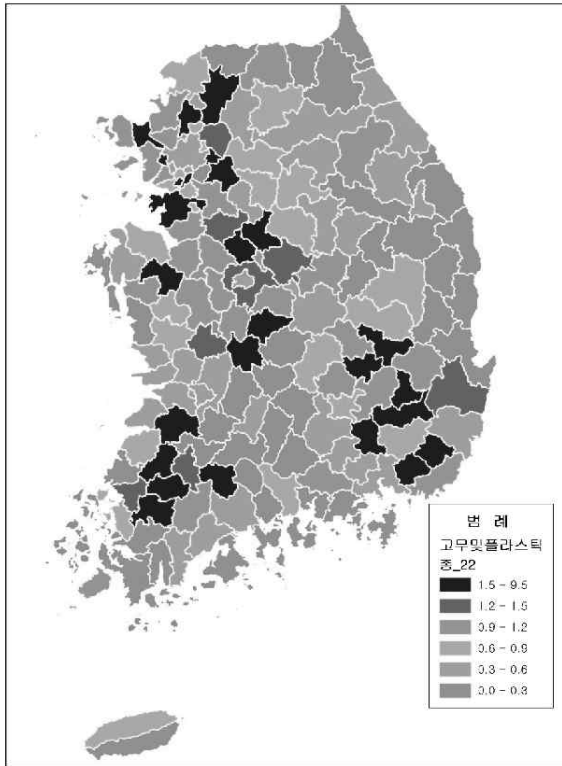
[의료물질의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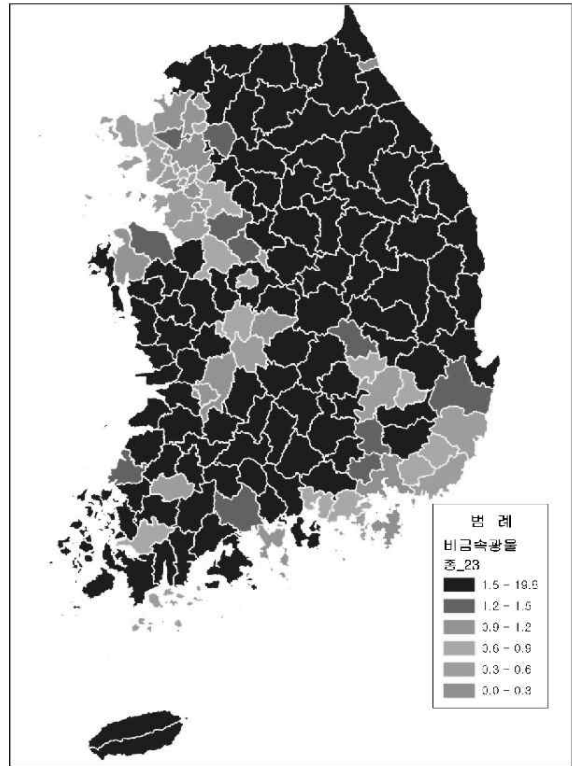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고무및플라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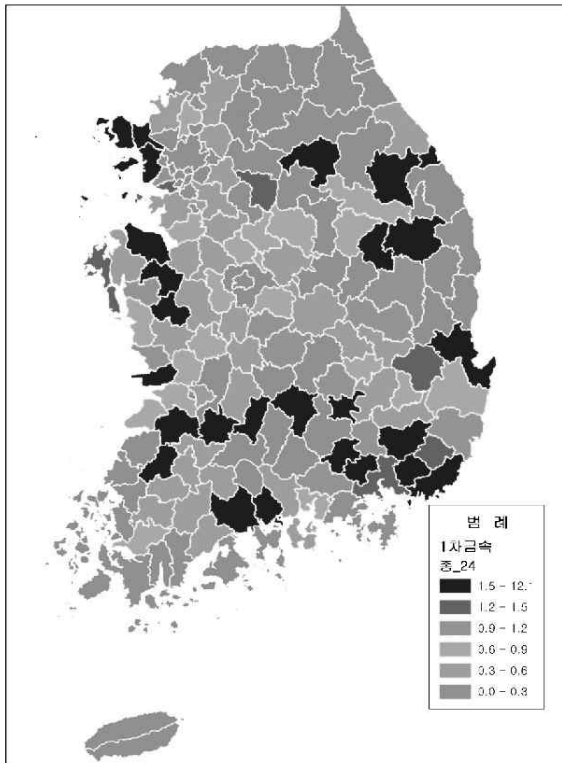
[비금속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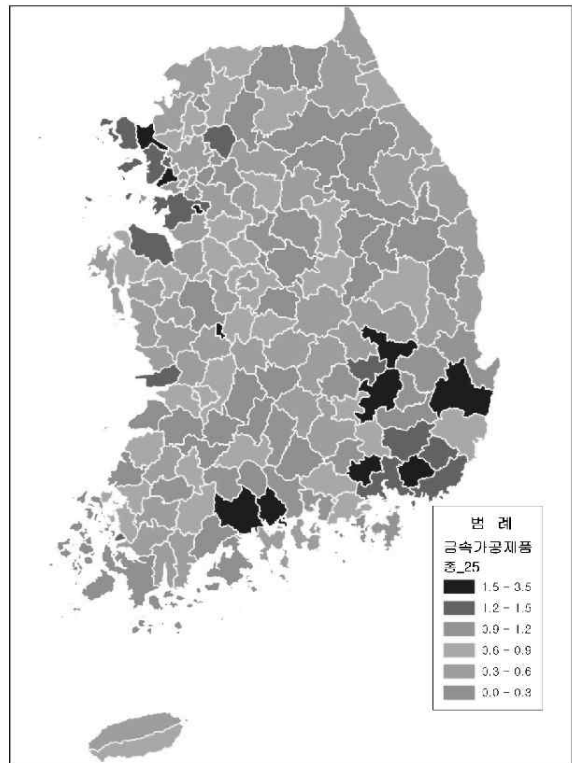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1차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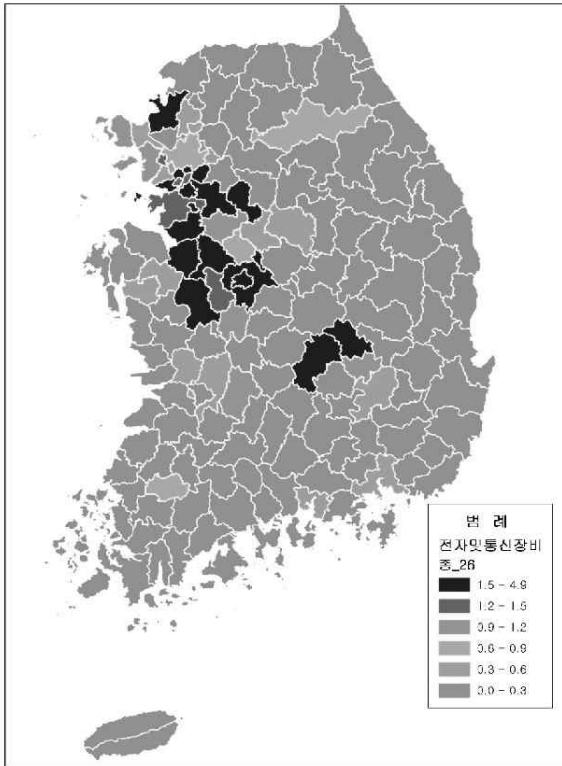
[금속가공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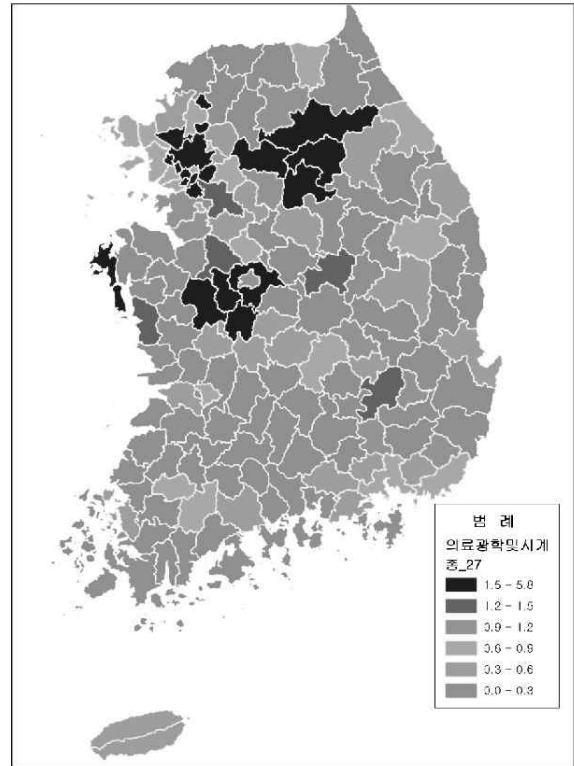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전자및통신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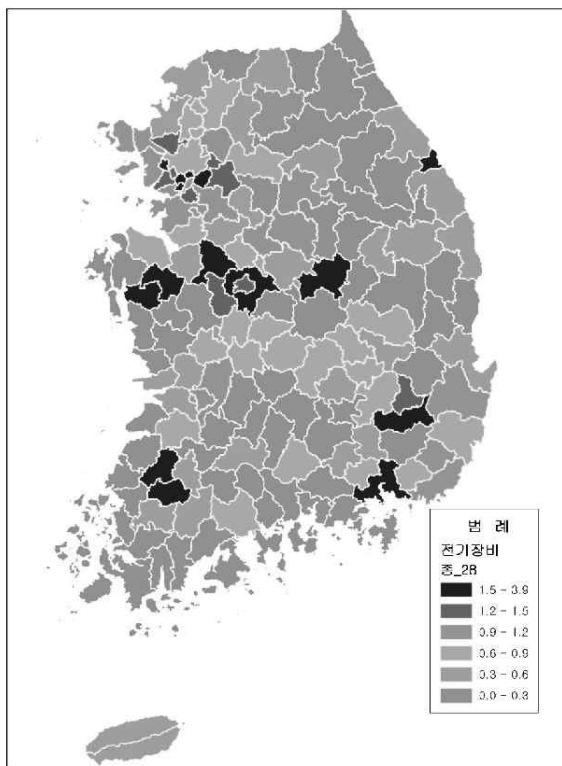
[의료광학및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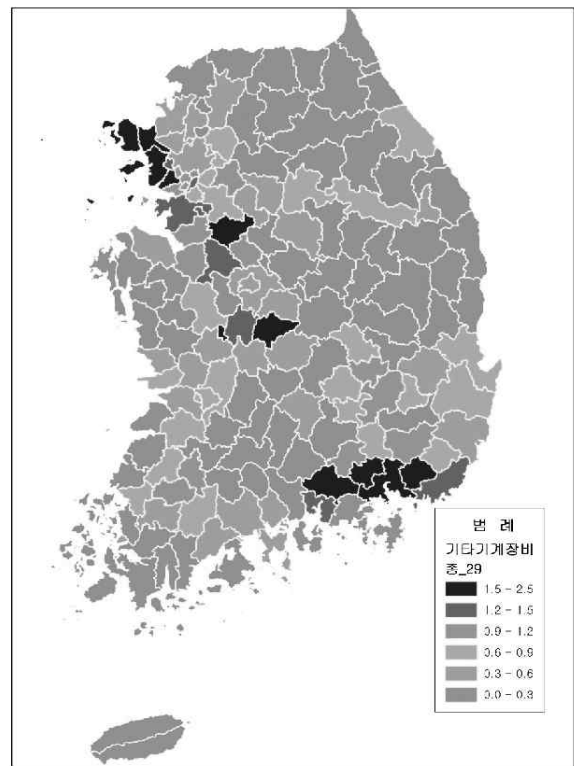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전기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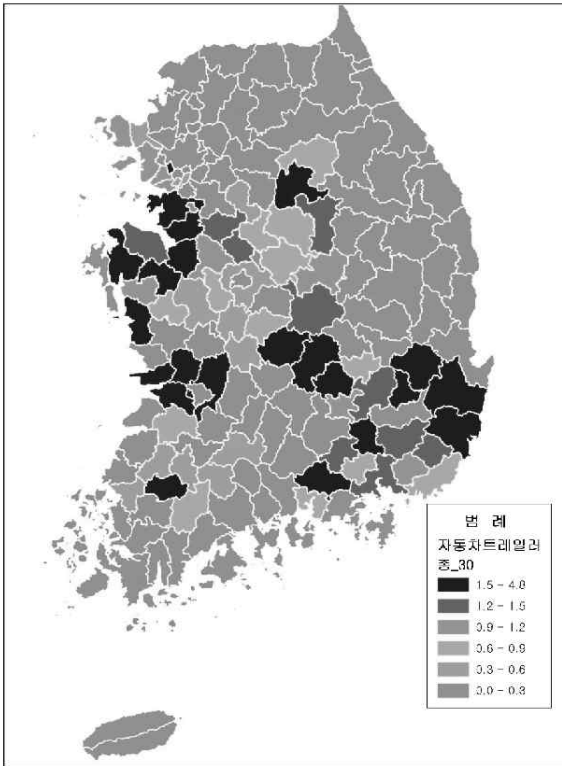
[기타기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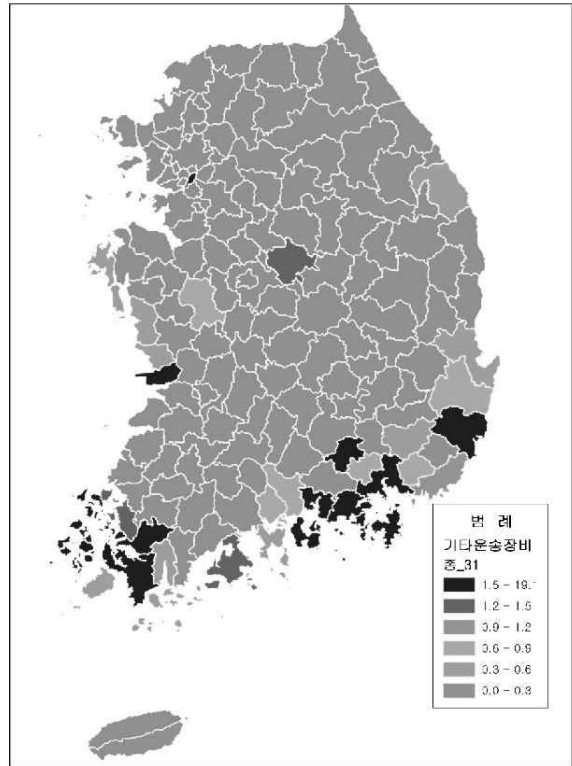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자동차트레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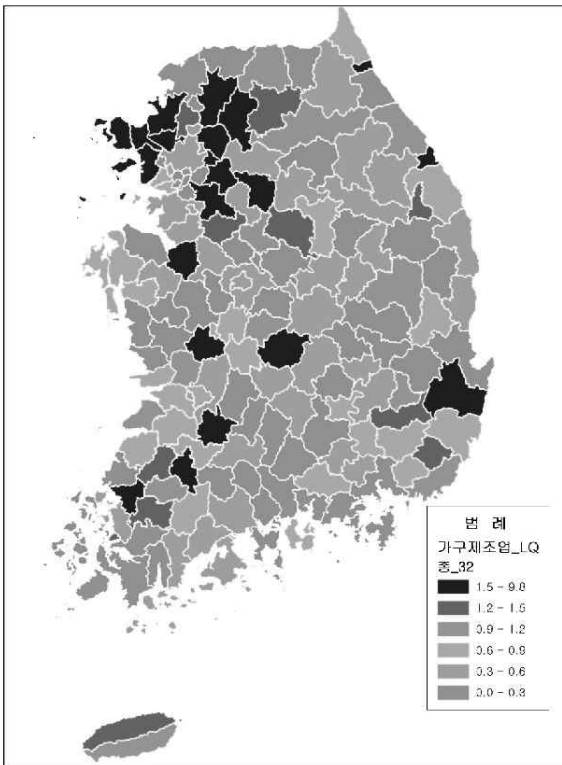
[기타운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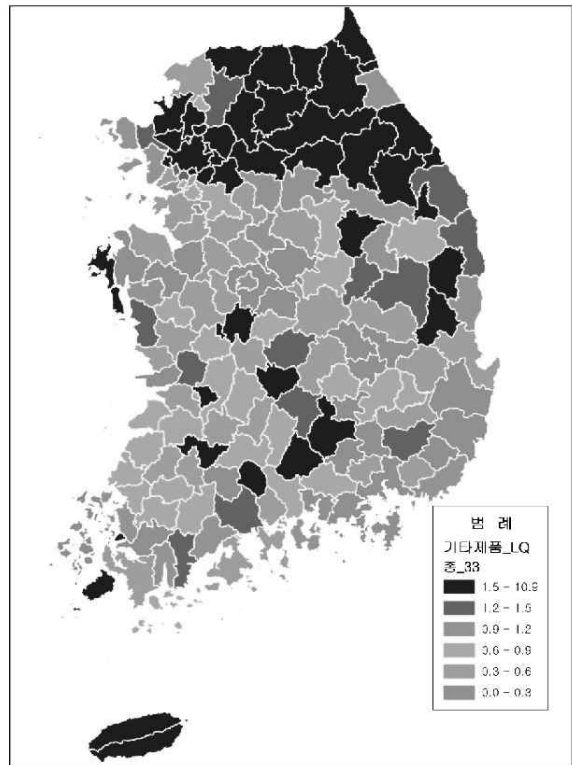
부 록

● 전국 시도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특화도(LQ)분석 결과

[가구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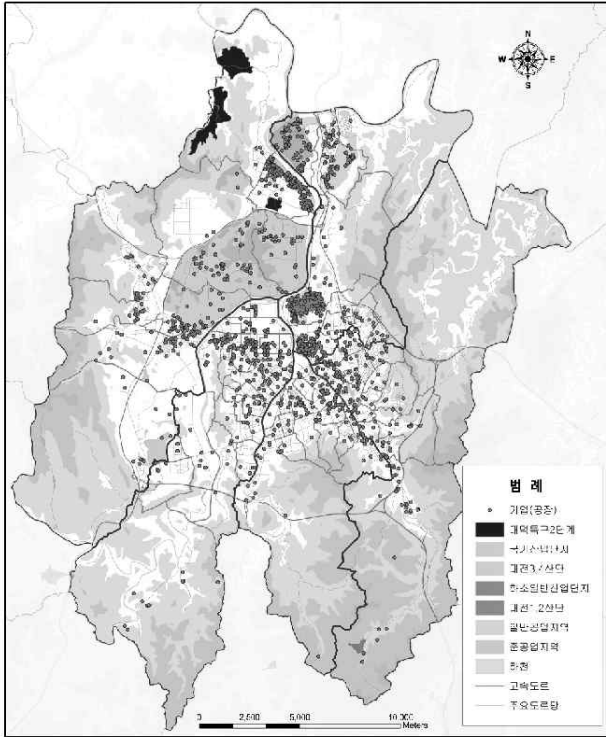
[기타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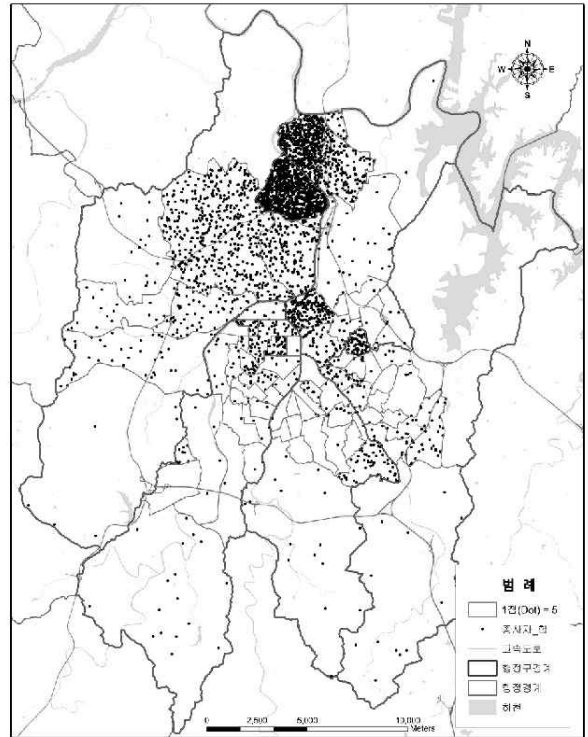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대전 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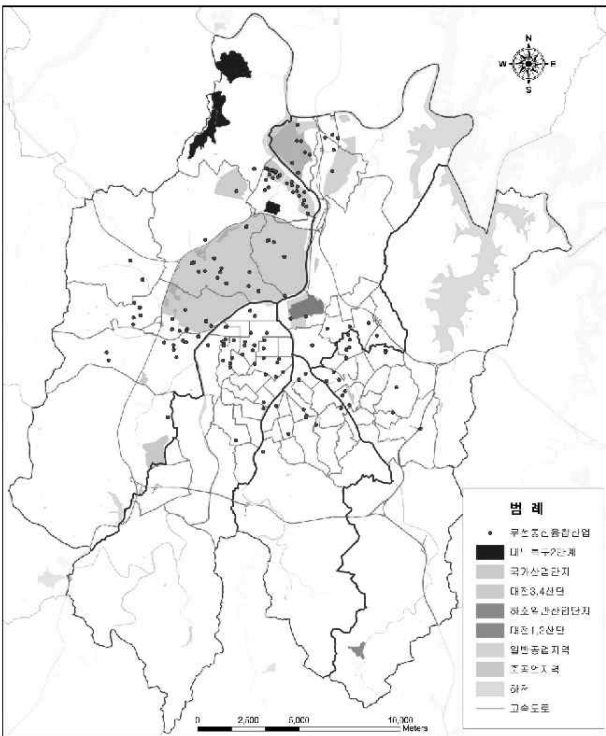
[대전 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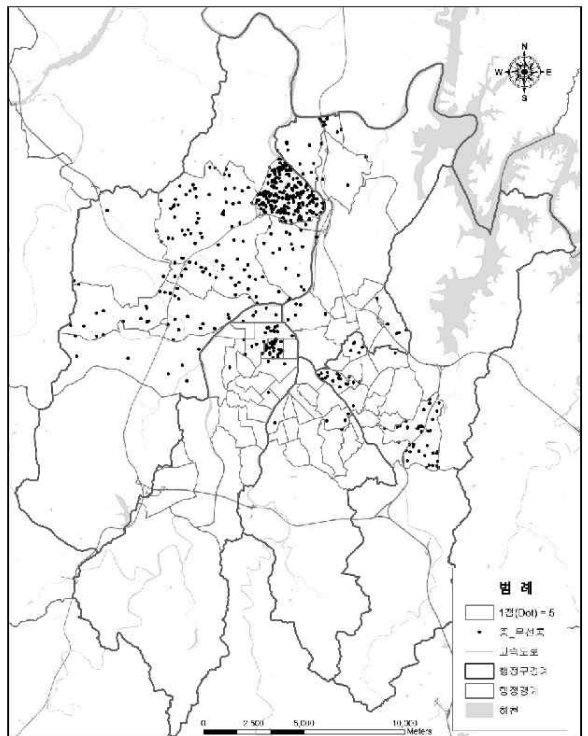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무선통신융합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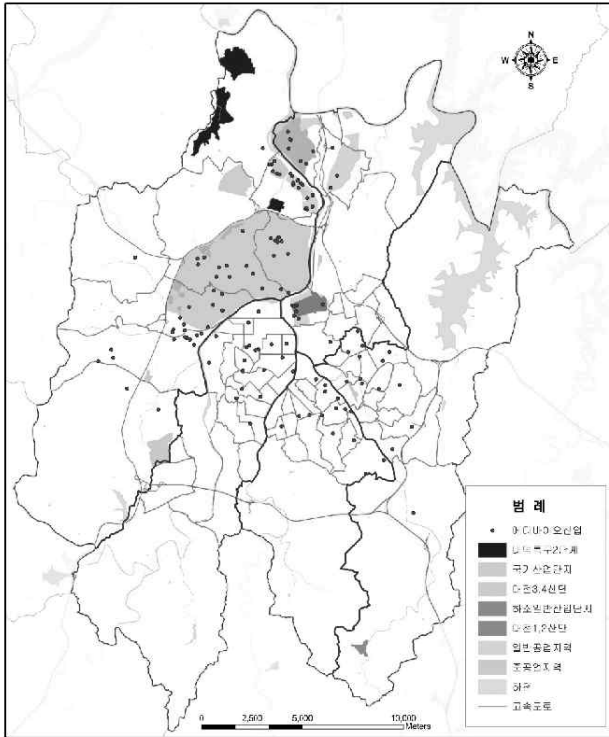
[무선통신융합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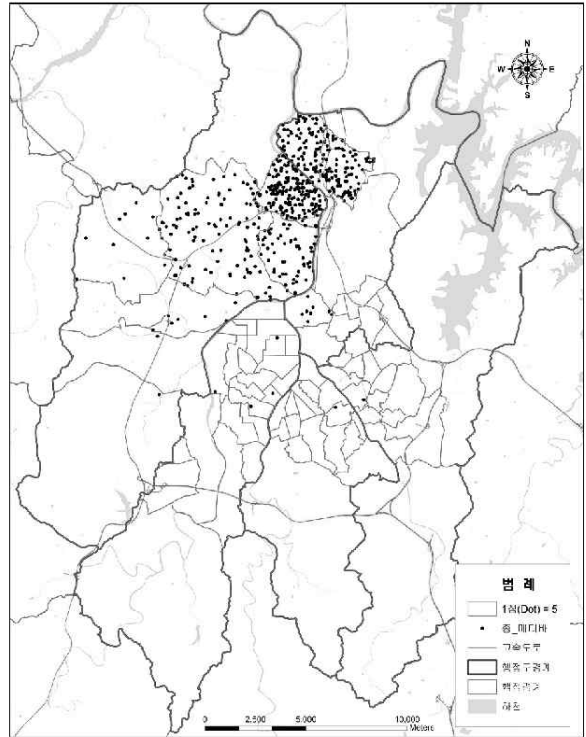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메디바이오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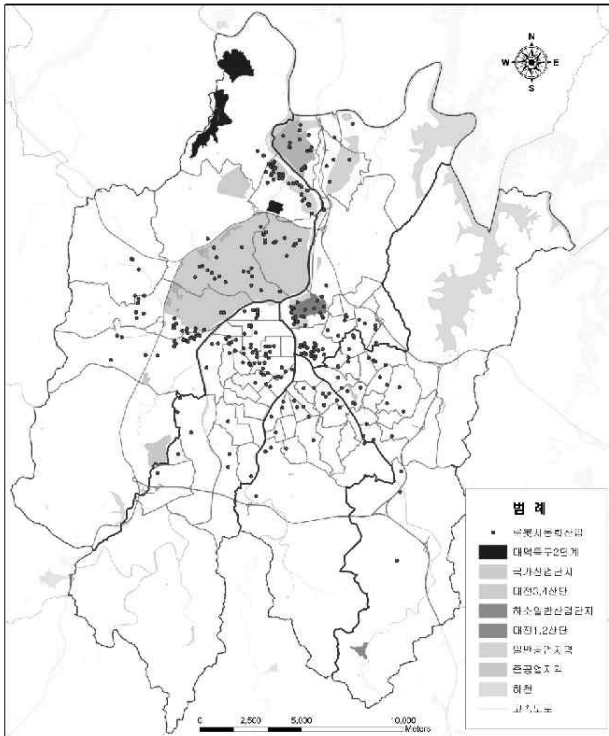
[메디바이오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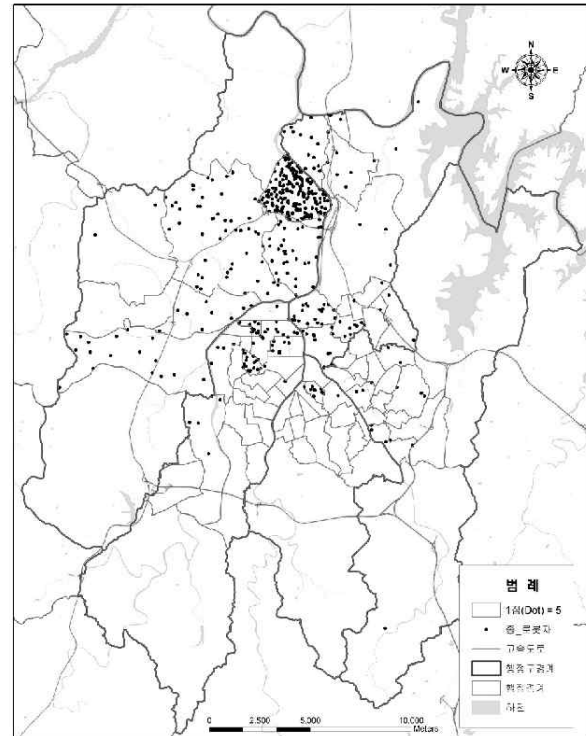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로봇자동화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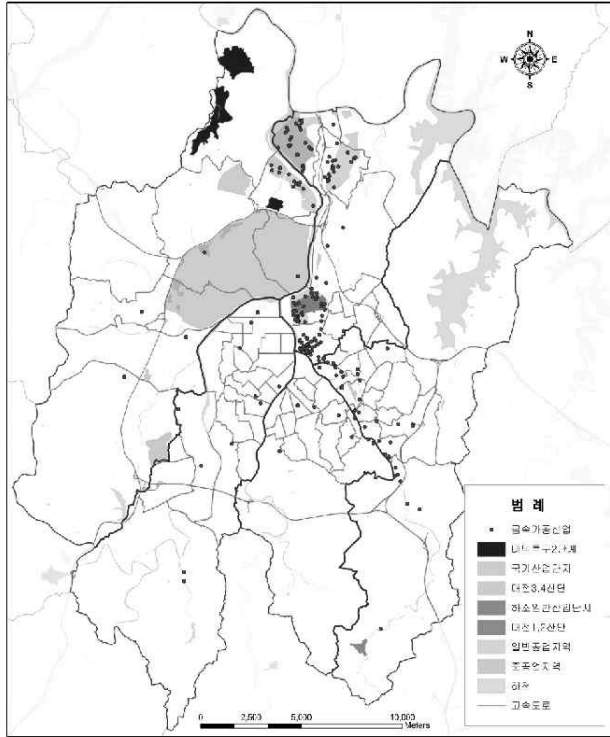
[로봇자동화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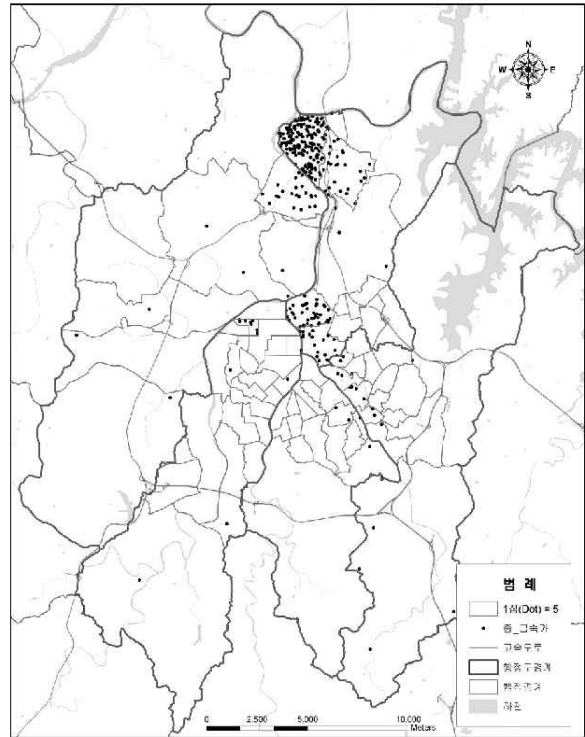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금속가공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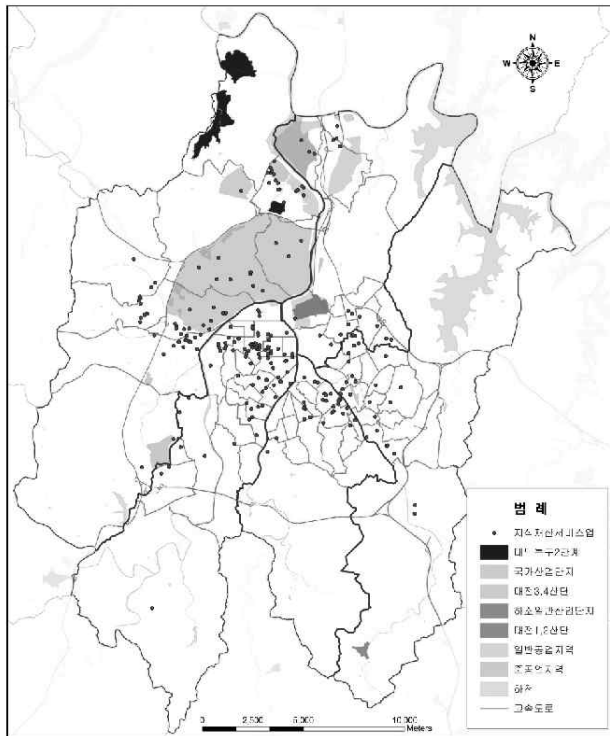
[금속가공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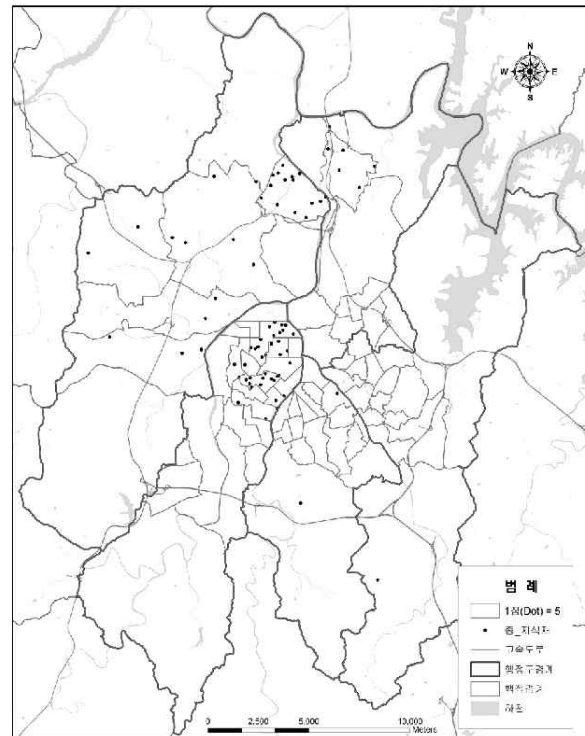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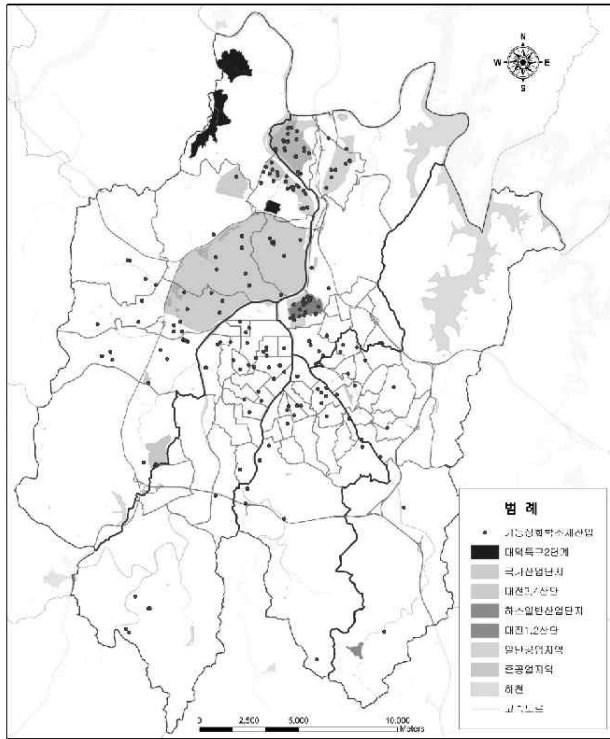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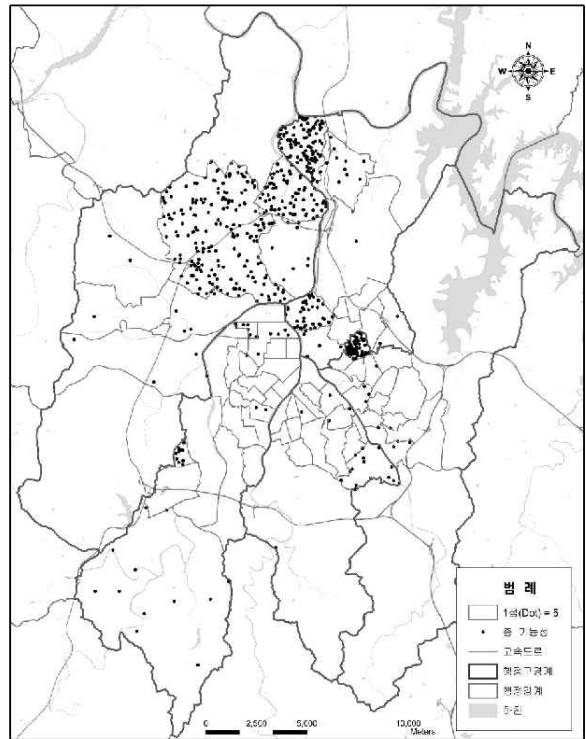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기능성화학소재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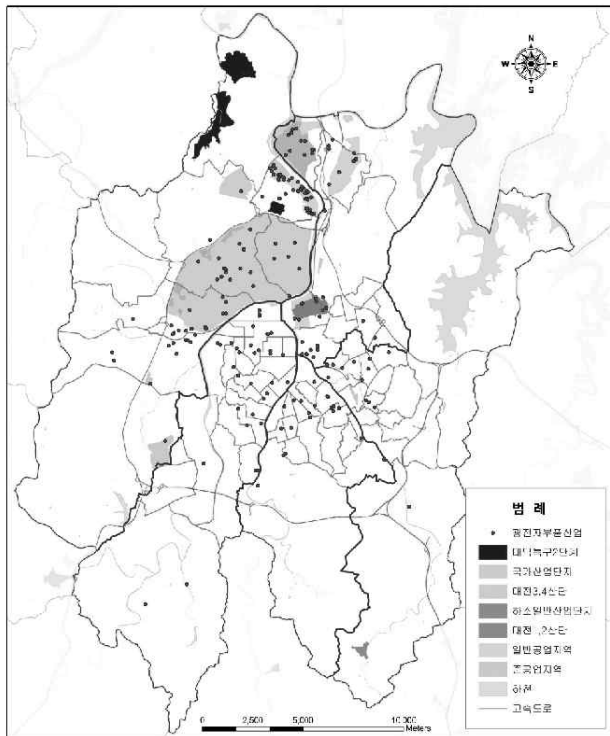
[기능성화학소재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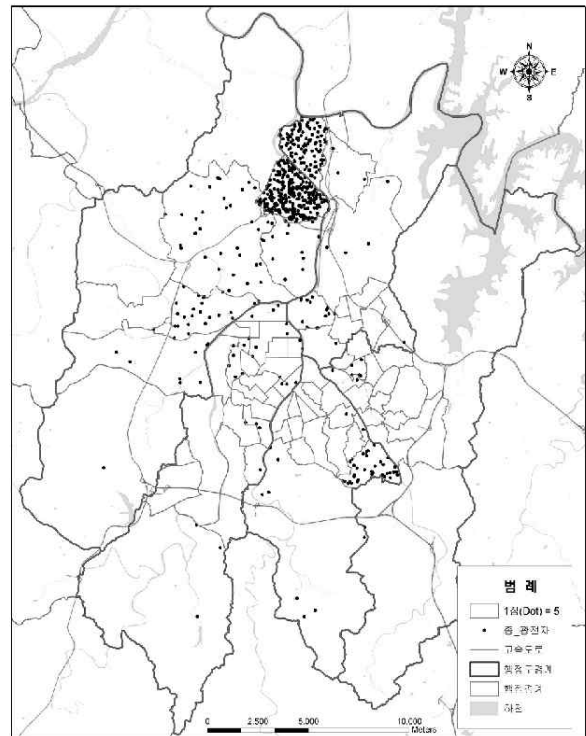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광전자부품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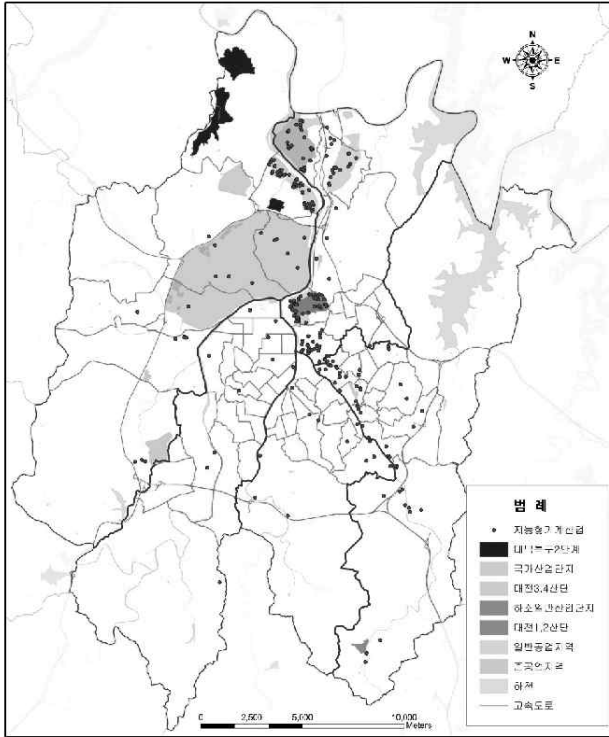
[광전자부품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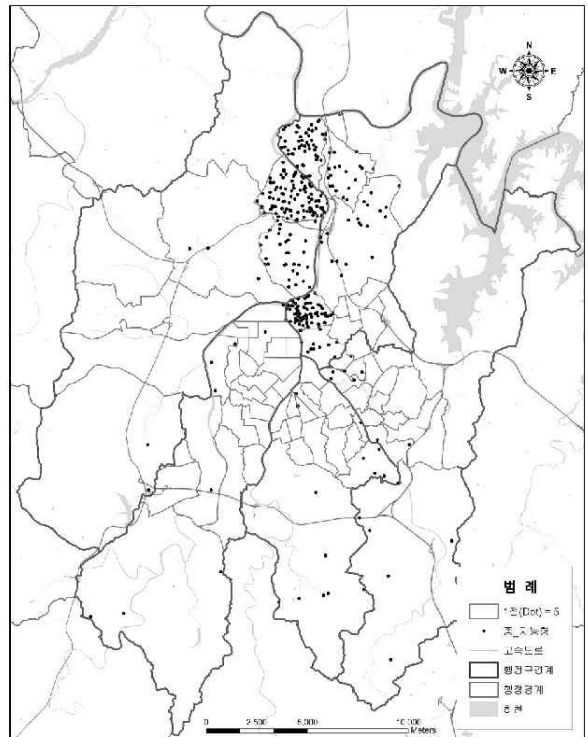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지능형기계산업 사업체 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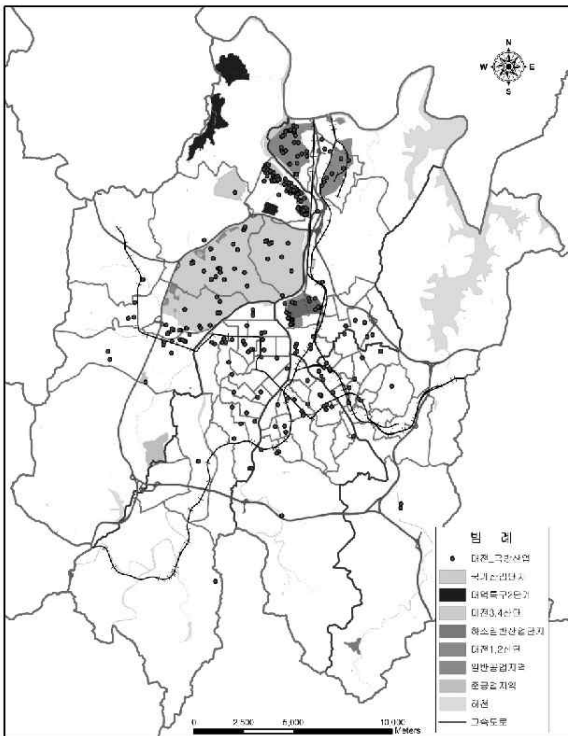
[지능형기계산업 종사자 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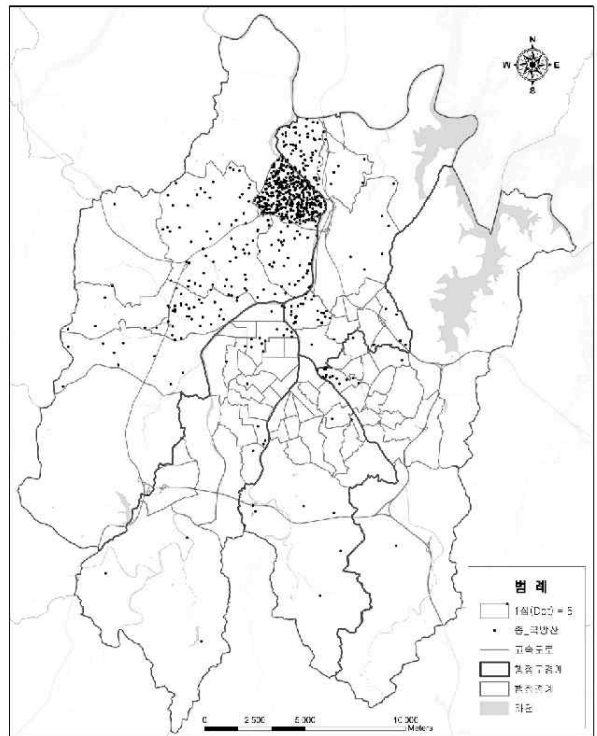
부 록

● 대전광역시 대표산업(주력/협력/국방산업) 입지현황도 및 종사자 집적도 현황

[국방산업 사업체 입지도]



[국방산업 종사자 집적도]



토 론 요 지

한국지역학회 Glocal Open Innovation 토론포지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 김재홍

1. 대전의 산업현황과 산업단지 공급확대의 필요성

- 대덕연구단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개발 집적지이지만 연구인력과 연구단지의 지역 착근 미흡과 R&D와 산업집적의 연계 부족으로 산업기반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고 이에 따라 대전의 산업기반(제조업)이 취약한 실정
- 소기업, 벤처기업 등 인큐베이터형 산업구조의 특성상 사업체 및 종사자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상회, 그러나 GRDP, 생산액, 생산성 등은 전국 평균 하회
- 이에 따라 대전은 기업활동(특히 앵커기업) 유치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통계상 대전지역의 산업단지는 규모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산업단지의 신규 공급과 노후단지 재생 및 이를 통한 제조업의 첨단화와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산업단지 패러다임의 변화

- 최근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도시첨단, 재생, 융복합화 등)는 대전의 산업단지 공급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대전 산업구조개편의 기회라고 판단됨
- 대전의 경우 다른 지방도시와는 달리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의 성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첨단제조업과 지식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첨단산단, 노후산단재생 등의 공급전략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대전의 산단 필요성 vs 서비스업 중심의 고도화 전략

- 대전은 서비스업 성장이 강점인 것은 틀림없으나 대전 경제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며 국제도시서비스기능(금융, MNC 등)은 서울, 인천, 부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성장 서비스 부문의 중심은 지식재산서비스이라는 점에서 첨단산업과 지식재산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경제 고도화 전략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대전의 벤치마킹 모델

- 대전의 경우 실리콘벨리나 리서치트라이앵글, 소피아앙티폴리 등과 같은 모델은 따라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 적용가능성도 희박함
- 핀란드 울루, 스웨덴 시스타 등의 모형은 ICT 특화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전 대덕특구의 재생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판단됨. 다만 이들을 벤치마킹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앵커기업과 앵커기관의 유치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시스타의 개발 이념인 ABC 원칙(일자리: Arbete, 주거: Bastad, 도심(Center)은 대전 산단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음.

5. 민간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대전의 유치 전략은?

- 동탄, 마곡, 판교, 상암, 송도, 경산, 부산 등의 신규 첨단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결국 다른 지역과 유사한 전략으로는 후발 대전의 경우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

음. 그러므로 대전의 인적자원을 포함한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기준의 거주 및 교육 환경의 지속적 개선, 기업친화적 경영환경과 기업유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참고: 본인은 독일 베를린에 기업유치하러 갔다가 브란덴부르크주에 유치당할 뻔 했던 적이 있음)

-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신속한 산단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대전에서는 특성상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견기업 육성 전략도 가능할 듯

6. 대전시의 대표산업(주력 및 협력산업)의 타당성과 산업입지

- 대전의 대표산업은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기능성화학소재, 광전자융합, 지능형기계, 지식재산서비스 등 8개 산업분야.
- 금속가공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산업은 부가가치 및 매출액 증가율이 전국대비 높음.
- 대전지역 대표산업의 사업체 입지분포는 전반적으로 8개 대표산업 모두 대덕테크노밸리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있으나, 금속가공산업 및 지능형기계산업은 대전1·2산단 지역인 대화지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인 오정지역이 핵심 집적지를 이룸
- 전반적으로 대전의 대표산업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금속가공의 경우 부가가치, 매출액 등의 성장률이 낮지만 사업체수가 많아서 대표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로 대전1,2산단에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후산단재생사업과 더불어 지능형기계산업과 함께 주변지역의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동종업체의 고밀도 집적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듯
- 대표산업 중 무선통신기기,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기능성화학소재, 광·전자부품 등은 현재 대덕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덕특구 2차 산단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별 클러스터를 조성하지만 이들 산업의 경우 지식재산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덕특구의 경우 일자리, 주거, 도심기능이 혼합된 산업단지 재생이나 도시첨단산단의 조성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산학융합지구 등을 신규로 고려하고 있다면 지구지정을 기존 대학이 있는 곳이나 근처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지구 지정 후 대학 캠퍼스 유치(일부 이전 포함)는 현재 대학의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한국지역학회 Glocal Open Innovation 토론포지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김학훈

1. 대전시 산업단지 정책은 도시재생과 연관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목표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복합용지제도를 활용하여 복합도시기능(산업+상업·업무+주거+물류)을 가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혁신클러스터 형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클러스터에서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데, 대전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발표내용은 산업단지 용지공급, 기업유치, 예산지원 등의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한 느낌이 있다.
2. 대도시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일반적 현상을 감안한다면 대전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표현은 그 비중보다는 생산성 문제에 한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제조업의 생산성 문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자동화 공정을 채택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대전의 강점인 서비스 부문도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대전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첨단산업에 해당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현재 대전시에 특화된 업종을 보면 정보산업단지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데 생태산업단지는 대전의 산업구성과 경제 여건에서 보면 부적절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경계획 및 시설계획에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대전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생태산업단지를 기대하거나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4. 대전시가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전시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와 각종 국책연구소,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한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생태계가 대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전은 고속도로 및 철도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고, 많은 중앙행정기관들이 들어선 대전 정부종합청사와 세종시가 인근에 있다는 것도 대전의 강점이다.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약에 의한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앵커기업은 대기업이 되겠지만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앵커기업에 따라 관련된 벤처기업들이 따라서 많이 입주할 것이다.
5. 대전시의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것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한 구로공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구체적인 업종분포를 파악하고 업종별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대전의 지역자산은 기업자산, 인적자산, 지식자산이 해당될 것이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소기업들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

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특허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업 확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야한다. 이러한 도시재생 전략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조직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지역학회 Glocal Open Innovation 토론포지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최정석

1. 새로운 패러다임에 비추어 대전시 산업단지 정책의 방향정립과 전략적 매치 정도는?
 -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화, 민간자본,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지금 대전이 추진하고 있는 산단 정책은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
 - 그러나 문제는 기존 대전의 기존 산단(특히 12산단, 34산단)이 도시확장과정에서 도시내 산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개발되는 신흥 산단들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
 - 이런 맥락에서 기존 산단에 대한 재생이 요구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현실이며 새로운 획기적 전략이 요구
2. 대전시에 정말 산업단지가 필요한가?
 - 대전시가 과연 좋은 산업입지 여건인지는 대전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업)이 판단할 것임
 - 대전시도 다른 도시처럼 주변에 여러 산단을 거느린 산업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정서를 다시 한 번 따질 필요가 있음
 - 30년이 흘렀지만 대전과학단지가 과거에는 상징성은 높았지만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전시의 산업입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하고 있음
 - 게다가 이제는 세종시와의 경쟁 상황에서 대전시의 산업경제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
 -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유수의 민간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3. 성공적인 국외사례 중에서 대전시가 따라야할 벤치마킹모델은? 또는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벤치마킹모델은?
 -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들을 채우는 국내의 수많은 '충진개발' 모델은 과거의 경제구조에는 맞았지만 현재와 같은 치열한 지역경쟁의 시대에는 고비용 저효율을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할 것임
 - 환경관리 효율성, 경제적 집적효과로 대표되는 산업단지라는 구역설정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토지이용방식을 탈피하여 경계를 초월하는 네트워크 구축, 창의혁신산업 기반 형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인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유무형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
4. 생태산업단지, 정보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 측면에서 대전시의 가능성과 한계는?
 - 생태산업단지는 현재 여러 문제로 실질적 성과를 얻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이기 때문에 대전에 EIP사업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이 정보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를 맹목적으로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즈음에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대전시의 산업단지 공급의 필요성과 가격 대비 자가 공급전략은?
 -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존 기업을 거기로 이주시키면서 분양률 100%로서 지역 산업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은 한쪽 문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지역의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산업발전, 경제발전,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산업단지의 공급과 100% 분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도산업, 핵심산업 등 어떤 명칭이건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기업의 입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들 산업 이들 기업은 분양가 10~20만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지요소가 작용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결장인자에 대한 정책적 초점이 필요

6. 민간앵커기업이 들어오기 위해 대전시가 내걸어야 하는 조건과 유치 전략은?

- 민간의 선도기업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외에서 이미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 국내 핵심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입지요인에 대한 대전 차원의 분석과 정책개발이 필요

7. 대기업전략? or 벤처기업전략?

- 과거 열풍과도 같았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장을 끌 수 있는 수준으로 창업기업이 큰 사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유인전략은 2차전략으로 미룰 필요가 있음
- 핵심적인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 경제여건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몰고 갈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대전시가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한다고 굴지의 대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굴지의 대기업 차하위의 중급 이상의 기업들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 때도 무분별한 백화점식 기업 유치보다는 산업특화를 영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대전시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은 가능한가?

- 대전시 노후산업단지(특히 12, 34단지)의 재생사업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방식을 그대로 유치한채로는 주차장, 도로, 편의시설, 지역교통접근성, 녹지정비 외에 근본적인 물리적 재생을 단기에 실현하기는 어려울 소지가 있음
- 노후산단의 실질적 재생을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토지이용의 근본적 변화(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white zone 제도의 응용?)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대전시의 전략산업의 타당성은? 새로운 주력업종-연계업종 클러스터는 ?

- 대전발전연구원(정경석 박사팀)의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대전시의 전략산업은 무조건적인 과학기술산업이 아니라 특화경쟁이 가능한 산업분야와 업종 그리고 기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대발연의 연구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10. 기존의 도시재생관점에서 본다면 주거중심의 정비사업 내지 재정비촉진사업 방식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에 내재된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방식이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바, 그 연장선상에서 산업단지 재생이나 도철산단의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시에 전제되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울러 대전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잠재적 자산 및 가치를 활용했을 때 지역의 산업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대전의 추가적인 대규모의 신규 주거단지 개발은 지역산업, 지역경제, 지역주택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것임
- 그리고 고삐 풀린 외연적 난개발을 확산시키는 과학산업단지 추가 개발, 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전만의 산업개발모델, 산업입지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대발연의 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주거-환경이 하나로 연계되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며, 도시의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주거환경이 한데 묶인 재생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필요

한국지역학회 Glocal Open Innovation 토론포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 류승한

□ 새로운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대전시 산업단지 정책의 방향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관련 정책은 토지공급 중심에서 산업생태계의 구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 또한 제조업 용지의 신규개발 중심에서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기존 용지의 효율적 활용, 지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입주 등으로 이행하는 초기단계에 있음
-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이러한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예외는 아님
- 그러나 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법은 지역여건이나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해지므로 대전시 또한 산업단지 개발이나 기업유치의 구체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 가령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할 경우와 첨단소기업 중심의 전략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산업입지 개발방향은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음

□ 대전시의 산업단지 개발 필요성

- 산업입지법이 정한 산업단지 면적 기준이 일반산단 3만㎡, 도시첨단 1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최근 대전시의 지역여건을 볼 때 1970년대의 대규모 산업기지와 같은 것이 현재 대전시 내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산업단지의 필요성이나 어떤 산업단지가 필요한가는 지역의 정책목표에 따라 상이하며, 대전시 발전을 시 행정구역 내에서 완결할 것인가 또는 주변지역과의 기능 분담을 통해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접근이 가능
- 다만, 자기 완결적인 발전을 추구할 경우는 물론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추구할 경우에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구축, 창업기업 및 첨단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지식서비스업의 육성 등은 대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최소한 이들을 위한 적절한 공간제공 등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생태산업단지, 정보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 측면에서 대전시의 가능성

- 정보산업단지나 지식산업단지는 유치업종의 성격을 말한 것으로, 이미 대전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생태산업단지의 경우 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만약 단일의 부지 내에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재활용을 강조하는 협의의 생태산업단지라면 대전시에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면, 대전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대전시의 산업입지 여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전시의 산업단지 자가 공급전략

-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가격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지역의 유사용지보다 저렴한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적정성이 평가됨
 - 가령 부산시 강서지역에서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최근 분양가는 평단 200만원을 초과

하나, 인근의 녹산산업단지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분양됨

◦ 따라서 무조건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인근 지역 지가와 비교하여 적정가격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용지공급 기준이나 분양우선순위 조정 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전략산업에 속하는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만약, 산업단지 공급가격이 주변지역 지가보다 높아 인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 토지이용상 가치분 면적을 높이는 방안, 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되는 용지비율을 높이는 방안,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원가를 인하하는 방안, 유치하고자 하는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급 우대를 통해 실제 기업이 인하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전시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노후산단 재생 대상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역시 경제성이나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노후산단을 산업적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도로에 접한 개개 필지별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고밀개발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결과를 야기

◦ 노후산업단지 재생이 신규산업단지의 개발보다 비용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투입 등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

◦ 사업지구의 지정(필요시 인근지역도 포함하는 방안 등),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밀도, 개발방식 등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재정투입 규모의 일부 경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성공적인 국외 사례중 대전시의 벤치마킹모델은?

◦ 오늘의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사례는 모두 대전시의 산업입지정책이나 산업단지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함에 있어 현재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임

◦ 특히 오늘의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사례의 다수는 우연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건 또는 계획에 의해서건 간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결과물이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함

◦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를 인위적으로 단기간 내에 개편하는 것은 대전과 같은 규모의 도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단기간에 걸친 인위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전제하는 모델이 아니라면 다양한 모델을 검토한 후 대전 산업입지의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지역학회 Glocal Open Innovation 토론포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조혜영

□ 대전시 산업단지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단지가 많이 지정된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도 높고, 1인당 GRDP도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전시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은 18.2%로 광역시만을 기준으로 봤을때도 서울시 다음으로 비중이 낮으며, 1인당 GRDP도 전체 16개 시도중 13번째를 차지하여 대전시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전은 우선적으로 제조업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지식서비스 중심의 서울형 산업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확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업단지는 더 이상 제조업만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며 서울시에 조성되고 있는 마곡첨단단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단지로 서울형 산업구조를 보다 더 공고하게 해 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재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더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단지로 조성되는 신규단지 뿐만 아니라 대전1,2단지의 재생방향을 고도화된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릇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뉴욕, 시카고 등에서도 일정 비율의 토지를 제조업 기반의 산업용지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바와 같이 대전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일정 산업용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지만 수도권에 지식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제조업 기반을 다지면서 단계적으로 고도화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전시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도시첨단산업단지 발전방향

2009년 재생단지로 지정된 대전 1,2산업단지의 재생사업 방향성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사업성 확보와 입주기업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 개선위주의 재생사업은 국비확보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나 실제 단지재정비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주변도시와의 연계된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제1세대 재생단지로서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5년 확대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급은 연구개발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벤처기업과 연구개발기능의 성장성이 높은 대전지역에 지정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도시형 첨단산업 및 창조산업 육성을 통해 대전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 대전시 산업단지 정책과 필요성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둔화, 경박단소형의 첨단업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재편, 도시화의 진행 및 복합입지에 대한 수요증대 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는 같은 방식의 입지공급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반면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강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노후산단의 구조도화, 일터와 쉼터, 주거 등이 함께 어우러지고 편리한 도시기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형 산업단지, 공간활용도가 높은 입체형 산업입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입지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대전의 경우 중부권을 대표하는 대도시로서 대덕연구단지, KAIST 등 우수한 혁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첨단 지식기반산업이 발달하기에 적합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향후 도심형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대전시가 추구하는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도시형 산업단지의 공급확대 정책은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도 적합한 입지정책 방향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대전지역 입지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에서는 도시형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7.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산업입지공급정책과 더불어 지식기반형 기업의 유치전략과 지역내 대학, 연구소의 Spin Off 등을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벤치마킹 모델 : 캠브리지 현상

- 대전의 발전모델로서는 지역내 우수한 대학 및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한 영국 캠브리지 테크노 폴(Cambridge Thecno-pole)을 고려할 수 있음. 미국의 실리콘 밸리(Silcon valey)에 비견해 영국의 실리콘 펜(Silicon Fen)이라고 불리기도 함.
- 캠브리지 테크노폴은 런던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10만명의 작은 도시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약 25마일 반경의 지역을 일컫는데, 영국은 물론 유럽전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학협력 단지로 평가받고 있음.
- 국가주도의 산업단지와 달리, 캠브리지 테크노폴은 자생적(bottom-up)으로 생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캠브리지 컨설턴츠(Cambridge Consultants)와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Cambridge Science Park)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음.

- 캠브리지 컨설턴츠는 자체인력으로 Bluetooth기구나 의학진단기기 등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활발한 스피나아웃(spin-out)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캠브리지 테크노폴의 다른 시발점인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 1970년 캠브리지 대학교의 31개 칼리지 중 하나인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2013년 현재, 약 1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캠브리지 테크노폴의 성공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첫째, 중앙차원의 통제 없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자율성이 극대화되었고 정부나 대학본부(University)의 간섭이 적은 자유로운 학풍을 들 수 있음.
 - 창업이나 보유 지적재산권(IP)의 행사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없고 개개인의 재량에 맡겨 연구의 상업화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를 형성
- 둘째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대학과 네트워킹 기관, 벤처펀드, 인큐베이팅 기관 등의 폭넓은 상호협력이 자연스럽게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에 최적화된 산학협력 생태계(eco system) 구축을 이끌어 낸 것임.

한국지역학회 Glocal Open Innovation 토론포지

LH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 성장환

대전시가 고전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조성이나 생산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글로벌시대의 산업구조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경제적 지위의 우월성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입지했던, 기존 제조업종은 저임금·공해유발업종으로 간주되어 도시외곽지역 또는 저개발 국가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미 중국에서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전의 산업체계의 구조는 향후 국가를 선도할 업종중에서, 대전의 여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과 분야를 중심이 되는 체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만으로 안정화 된 경제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국가경제의 우위를 선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과 인근 세종으로 이전할 출연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및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신흥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신흥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와 육성도 시급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앵커기능의 설정 및 이를 수행할 대기업의 유치이다. 중점육성분야의 대기업 입지는 그 지역의 해당 산업의 독립성과 연계업종의 육성·확산을 한층 촉진한다. 이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최근 대구에 이어 두번째로 출범한 '대전-SK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K 등의 대기업이 신흥중소기업의 가이드나 멘토역할에서 벗어나 메인업종의 투자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과 여건조성이, 대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를 수도권 이 아닌 대전지역에서 실용화 및 상용화하여 연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 대전의 지역혁신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개발방식의 패러다임변화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산업혁명이후 성장주도의 양적공급 시대에 진행되었던, 주거단지, 산업단지, 상업·업무지역, 위락단지 등의 단일 용도의 개발방식의 입지를 조합한 도시공간구조의 체계가, 다시 그 이전의 혼합(복합) 용도의 토지이용패턴으로 회귀하고 있다. 성장시기에 물량공급으로 기본수요충족이 가능했던 베드타운에 대한 직주(job-housing)불균형에 대한 비판과, 산업단지의 열악한 배후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은 도시발전과 더불어 입주자의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존의 상주인구 베이스의 주택수요에 근거한 택지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도입산업기능과 규모의 결정이 선행되고 이에 필요한 노동력에 근거한 주거등 여타기능의 복합개발이 계획되는 선진국형 개발방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생을 만능접미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많은 재생사업들(도심재생, 주거재생,

산단재생, 마을재생, 지역재생, 농촌재생 등)이 개발기법과 공간입지, 나아가 신개발과 재개발의 경계선조차 모호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도 어렵지만, 최근에는 지속적인 계획의 점검과 개선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주변여건과 입주자의 수요변화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태도와 결단이 민자유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민간의 선도적 투자대응만이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의 지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폴이 업무.컨벤싱.문화.주거.레저가 복합된 융복합단지를 외자유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착실히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도시국가인 장점을 활용하여, 시대적 수요에 대응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의사결정과 능동적인 시행관리.점검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가용지 또한 물리적, 제도적 가용지보다는 경제적 가용지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물리적인면, 제도적인면은 오히려 극복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만, 주변입지, 인프라, 정책지원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공급가능가격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즉 가격결정과 이를 고려한 공급가능면적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를 위한 데이터구축과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나아가 대전시의 최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종시의 출범에 따른 주변지역과 연계 및 공조방안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물론 계획시점부터 꾸준히 계획하고 대비해 왔겠지만,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기능이 산업을 포함한 복합기능으로 재편되고,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충청권의 기능 재편성과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공생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즉 대전권과 청주권으로 양분되어 있는 기존의 충청권 광역계획을 대전-세종-청주권이 통합된 충청 초광역권 계획수립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서로가 손해 볼까 피하기보다는, 상호 줄 건 주고 더 큰 걸 창출할 수 있는 소위 창조경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전 산업단지 조성방향과 노후 산단 재생추진 현황

대전의 가동중인 산업단지는 국가산단(DTV, 대덕) 2개소, 지방산단(대전) 1개소이며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죽동, 문지, 하소산업단지 3개소임

(준공된 산업단지) 3개단지 8,639천㎡ (산업시설 용지 5,139천㎡)

국가산단 (2개소)	▶ (조성면적) 7,383천㎡ / 대덕테크노밸리(4,270천㎡), 대덕산단(3,113천㎡) ▶ (산업용지) 4,162㎡ / 대덕테크노밸리(1,986천㎡), 대덕산단(2,176천㎡)
---------------	---

지방산단	▶ (조성면적) 대전산단 1,256천㎡ / (산업용지) 977천㎡
------	--------------------------------------

대전시는 제조업 비중이 낮아 허약한 경제구조임

(산업기반시설) 제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GDP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도시임

(산업용지면적) 공장용지는 전국대비 1.14%로 전국6대 광역시중 가장 낮으며 1km²당 공장용지면적은 약 15.6천㎡로 전국 38위 해당

(제조업 생산성) 사업체당, 종사자당 생산액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고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낮음.

(제조업 비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전국 31%보다 낮고 성장기여율도 22.6%로 전국기준 36.4%보다 낮음으로

→ 제조업의 육성과 특화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임.

다행히도 충청권역의 중심에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을 계기로 인프라 구성이 더욱더 활기찬 것으로 기대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R&D를 활용한다면 기업 활동에 호재로 작용

그동안 우리시 인근 주변지역을 의식하여 산업단지의 승인을 국가에서 미루어 왔었으나 최근 조성하기 시작한 산업단지 역시 분양률이 100%이며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한 산업용지 가격이 점차적 오르고 있어 산업용지 공급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허약한 경제 구조의 개선과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년 수요의 범위내에서 산업입지 개발 후보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단지 위주로 2020년까지 2,251천㎡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함.

- 진행중 : 하소 152천㎡, 평촌 449천㎡, 둔곡신동1,039천㎡, 문지56천㎡
- 계획중 : 안산 650천㎡, 대정 500천㎡, 잔여지구 1,101천㎡

위 사업이 추진시에는 2020년도까지 약 15조9천억원에서 26조4천억원으로 제조업 생산액증가와 청년 일자리 창출 8,155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국가에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국가에서는 **지방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련법의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의 민간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시 산업용지 조성가격의 **이윤율을 정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를 14%로 개정** 산업용지 공급에 **다수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참고로 1970년대 조성한 대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은 산업단지 주변의 열악한 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특히 악취, 분진, 소음의 해소를 목적으로 계획 2009년도 시범지구로 지정 추진중이었으나

공장 가동으로 인한 보상비의 과다 발생 및 이전 계획지역에서의 공장설립 반대의 민원 제기, 시범사업 사업시행자 내로 지정하고자 협의하였으나 보상사업비 과다로 인한 분양성 저하와 내부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전면수용지역의 참여사업 면적을 축소(453천㎡ → 99천㎡)하여 협의가 진행중으로 당초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운 실정임

□ 사업개요

- 면 적 : 2,306천㎡(대전산단 1,205천㎡, 주변지역 1,101㎡)
- 사업방식 : 전면수용(453천㎡), 현지개량(1,853천㎡)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
- 총사업비 : 4,472억원(국비 870, 시비 870, 민자 2,732)
※ 현재 시세 추정 : 6,300억원(국비 1,100, 시비 1,100, 민자 4,100)

또한 국교부에서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용지제 도입, 서비스업 허용, 입주업종 네가티브제, 민간개발 이윤보장, 민간참여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 참여에 의한 개발을 유도를 하고자 함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도 국비 확보분 150억을 기반시설에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자력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